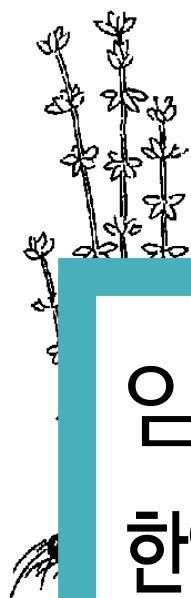


精黃州丹

精黃州商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

제1권

엮은이 주영승 최고야

精黃

軍門荆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

제 1 권

Discrimination on Korean Medicinal Herbs
for Clinicians, vol. 1

엮은이 주영승* 최고야†

How to Cite : Ju Youngsung & Choi Goya. *Discrimination on Korean Medicinal Herbs for Clinicians*,
vol. 1. Daeje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6. (Korean)

· 발행처	한국한의학연구원 www.kiom.re.kr
· 저작권자	한국한의학연구원
· 발행일	2016. 10. 30.
· ISBN	978-89-5970-247-3 <비매품>

*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주임교수 (jys9875@woosuk.ac.kr)

†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연구단 선임연구원 (serparas@kiom.re.kr)

[표지 이미지] 중국 송대 의서인 《증류본초證類本草》의 ‘황정黃精’ 편에 첨부된 삽화 중 일부. 같은 약명 아래에 여러 가지 다른 식물이 나열된 동명이물同名異物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강활(羌活)	2
강황(薑黃), 울금(鬱金), 아출(莪朮)	7
곽향(藿香), 광곽향(廣藿香)	12
당귀(當歸)	16
대청엽(大靑葉), 판람근(板藍根), 청대(靑黛)	21
대황(大黃)	25
도인(桃仁), 행인(杏仁)	29
독활(獨活)	32
동규자(冬葵子), 경마자(苧麻子)	35
목통(木通)	37
목향(木香), 토목향(土木香), 천목향(川木香)	41
반하(半夏)	45
방기(防己), 목방기(木防己)	49
방풍(防風), 식방풍(植防風), 해방풍(海防風)	54
백단향(白檀香), 자단향(紫檀香)	58
백부자(白附子)	61
복령(茯苓)	64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67
사삼(沙參)	72
사인(砂仁)	76
산조인(酸棗仁)	79
산초(山椒)	82
석고(石膏)	85
석류(石榴), 석류피(石榴皮)	88
속단(續斷)	91
오매(烏梅)	95
옥죽(玉竹), 황정(黃精)	98
용뇌(龍腦), 장뇌(樟腦)	102
용안육(龍眼肉)	106
우슬(牛膝)	109
영문 찾아보기	113
국문 찾아보기	118

일러두기

- 본서의 내용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사업 「한약자원의 발굴 및 보전」(K16401)의 성과물로서, 《한의신문》에 매월 연재하고 있는 ‘한약재 감별 정보’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약명, 생약명, 영문명, 기원, 약성, 효능, 주치 등은 주로 한·중·일 공정서(약전)를 기준으로 하되(한약기원사전 <http://boncho.kiom.re.kr/codex> 참조), 일부 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쳤으며, 이명은 《중약대사전》 제2판(남경중의약대학, 2006)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학명은 《the Plant List》를 기준으로 하되(<http://www.theplantlist.org>), 공정서에 다른 학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기하였습니다. 본문의 가독성 유지를 위해 모든 학명은 각주에 적었습니다.
- 일부 내용 또는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저자에게 알려주시면 다음 판차에서 정정하겠습니다.

강활(羌活)

이 명 羌青, 護羌使者, 胡王使者, 羌滑, 退風使者, 黑藥

생약명 *Osterici seu Notopterygii Radix et Rhizoma*

영문명 *Ostericum Root, Notopterygium Rhizome and Root*

기 원 [한] 미나리과 식물인 강호리¹⁾의 뿌리, 또는 중국강활中國羌活²⁾이나 관엽강활寬葉羌活³⁾의 땅속줄기 및 뿌리

[중·일] 중국강활 또는 관엽강활의 땅속줄기 및 뿌리

약 성 辛·苦, 溫. 膀胱·腎經.

효 능 解表散寒, 祛風除濕, 止痛.

주 치 風寒感冒, 頭痛項強, 風濕痺痛, 肩背酸痛.

우리나라의 경우 당귀속(*Angelica*) 식물인 강호리를 북강활과 남강활로 구분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중국강활속(*Notopterygium*) 식물만을 강활의 정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산지에 따라 서남 지역(사천)에서 생산되는 것을 천강川羌, 서북 지역(감숙·칭해)에서 생산되는 것을 서강西羌이라 부른다.

1. 강활의 기원과 유통

일본에서는 중국의 독활獨活과 유사한 식물인⁴⁾ 모당귀毛當歸⁵⁾가 장강활長羌活·권강활卷羌活 등의 이름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활과 유사한 식물인⁶⁾ 땅두릅⁷⁾이 화강활和羌活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는 ‘강활’을 독활의 별명 중 하나로 기재하였으며, 별개의 본초로서 강활과 독활의 이름이 구별되기는 당나라의 《약성본초藥性本草》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명나라의 이시진도 ‘독활 중 강족의 땅에서 생산된 것의 품질이 좋는데 이를 강활이라 한다獨活

- 1) 식물명을 일반적으로 ‘강활’이라고 하나, 여기에서는 약명과 식물명을 구별하기 위해 옛 이름인 ‘강호리’로 하였다. 과거에는 *Ostericum koreanum* (Maxim.) Kitag.이라는 학명을 부여하였으나, 이는 신감채(*Angelica grosseserrata* Maxim.)의 이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강호리의 올바른 학명은 *Ostericum praetertum* Kitag.이라는 학설과 *Angelica genuflexa* Nutt. ex Torr. & A.Gray라는 학설(이 경우 강호리와 왜천궁을 같은 종으로 봄)이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Angelica reflexa* B.Y.Lee라는 새 학명을 부여하였다.
- 2) 학명은 *Notopterygium incisum* K.C.Ting ex H.T.Chang이다.
- 3) 학명은 *Notopterygium franchetii* H.Boissieu(=*N. forbesii* H.Boissieu)이다.
- 4) 중국에서는 중치당귀[*Angelica biserrata* (R.H.Shan & C.Q.Yuan) C.Q.Yuan & R.H.Shan]의 뿌리를 독활로 사용한다.
- 5) 학명은 *Angelica pubescens* Maxim.이다.
- 6) 우리나라에서는 땅두릅(*Aralia continentalis* Kitag.)의 뿌리를 독활로 사용한다.
- 7) 학명은 *Aralia cordata* Thunb.이다.

강호리

以莖中來者良故有羌活’고 기록하여 혼란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분초학적 견지에서는 강활과 독활의 효능을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함이 마땅하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강호리는 재배 방식에 따라 북강활과 남강활로 구분된다. 북강활은 종근, 즉 노두蘆頭를 심어서 키우는데, 땅속줄기가 잘 발달하고 잔뿌리는 적으며, 유조직 세포 안에 전분립이 적어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남강활은 종자를 뿌려서 키우는데, 땅속줄기의 발달이 더디고 잔뿌리가 길고 많으며, 유조직 세포 안에 전분립이 많아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강활·남강활은 같은 계통의 식물로서, 남강활은 $2n=22$, 북강활은 $2n=110$ 의 염색체 수를 갖고 있어, 북강활은 오랜 재배를 통해 배수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강활은 땅속줄기의 마디 사이가 조밀하여 외형이 누에와 비슷한 모양을 이루는 잠강蠶羌과 마디 사이가 넓어 대나무 모양과 비슷한 죽절강竹節羌으로 구분된다. 또한 관엽강활은 뿌리는 가는 반면에 땅속줄기가 부풀어 올라 대두강大頭羌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가는 뿌리나 결뿌리는 조강條羌이라고 불린다.

2. 약효 차이

우리나라에서 강활로 사용되고 있는 강호리와 중국에서 강활로 쓰이는 중국강활속 2종에 대하여 동일 조건에서 효능 비교 실험이 이루어진 바는 현재까지 없다. 따라서 이들의 효능 차이를 확인하는 시도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공정서에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 등 중국에서 만들어진 처방에는 중국강활(또는 관엽강활)을, 사상처방의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 등이나 경험방 등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처방에는 강호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일부 문헌에서 강호리는 기미氣味가 신辛·미감微甘 온溫하며 보중健補中健脾 온폐지해溫肺止咳 하는 효능으로 비위허한설사脾胃虛寒泄瀉 허한해수虛寒咳嗽 등에 응용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강활의 효능과 상이하다. 따라서 향후 효능 실험을 통해 이러한 효능이 확인된다면 강호리와 중국강활류를 구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강호리에 대한 효능 평가는 북강활의 비만세포에서의 염증반응 억제효과 등 일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남강활과 북강활에 대한 비교 실험으로는 혈관 운동 및 국소 뇌허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결과는 두 종류에 뚜렷한 효능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면에서, 여러 강활류에 대한 전체적인 비교 실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강호리 잎차레



강호리 꽃차레

3. 약재 감별 기준점

가. 강호리(한국산)

외면은 황갈색~갈색이며 방추형의 원뿌리에서 결뿌리가 분지한다. 근두부에는 줄기의 흔적과 조밀한 고리 무늬가 있고, 잔뿌리에는 세로주름 군데군데에 수염뿌리의 흔적이 있다. 약재에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처음에는 달고 시원하며 뒤에는 조금 쓰다.

- 1) 북강활 : 땅속줄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잔뿌리는 적다. 절단면의 색이 짙고, 붉은색의 유점油點이 있다.
- 2) 남강활 : 땅속줄기가 짧고, 잔뿌리가 많다. 절단면의 색이 희거나 분홍색이며 유점이 보이지 않거나 작다.

나. 중국강활(중국산)

약간 구부러진 원주형~원추형으로, 때로는 땅속줄기가 분지되어 있으며 갈색~암갈색이다. 직절한 것은 방사상 무늬菊花心와 갈라진 틈새가 있다. 단면은 수선髓線과 갈색의 유점朱砂點이 뚜렷하다. 약재에 특이한 향내가 있고 맛은 처음에는 약간 시다가 뒤에는 약간 맵고 알알하다.

- 1) 중국강활
 - 가) 잠강 : 마디 사이가 짧아 누에 모양이며 융기된 혹 모양의 뿌리 흔적이 있다.
 - 나) 죽절강 : 마디 사이가 넓어 대나무 모양이며 가끔 융기된 혹 모양이 있다.
- 2) 관엽강활 : 긴 원주형 또는 원추형이고 바깥면은 암갈색이며, 절단면은 약간 평탄하며 방사상 무늬와 갈라진 틈새가 있다.
 - 가) 대두강 : 땅속줄기가 팽대되어 있으며, 위쪽 끝에 비교적 촘촘한 고리 무늬가 있다.
 - 나) 조강 : 뿌리는 비교적 가늘며, 원추형으로 세로로 주름 무늬와 피공皮孔이 있다.

4. 식물 검색표

1. 총포조각은 3~9개, 작은포 조각은 5~7개이다.	강호리
1. 총포조각은 3~6개, 작은포 조각은 6~10개이다.	
2. 꽃잎은 흰색이고, 작은잎은 난상 피침모양으로 깃털처럼 깊게 갈라진다.	중국강활
2. 꽃잎은 담황색이고, 작은잎은 타원상 달걀모양이며 갈라지지 않는다.	관엽강활



중국강활



중국강활 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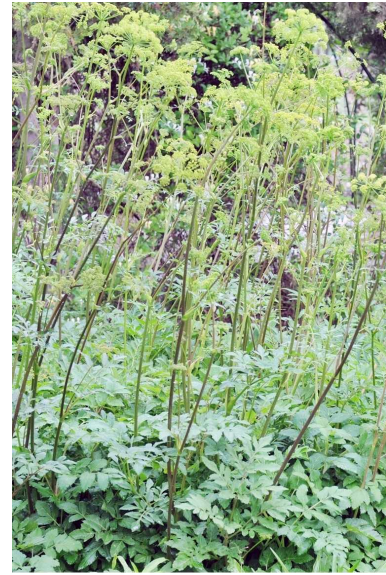


중국강활 꽃차례

5. 약재 검색표

가. 약재 검색표 A

1. 약용부위가 뿌리이며 분지하고, 바깥면은 황갈색이고 단면은 황백색으로 빈틈이 많다. 강호리
1. 약용부위가 뿌리 및 땅속줄기이며 분지하지 않는다.
 2. 땅속줄기의 마디 사이가 매우 짧고, 고리처럼 튀어나온 돌기가 많아 전체적으로 누에 모양을 이룬다. 중국강활
 2. 땅속줄기의 머리쪽이 비대되어 있고 위쪽에 비교적 치밀한 고리 무늬가 있다. 관엽강활



관엽강활

나. 약재 검색표 B

1. 약용부위가 뿌리이며 분지하고, 바깥면은 황갈색이고 단면은 황백색으로 빈틈이 많다. 강호리
1. 약용부위가 뿌리 및 땅속줄기이며 분지하지 않는다.
 2. 땅속줄기 부위가 팽대되지 않는다.
 3. 땅속줄기에 고리같은 마디가 많으며 전체적으로 누에 모양을 이룬다. 잠강(중국강활)
 3. 땅속줄기에 고리같은 마디가 적으며 마디 사이가 길어 대나무 모양을 이룬다. 죽절강(중국강활)
 2. 땅속줄기 부위가 팽대되며, 뿌리가 가늘다.
 4. 땅속줄기가 약간 팽대하며 위쪽에 촘촘한 고리 무늬가 있다. 조강(관엽강활)
 4. 땅속줄기가 매우 팽대하여 결절상을 이룬다. 대두강(관엽강활)



관엽강활 잎

다. 약재 검색표 C

1. 땅속줄기가 분지하지 않는다.
 2. 윗부분에 고리같은 마디가 밀집되어 부풀어 있으며 마디 사이가 짧다.
 3. 고리같은 마디가 융기되어 누에 모양을 이룬다. 잠강(중국강활)
 3. 고리같은 마디가 팽대되어 덩어리 모양을 이루며 뿌리는 가늘다.
 4. 고리같은 마디가 약간 팽대되어 있다. 조강(관엽강활)
 4. 고리같은 마디가 매우 크게 팽대되어 있다. 대두강(관엽강활)
 2. 고리같은 마디가 아랫부분의 마디 사이가 길어 대나무 모양이다. 죽절강(중국강활)
1. 땅속줄기가 분지한다.
 5. 땅속줄기가 발달되어 잔뿌리가 적고 절단면의 색이 짙고 붉은색의 유점油點이 있다. 북강활(강호리)
 5. 땅속줄기가 발달되지 않고 잔뿌리가 많으며 절단면의 색이 희고 유점이 적다. 남강활(강호리)



관엽강활 꽃차례



북강활(강호리) 약재



남강활(강호리) 약재



대두강(관엽강활) 약재



잠강(중국강활) 약재



죽절강(관엽강활) 약재

강황(薑黃) 울금(鬱金) 아출(莪朮)

강황

이 명 寶鼎香, 黃薑
생약명 Curcuma Longae Rhizoma
영문명 Curcuma Longa Rhizome, Turmeric Rhizome
기 원 [한·중] 생강과 식물인 터머릭¹⁾의 땅속줄기
약 성辛·苦, 溫. 脾·肝經.
효 능 破血行氣, 通經止痛.
주 치 胸脇刺痛, 胸痺心痛, 痛經經閉, 癥瘕, 風濕肩臂疼痛, 跌撲腫痛.

울금

이 명 馬薺, 五帝足, 黃鬱, 烏頭
생약명 Curcuma Radix
영문명 Curcuma Root
기 원 [한·중] 생강과 식물인 온울금溫鬱金²⁾, 터머릭, 광서아출廣西莪朮³⁾ 또는 봉아출蓬莪朮⁴⁾의 덩이뿌리
[일] 터머릭의 땅속줄기⁵⁾
약 성辛·苦, 寒. 肝·心·肺經.
효 능 活血止痛, 行氣解鬱, 清心涼血, 利膽退黃.
주 치 胸脇刺痛, 胸痺心痛, 經閉痛經, 乳房脹痛, 熱病神昏, 癲癇發狂, 血熱吐衄, 黃疸尿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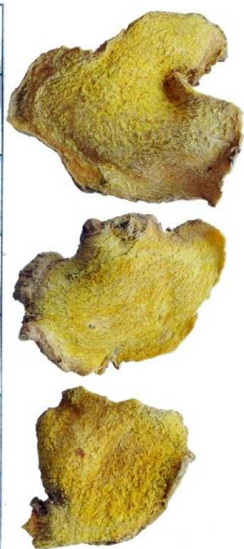
아출

이 명 蓬莪茂, 蓬藥, 蓬莪朮, 廣茂, 蓬朮, 青薑, 薑七, 廣朮, 黑心薑, 文朮
생약명 Curcuma Rhizoma
영문명 Zedoary, Zedoaria Rhizome
기 원 [한·중] 생강과 식물인 봉아출, 광서아출 또는 온울금의 땅속줄기
[일] 제도아리⁶⁾의 땅속줄기
약 성辛·苦, 溫. 肝·脾經.
효 능 行氣破血, 消積止痛.
주 치 癥瘕痞塊, 瘀血經閉, 胸痺心痛, 食積脹痛.

- 1) 학명은 *Curcuma longa* L.이며, 식물명을 일반적으로 ‘강황’이라고 하나, 여기에서는 약명과 식물명을 구별하기 위해 영문 이름인 ‘터머릭’(turmeric)으로 하였다.
- 2) 학명은 *Curcuma wenyujin* Y.H.Chen & C.Ling이다.
- 3) 학명은 *Curcuma kwangsiensis* S.G.Lee & C.F.Liang이다.
- 4) 학명은 *Curcuma phaeocalis* Valetton이다.
- 5) 즉,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강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일본에서는 ‘울금’으로 부르고 있다.
- 6) 학명은 *Curcuma zedoaria* (Christm.) Roscoe이며, 식물명을 일반적으로 ‘아출’이라고 하나, 여기에서는 약명과 식물명을 구별하기 위해 영문 이름인 ‘제도아리’(zedoary)라고 하였다.



터머릭



강황(터머릭) 약재

강황 울금 아출은 명칭, 기원식물 및 약용부위의 혼란으로 인해 혼용의 우려가 큰 품목이다. 기원품으로 지정된 *Curcuma*속 식물들은 주로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열대식물로서, 식용과 약용을 목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 종은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터머릭은 열대 아시아 전역과 중국 남부에서, 온울금은 중국의 광둥·광서·절강에서, 광서아출은 중국의 광둥·광서·사천·운남에서, 봉아출은 인도네시아·베트남 및 중국 남부에서, 제도아리는 인도·인도네시아 및 미국에서 산출된다.

모두 지하부(땅속줄기 또는 덩이뿌리)를 약용부위로 하며, 가을과 겨울에 줄기와 잎이 시들었을 때 채취하여 세정한 다음 삶거나 썰서 햇볕에 말려 사용한다.

1. 강황, 울금, 아출의 기원과 유통

약명	강황	울금	아출
약용부위	땅속줄기	덩이뿌리	땅속줄기
정품	터머릭	온울금(흑울금黑鬱金) 강황(황사울금黃絲鬱金) 광서아출(계울금桂鬱金) 봉아출(녹사울금綠絲鬱金)	봉아출 광서아출 온울금
보조품	온울금 춘울금 ¹⁾ 인니아출 ²⁾	춘울금(백사울금白絲鬱金) 제도아리(녹사울금綠絲鬱金) 천울금川鬱金 ³⁾	인니아출 제도아리

위의 도표와 같이 3종 한약재의 기원식물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지역에 따라 서로 부르는 명칭이 달라 더욱 혼동을 유발한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터머릭을 다량 재배하고 있으나, 땅속줄기를 ‘울금’이라는 제품명으로 시판하고 있어 공정서 규정에 배치되는 실정이다. 터머릭의 땅속줄기는 ‘강황’으로, 덩이뿌리는 ‘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바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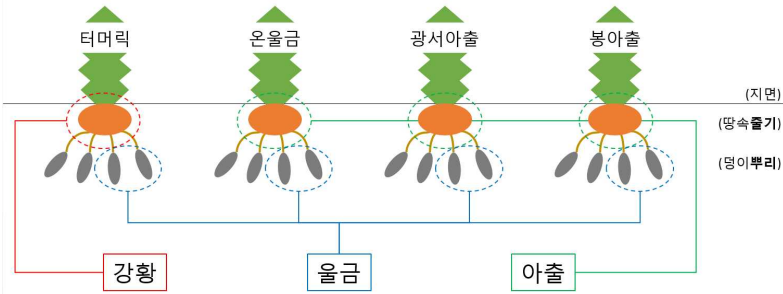
일부 견해로는 강황·울금·아출의 성분(주로 쿠르쿠민 종류)이 대동소이하므로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특정한 성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 많은 처방에서 분명히 그 용도를 각기 달리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개별 약재에 대한 구분이 필수적이다.

① 약용부위에서, *Curcuma*속 식물의 땅속줄기를 약용부위로 하는 한약

- 1) 학명은 *Curcuma aromatica* Salisb.이며, 식물명을 문헌에 따라 강황 또는 울금이라고 부르나,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부르는 별칭인 ‘춘울금春鬱金’이라고 하였다.
- 2) 학명은 *Curcuma zanthorrhiza* Roxb.이며, 식물명을 어떤 문헌에서는 누른강황이라고 부르나,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인 ‘인니아출印尼莪木’이라고 하였다.
- 3) 학명은 *Curcuma sichuanensis* X.X.Chen이다.

재는 강황과 아출이며, 덩이뿌리를 약용부위로 삼는 한약재는 울금이다.

- ② 이중 강황은 터머릭 1종의 땅속줄기이고, 아출은 봉아출, 광서아출, 온울금 3종의 땅속줄기이다.
- ③ 울금은 온울금(흑울금), 강황(황사울금), 광서아출(계울금), 봉아출(녹사울금) 등 4종의 덩이뿌리이다.



강황, 울금, 아출의 기원식물 및 약용부위 차이

*Curcuma*속 식물은 지하 부위에 땅속줄기와 덩이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땅속줄기(강황)이 발달하면 덩이뿌리(울금)이 부실하며, 덩이뿌리(울금)이 발달하면 땅속줄기(강황)이 부실하다. 예를 들어 중국 사천 지방의 경우, ① 승경崇慶 지역에서는 울금이 주산품이며 강황은 부산품인 반면, ② 의빈宜賓 지역에서는 토양이 점질이라서 울금은 불량하여 부산품 수준으로 생산된다. 이런 이유로 중국 현지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보면, 학명에 따라 정확히 구별하기보다는 산출되는 약용 부위에 따라 명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터머릭의 경우 땅속줄기는 당연히 강황으로 사용하지만, 덩이뿌리는 황사울금 또는 금황金黃¹⁾이라 부른다. 또한 봉아출의 경우에도 땅속줄기는 당연히 아출로 사용되지만, 황강黃薑 또는 편강片薑이라 하여 강황의 유사품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덩이뿌리는 녹사울금綠絲鬱金²⁾으로 부른다.

2. 약효 차이

한고전에서 보통 울금은 주입심主入心하고 강황은 주입비主入脾하며 아출은 주입간主入肝한다고 구분하고 있으며(鬱金入心專治血分之病 薑黃入脾兼治血中之氣藥 莪朮入肝治氣中之血滯),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된 처방을 근거로 하여 다시 유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urcuma*속에 속하는 강황·울금·아출 모두 각성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응용된다.

- 1) 절단면이 황색을 띠므로 이렇게 부름.
- 2) 절단면이 황색~녹색을 띠므로 이렇게 부름.



온울금



울금(온울금) 약재



봉아출



아출(봉아출) 약재

가. 흥복부 이상

- 1) 울금 : 성질은 양凉한 특성을 가지고, 신경이 무딘 것을 각성시키는 효능이 있다. 의식장애·신지불청神志不清에 응용되는 창포울금탕菖蒲鬱金湯 등이 이에 해당된다.
- 2) 강황 : 성질은 온溫한 특성을 가지고, 신경이 과민한 것을 무디게 하는 효능이 있다. 풍습風濕으로 인한 견비통肩臂痛에 응용되는 서경탕舒經湯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 흥복부 이하

- 1) 아출(봉출蓬朮) : 성질은 온溫한 특성을 가지고, 이기력理氣力 > 이혈력理血力의 작용을 나타내며, 흥복부의 기체氣滯에 응용된다.
- 2) 아출과 상수相須 관계로 배합되는 대표적인 한약재인 삼릉三稜은 이혈력理血力 > 이기력理氣力의 작용을 나타내며, 흥복부의 혈체血滯에 응용된다.

약명	강황	울금	아출
성미	辛苦, 溫	辛苦, 寒	辛苦, 溫
귀경	脾·肝經	肝·心·肺經	肝·脾經
효능	破血行氣, 通經止痛	活血止痛, 行氣解鬱, 清心涼血, 利膽退黃	行氣破血, 消積止痛
주치	胸脇刺痛, 胸痹心痛, 痛經經閉, 癥瘕, 風濕肩臂疼痛, 跌撲腫痛	胸脇刺痛, 胸痹心痛, 經閉痛經, 乳房脹痛, 熱病神昏, 癲癇發狂, 血熱吐衄, 黃疸尿赤	癥瘕痞塊, 瘀血經閉, 胸痹心痛, 食積脹痛
구분	血中之藥	血分之藥	氣中之血藥

3. 약재 감별 기준점

가. 식물 형태 구분점

- 잎의 보라색 띠 여부 : 보라색 띠가 있으면 봉아출이다.
- 꽃이 나오는 부위 : 잎집에서 나오면 터머릭, 땅속줄기에서 나오면 온울금·봉아출이다.
- 꽃의 색깔 : 백색 또는 담황색이면 터머릭·온울금, 분홍색이면 봉아출이다.

나. 약재 형태 구분점

- 외형에 고리 모양과 수염뿌리의 흔적이 있으면 강황·아출, 없으면 울금이다.
- 단면의 색깔이 선명한 황색이면 강황, 자갈색이면 아출, 회갈색이면 울금이다.

4. 식물 검색표

1. 잎에 보라색의 띠가 없으며 잎의 양면에 털이 없다.
2. 잎자루가 길고, 꽃이 잎집에서 나오며 담황색이다. 티머릭
2. 잎자루 길이가 잎 길이의 1/2 이하이고, 꽃이 땅속줄기에서 나오며 백색이다. 온울금
1. 잎에 보라색의 띠가 뚜렷하며, 꽃은 땅속줄기에서 나오고 분홍색이다.
..... 봉아출

5. 약재 검색표

1. 약용부위가 땅속줄기이며, 고리 모양이 뚜렷하고 수염뿌리의 흔적이 있다.
2. 방추형 또는 달걀모양으로 짙은 황색이며 단면은 선명한 황색이다.
..... 강황
2. 긴 방추형으로 회갈색이며 단면은 자갈색이다. 아출
1. 약용부위는 덩이뿌리이고, 긴 방추형으로 회갈색이다. 울금

곽향(藿香) 광곽향(廣藿香)



배초향

곽향

이 명 土藿香, 排草香, 排香草, 猫把, 青莖薄荷, 大葉薄荷, 綠荷荷, 川藿香, 蘇藿香, 野藿香, 猫尾巴香, 猫巴虎, 拉拉香, 八蒿, 魚香, 鷄蘇, 水麻葉

생약명 Agastachis Herba

영문명 Agastache Herb

기 원 [한·중] 꿀풀과 식물인 배초향¹⁾의 지상부

약 성 辛, 微溫. 肺·脾·胃經.

효 능 祛暑解表, 化濕和胃.

주 치 夏令感冒, 寒熱頭痛, 胸脘痞悶, 嘔吐泄瀉, 妊娠嘔吐, 鼻淵, 手·足癱.

광곽향

이 명 藿香, 海藿香

생약명 Pogostemonis Herba

영문명 Pogostemon Herb, Cablin Patchouli Herb

기 원 [한·중·일] 꿀풀과 식물인 파출리²⁾의 지상부

약 성 辛, 微溫. 脾·胃·肺經.

효 능 芳香化濁, 和中止嘔, 發表解暑.

주 치 濕濁中阻, 脘痞嘔吐, 暑濕表證, 濕溫初起, 發熱倦怠, 胸悶不舒, 寒濕閉暑, 腹痛吐瀉, 鼻淵頭痛.

곽향은 대표적인 방향화습약芳香化濕藥으로서 많은 한방처방에서 응용되고 있는 한약재이다. 잎의 모양이 콩잎藿과 비슷하고 향기쫓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약용부위는 지상부 전체이다. 아울러 식품으로서 활용도 매우 높아, 배초향은 ‘방아잎’이라는 이름으로 향신료처럼 사용되며, 중국에서도 잉어 요리에 반드시 사용되는 식재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약재시장에서는 국산 곽향인 배초향이 토곽향土藿香이라는 이름으로, 수입산 곽향은 광곽향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약효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산지를 보면 배초향은 한·중·일·러시아 및 북미 지역에 분포하고, 파출리는 중국 남부지방과 동남아시아에 분포한다. 모두 가지와 잎이 무성할 때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1) 학명은 *Agastache rugosa* (Fisch. & C.A.Mey.) Kuntz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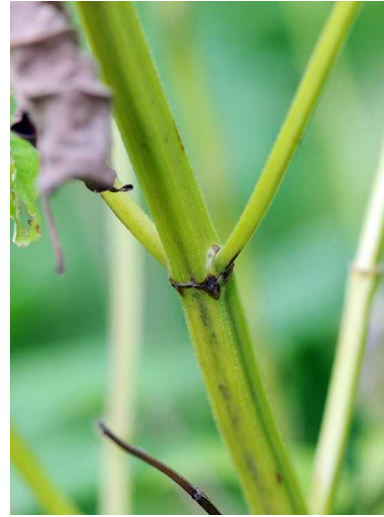
2) 학명은 *Pogostemon cablin* (Blanco) Benth.이며, 식물명을 일반적으로 ‘광곽향’이라고 하나, 여기에서는 약명과 식물명을 구별하기 위해 영문명인 ‘파출리’(p atchouli)로 하였다.

1. 곱향의 기원과 유통

곱향은 두 종류로서, 배초향은 한국·북한·대만 공정서에 ‘곱향’이라는 약명으로 수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토곱향’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 다른 종류인 파출리는 한·중·일·대만 공정서에 ‘광곱향’이라는 약명으로 수재되어 있다¹⁾.

《본초강목》에 따르면 곱향은 줄기에 마디가 있다고 하였고, 《증류본초》에서는 곱향을 초부草部가 아닌 목부木部에 배속시킨 점 등에 근거하면, 곱향의 정품은 파출리를 가리킨다. 그러나 근대의 《식물명실도고 植物名實圖考》 등에서는 배초향을 가리켜 곱향이라고 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아마도 아열대·열대 식물인 파출리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전역에서 산출되는 배초향이 어느 시점부터 곱향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곱향의 주산지는 인도네시아이다.

한약재로서의 곱향과 광곱향은 모두 줄기가 푸르고 잎이 많이 붙어 있으며 향기가 짙은 것이 좋다.



배초향 줄기

2. 약효 차이

곱향과 광곱향 두 종류는 기미와 귀경이 동일하고, 약효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주된 적응증에 차이점이 있다.

문헌상의 약효를 보면 곱향은 신온해표辛溫解表에 중점을 두는 반면, 광곱향은 방향화습芳香化濕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처방인 곱향정기산藿香正氣散은 상한음증傷寒陰症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곱향반하탕藿香半夏湯은 한습내조寒濕內阻로 인한 완비구토脘痞嘔吐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곱향은 신온해표와 방향화습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지닌 약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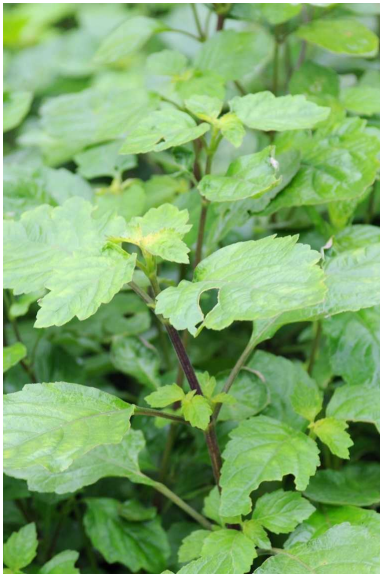
이런 면에서, 어떤 곱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주성분인 휘발성 정유성분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배초향과 파출리는 특유의 향기를 내는 정유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배초향은 주로 estragole을, 파출리는 주로 patchoulol을 함유). 방향화습의 약성을 필요로 한다면, 가능한 한 정유성분의 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즉, 유통거리가 짧고 생산시기가 가까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생산되는 곱향(배초향)을 사용하는 것이 약성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산지가 가까운 광곱향(파출리)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약성을 보인다. 실제 한국과 중국에서 각기 연구된 비교실험에서도 한국에서는 곱향이, 중국에서는 광곱향이 더 좋은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배초향 꽃차례

1) 단, 일본약전에서는 대표약명이 곱향, 이명이 광곱향으로 되어 있음.



파출리

3. 약재 감별 기준점

지상부 전체를 약용한다는 점에서, 식물 상태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약재 상태의 차이점과 동일하게 정리된다.

- ① 배초향(곽향)은 줄기 단면이 사각형이며 털이 없고, 잎은 달걀모양으로 가지 잎과 비슷하며 털이 없다. 잎 밑은 원저(圓底) 또는 아심장저(亞心臟底)이다. 꽃은 자주색이고 열매는 난상삼릉형(卵狀三稜形)이며 끝부분에 짧은 센털이 있다.
- ② 파출리(광곽향)는 줄기 단면에 각이 적어 둥근 편이며 황색의 융털로 덮여 있고, 잎은 넓은 달걀모양이며 양면에 모두 털이 있다. 잎 밑은 쉼기모양 또는 약간 심장모양이다. 꽃은 옅은 홍자색이고 열매는 타원형으로 매끄럽다.

즉 약재 상태에서의 두 종류의 감별은, 줄기가 사각인가(곽향) 둥근가(광곽향), 줄기와 잎에 털이 없는가(곽향) 있는가(광곽향)로 구분이 가능하다.



파출리 줄기

4. 식물 검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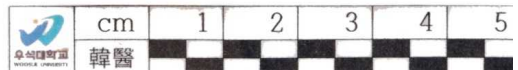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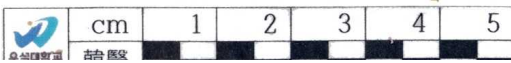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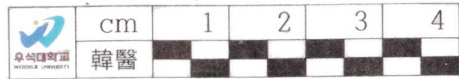
- 1. 줄기가 네모져 있으며 털이 없고, 잎은 달걀모양이며 털이 없고, 열매는 난상삼릉형(卵狀三稜形)이다. 배초향
- 1. 줄기에 각이 적으며 털이 있고, 잎은 넓은 달걀모양이며 털로 덮여있고, 열매는 타원형으로 매끄럽다. 파출리

5. 약재 검색표

- 1. 줄기가 사각기둥 모양으로 각이 있으며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 작은 융털이 있다. 곽향
- 1. 줄기가 대체로 둥근 편이고 털이 있고, 잎은 양면에 회백색의 융털이 있다. 광곽향



파출리 꽃차례



곽향(배초향) 약재



광곽향(파출리) 약재

당귀(當歸)



참당귀



참당귀 줄기와 잎

이 명 乾歸, 馬尾當歸, 秦歸, 馬尾歸, 雲歸, 西當歸, 岷當歸

생약명 *Angelicae Gigantis Radix*, *Angelicae Sinensis Radix*, *Angelicae Radix*

영문명 *Angelica Gigas Root*, *Chinese Angelica Root*, *Japanese Angelica Root*

기 원 [한] 미나리과 식물인 참당귀¹⁾의 뿌리.

[중] 미나리과 식물인 중국당귀²⁾의 뿌리.

[일] 미나리과 식물인 왜당귀³⁾와 홋카이당귀⁴⁾의 뿌리.

약 성 甘·辛, 溫. 肝·心·脾經.

효 능 補血活血, 調經止痛, 潤腸通便.

주 치 血虛萎黃, 眩暈心悸, 月經不調, 經閉痛經, 虛寒腹痛, 風濕痹痛, 跌撲損傷, 癰疽瘡瘍, 腸燥便秘.

당귀는 대표적인 보혈약補血藥으로서 혈허血虛와 혈체血滯를 불문하고 일체의 혈증을 다스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한약재이나(當歸調血 一切血症 不論血虛血滯 皆爲常用之品 尤爲婦科之要藥), 그 기원품이 다양하여 각각의 효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품목이다. 당귀는 일반적으로 재배한지 2년차 되는 가을철에 채취하여 수염뿌리 및 흙모래를 제거하고 말려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살짝 말린 당귀를 다발로 가지런히 묶어서 훈연하여 말리며, 일본에서는 뜨거운 물에 데친 뒤 말린다.

1. 당귀의 기원과 유통

사용량이 매우 많은 대표적인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당귀는 국가별로 기원식물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참당귀(토당귀)를, 중국과 대만은 중국당귀를, 일본은 왜당귀(일당귀)를 각각 당귀의 기원종으로 하고 있어, 3개 종으로 구분된다.

산출 지역을 보면, 참당귀는 한국·일본 및 중국의 동북 지방(요녕·길림·흑룡강)에, 중국당귀는 중국의 감숙·호북·섬서·사천·운남 지역에, 왜당귀는 일본·한국 및 중국 길림 지역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참당귀와 왜당귀가 다량 재배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3종 모두 생산되고 있다.

1) 학명은 *Angelica gigas* Nakai이다.

2) 학명은 *Angelica sinensis* (Oliv.) Diels이다.

3) 학명은 *Angelica acutiloba* (Siebold & Zucc.) Kitag.이다.

4) 왜당귀의 변종으로서 학명은 *Angelica acutiloba* var. *sugiyamae* Hikino이다.

2. 약효 차이

약명	토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성미	辛·苦, 溫	甘·微辛, 溫	甘·辛, 溫
귀경	肝·心經	肝·心·脾經	肝·心·脾經
효능	祛風通絡, 活血止痛	補血活血, 調經止痛, 潤燥滑腸	補血活血, 調經止痛, 潤燥滑腸
주치	風濕痺痛, 跌打腫痛	血虛諸證, 月經不調, 經閉, 痛經, 癥瘕結聚, 腸燥便難, 癰疽瘡瘍, 跌打損傷	血虛諸證, 月經不調, 經閉, 痛經, 癥瘕結聚, 腸燥便難, 癰疽瘡瘍, 跌打損傷
구분	活血祛瘀藥 - 活血止痛藥	補益藥 - 補血藥	補益藥 - 補血藥

기미 및 효능에 근거하여, 보혈補血에는 중국당귀나 일당귀를 쓰고, 활혈거어活血祛瘀에는 토당귀를 써야 한다. 보혈력補血力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당귀 > 일당귀 > 토당귀 순이고, 활혈거어력活血祛瘀力을 기준으로 보면 토당귀 > 일당귀 > 중국당귀 순이다. 성분적으로도 조혈造血 작용이 있는 비타민 B₁₂가 중국당귀와 일당귀에 함유되어 있는 반면, 토당귀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토당귀에는 우수한 해열·진통 작용을 보이는 정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토당귀는 보혈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활혈거어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는 먼저 거어혈祛瘀血한 뒤에 생신혈生新血하는 치법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타박打撲 등 외인성 어혈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당귀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며, 현재 시대적 관심사인 어혈 질환(예: 협심증 등)에 대해서도 토당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혈의 목적으로는 토당귀보다는 중국당귀나 일당귀가 적합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국당귀는 국내에 의약품용으로 유통되지 않으므로, 보혈 목적으로 당귀를 사용할 경우 부득이 일당귀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당귀는 부위에 따라 다른 약효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약하자면 원뿌리 위쪽은 보혈하고[歸頭補血] 원뿌리 몸통은 양혈하며[歸身養血] 잔뿌리는 파혈하고[歸尾破血] 전체를 한꺼번에 쓰면 활혈한다[全用活血]. 실제 임상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사용하고 있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가. 토당귀(참당귀)

- 절단 전의 표피는 흑갈색이며, 절단면은 백색이고 형성층에 의하여 목부木部和 피부皮部の 구별이 되지만 뚜렷하지 않으며, 형성층 부근은 암황색이나 나머지는 미색이다.
- 특유의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달지만 뒤에 맵고 쓰다.



중국당귀 줄기



중국당귀 잎



중국당귀 열매



왜당귀 재배지



왜당귀 잎



왜당귀 꽃차례

나. 중국당귀

- 절단 전의 표피는 황갈색~갈색이며, 절단면은 황백색 또는 연한 황갈색이고 목부와 피부의 구별이 확실하며, ‘국화심菊花心’이라 불리는 방사상 무늬가 있다. 찢어진 틈새 및 여러 개의 갈색 점 모양의 분비강(유실油室, 유관油管)이 있고 목부는 색깔이 비교적 연하며 작은 갈색의 분비강이 보이고 형성층은 황갈색으로 고리 모양이다.
- 진한 향기가 있으며, 맛은 달고 매우며 약간 쓰다.

다. 일당귀(왜당귀)

- 절단 전의 표피는 암갈색~적갈색이고 절단면은 연한 황백색이며 목부와 피부의 구별이 확실한데, 피부는 회백색이고 목부는 황백색 혹은 황갈색이다.
- 특유의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달지만 뒤에 맵고 쓰다.

4. 식물 검색표

1. 잎이 2~3회 홀수깃모양겹잎이고, 꽃이 백색이다.	
2. 소총포 조각은 1~몇 개이거나 총포가 없으며, 꽃차례의 꽃대는 30~40개이다.	왜당귀
2. 소총포 조각은 2~4개이며 꽃차례의 꽃대는 10~14개이다.	중국당귀
1. 잎이 1~3회 깃모양겹잎이고 꽃이 적색이다.	참당귀

5. 약재 검색표

가. 약재 검색표 A

1. 단면에 기름기가 많으며 황백색 혹은 연한 황갈색이고, 향기가 강하다.	중국당귀
1. 단면에 기름기가 적으며 담황색~백색이다.	
2. 맛이 쓰고 맵다.	토당귀(참당귀)
2. 맛이 약간 달고 맵다.	일당귀(왜당귀)

나. 약재 검색표 B

1.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띠며, 절단면에는 점모양의 유실油室·형성층 고리·사선射線이 명확히 보인다.	중국당귀
1.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며, 절단면의 유실이 명확하지 않다.	
2. 목부木部와 피부皮部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며, 형성층 부근은 암황색이고 나머지 부분은 미색이다.	토당귀(참당귀)
2. 목부와 피부의 구분이 보다 뚜렷한 편이며, 목부는 황백색이고 피부는 회백색이다.	일당귀(왜당귀)



토당귀 (참당귀) 약재



중국당귀 약재



일당귀 (왜 당귀) 약재

대청엽(大靑葉) 판람근(板藍根) 청대(靑黛)

대청엽

이 명 藍葉, 藍菜, 染靑草, 靑靑葉, 藍靑葉
 생약명 Isatidis Folium, Polygoni Tinctorii Folium
 기 원 [한] 십자화과 식물인 대청¹⁾ 또는 마디풀과 식물인 쪽²⁾의 잎.
 [중] 대청의 잎³⁾.
 약 성 苦, 寒. 心·胃經.
 효 능 靑熱解毒, 涼血消斑.
 주 치 溫病高熱, 神昏, 發斑發疹, 疔腮, 喉痹, 丹毒, 癰腫.



대청

판람근

이 명 靑靑根, 藍靑根
 생약명 Isatidis Radix
 영문명 Indigowoad Root
 기 원 [한·중] 대청의 뿌리⁴⁾.
 약 성 苦, 寒. 心·胃經.
 효 능 靑熱解毒, 涼血利咽.
 주 치 溫疫時毒, 發熱咽痛, 溫毒發斑, 疔腮, 爛喉丹痧, 大頭瘟疫, 丹毒, 癰腫.

청대

이 명 靑花, 靑蛤粉, 靑缸花, 靑靑花, 藍路, 靑花, 靑末花
 생약명 Indigo Pulverata Levis, Indigo Naturalis
 영문명 Natural Indigo
 기 원 [한] 쪽 또는 마람⁴⁾의 잎을 발효시켜 얻은 가루.
 [중] 마람, 쪽 또는 대청의 잎이나 줄기와 잎을 가공하여 분말, 덩어리 또는 과립으로 만든 것.
 약 성 鹹, 寒. 肝經.
 효 능 靑熱解毒, 涼血消斑, 瀉火定驚.
 주 치 溫毒發斑, 血熱吐衄, 胸痛咳血, 口瘡, 疔腮, 喉痹, 小兒驚癇.



쪽

- 1) 학명은 *Isatis tinctoria* L.(=*I. indigotica* Fortune ex Lindl.)이며, 중국에서는 승람 靑藍이라고 부른다.
- 2) 학명은 *Persicaria tinctoria* (Aiton) H.Gross(=*Polygonum tinctorium* Aiton)이며, 중국에서는 요람靑藍이라고 부른다.
- 3) 중국약전에서는 쪽의 잎을 요대청엽 靑大靑葉이라는 별개의 품목으로 수재하고 있다.
- 4) 중국약전에서는 남판람근 南板藍根을 별도로 수재하고 있다. 남판람근은 쥐꼬리 땅초과 식물인 마람馬藍[*Strobilanthes cusia* (Nees) Kuntze =*Baphicacanthus cusia* (Nees) Bremek.]의 땅속줄기 및 뿌리이다. 대청 뿌리는 흔히 북판람근이라고 부른다.



마람



대청엽 약재

한창 사스SARS가 중국에서 유행할 때, 모 대학 본초학 교수님이 채집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던 일이 있었다. 당시 주위에서 중국 채집을 만류했지만 채집을 강행하여 지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귀국한 뒤 첫 마디가 ‘중국은 역시 중국답더라’는 이야기였다. 모든 중국 언론매체에서 사스 예방부터 치료에 대한 홍보가 나오는데, 반드시 뒷부분에 한약재를 이용한 내용이 등장하더라는 것이다. 그때 대표적으로 활용된 한약재가 바로 판람근이었다. 한약재로서는 청열해독약清熱解毒藥에 속하는 대청 종류의 한약재는 공정서에 약용부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 수재되어 있다. 잎인 대청엽, 뿌리 부위인 판람근, 그리고 이를 발효가 공한 청대이다. 특히 이중 청대는 대청류 식물의 잎이나 줄기 부분을 가공하여 건조분말이나 덩어리로 만든 것으로, 천연염료(쪽)로서 오랫동안 각광을 받아왔으며 한약재로서도 관심받았던 종류에 속한다. 소위 ‘청출어람靑出於藍’이란 말도 여기에서 연유된 것으로 쪽 가공품인 청대의 푸르름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활용도가 높은 대청 종류는 국가·지역·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원식물을 가지고 있어 혼란이 있어 왔으며, 이물질의 혼입 등이 최근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약재로서의 대청엽은 모양새가 완전하고 색깔이 어두운 회록색인 것이 좋다. 청대는 색상이 일정한 남색이고, 물위에 뜰 정도로 가볍고 부드러우며, 태우면 자홍색의 연기를 내면서 오래 타는 것이 양품良品이다. 무겁고 딱딱하며 흰색 점이 있고, 한 덩이를 물속에 넣으면 과립상으로 가라앉는 것은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한편 판람근의 경우, 유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판람근은 길고 굵으며 속이 희고 분질粉質인 것이어야 하고, 남판람근은 길고 굵으며 지상부가 짧은 것이 좋다.

잎을 주로 사용하는 대청엽과 잎의 가공품인 청대는 여름과 가을에 두세 차례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며, 판람근은 가을~겨울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대청류의 종별 분포지를 보면, 쪽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며, 대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중앙아시아·서남아시아·유럽 등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마람은 중국 남부 지방과 동남아시아에 분포한다.

1. 대청류의 기원과 유통

대청엽은 한·중·대만·북한의 공정서에서 모두 십자화과 식물인 대청의 잎을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마디풀과 식물인 쪽의 잎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쪽의 잎은 ‘요대청엽蓼大靑葉’이라는 별개의 약명으로 수록하고 있다.

판람근은 한·중·대만 공정서에서 모두 대청의 뿌리를 기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그 약명을 ‘북판람근’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

만에서는 ‘남판람근’이라는 별도 품목을 수재하고 있다. 남판람근은 쥐꼬리망초과 식물인 마람의 뿌리 및 땅속줄기이다.

청대는 국가별로 기원식물의 범위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디풀과 식물인 쪽과 쥐꼬리망초과 식물인 마람만을 기원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에서는 여기에 십자화과 식물인 대청을, 북한에서는 여기에 다시 콩과 식물인 목람木藍¹⁾을 각기 추가하고 있다. 청대는 색소물질인 인디고(C₁₆H₁₀N₂O₂)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기원종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헌에 따라서는 이상의 기원종 모두를 묶어서 약용부위에 따라 잇은 대청엽, 뿌리는 판람근, 가공품은 청대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그밖에 문헌에 등장하는 다른 대청류 식물로는 꿀풀과 식물인 노변청路邊靑²⁾, 쥐꼬리망초과 식물인 원포마람圓苞馬藍³⁾, 콩과 식물인 야청수野靑樹⁴⁾ 등이 있다.

2. 약효 차이

대청엽, 판람근, 청대는 모두 청열해독약靑熱解毒藥에 속하며, 각기 부분적인 효능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대청엽과 판람근은 청대의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청엽은 특히 소반消斑 목적으로 응용되었으며(예: 온열병溫熱病의 열독熱毒이 혈분血分에 들어가 나타나는 발반發斑에 사용되었던 서각대청湯犀角大靑湯 등), 판람근은 특히 이인利咽 목적으로 응용되었다(예: 두온독頭溫毒으로 두면頭面이 홍종紅腫하고 인후咽喉가 불리不利할 때에 사용되었던 보제소독음普濟消毒飲 등).

3. 식물 검색표

- | |
|---|
| 1. 초본이다. |
| 2. 총상꽃차례이며 꽃잎은 황색이고, 줄기와 열매에 털이 없으며, 잎은 긴 타원형이고 잎귀는 화살촉 모양이다. 대청 |
| 2. 이삭꽃차례이며 꽃잎은 홍색이고, 줄기에 명확한 마디가 있으며, 잎은 달걀 모양이다.. 쪽 |
| 1. 줄기 하단은 목질화되며, 잎은 마주난다. 마람 |

1) 학명은 *Indigofera tinctoria* L.이다.
 2) 학명은 *Clerodendrum cyrtophyllum* Turcz.이다.
 3) 학명은 *Strobilanthes penstemonoides* (Nees) T.Anderson이다.
 4) 학명은 *Indigofera suffruticosa* Mill.이다.



판람근 약재



청대 약재

4. 약재별 구분

가. 대청엽

- 건조되어 쭈그러진 잎을 물에 넣어 펼치면, 긴 타원형~원형의 거꿀 퍼침모양을 띤다. 잎은 밑으로 갈수록 좁아져 잎자루는 날개모양이 되고 잎맥은 뚜렷하다.
- 요대청엽(쪽)은 잎 모양이 타원형이므로 쉽게 구분된다.

나. 판랍근

- 전형약재에서는 근두부根頭部가 팽대하고 흑 모양의 돌기가 있으며, 단면에는 국화심 모양의 형성층 고리가 뚜렷하다.

다. 청대

- 햇빛 띤 남색 또는 진한 남색의 매우 부드럽고 가벼운 가루로 손이나 종이에 잘 묻어나며 물에 녹지 않는다.
- 물에 풀었을 때 수면에 뜨는 가루가 많은 것이 좋다.

대황(大黃)

이 명 將軍, 黃良, 火參, 膚如, 蜀大黃, 錦紋大黃, 牛舌大黃, 錦紋, 生軍, 川軍

생약명 Rhei Radix et Rhizoma

영문명 Rhubarb

기 원 [한·중] 마디풀과 식물인 장엽대황掌葉大黃¹⁾, 탕구트대황唐古特大黃²⁾ 또는 약용대황藥用大黃³⁾의 뿌리 및 땅속줄기

[일] 장엽대황, 탕구트대황, 약용대황, 장군풀⁴⁾ 또는 이들의 잡종의 땅속줄기

약 성 苦, 寒. 脾·胃·大腸·肝·心包經.

효 능 瀉下攻積, 清熱瀉火, 涼血解毒, 逐瘀通經, 利濕退黃.

주 치 實熱積滯便秘, 血熱吐衄, 目赤咽腫, 癰腫疔瘡, 腸癰腹痛, 瘀血經閉, 產後瘀阻, 跌打損傷, 濕熱痢疾, 黃疸尿赤, 淋證, 水腫.

한방치료의 하법下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서 공격攻積, 사화瀉火, 축어逐瘀의 요약要藥인 대황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 유사한 근연식물이 많아 정품·위품의 논란이 지속되어왔던 한약재이기도 하다. 한의학적 효능 분류에서 대황은 사하약瀉下藥에 속하며, 약용부위는 3년 이상된 땅속줄기 및 뿌리로서, 늦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에 지상부가 시들고 새싹이 돋기 전에 채취한다.



장엽대황

1. 대황류의 기원과 유통

한·중·대만의 공정서에서는 장엽대황, 탕구트대황 및 약용대황 등 3종을 기원식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약전에서는 여기에 장군풀 및 중간 교잡종을 추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장군풀 1종만을 정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종대황種大黃이라는 별개의 품목을 수재하고 있는데, 이는 식용대황⁵⁾의 땅속줄기이다. 그밖에도 대황속(Rheum)에 속하는 많은 종들이 지역에 따라 대황의 대용품 또는 위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한·중 약제시장에서 대황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금문계錦紋系 대황인데, 땅속줄기 단면에 독특한 무늬(금문錦紋)가 있어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며, 장엽대황·탕구트대황 및 약용대황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토대황계土大黃系 대황으로 불



장엽대황 약재

1) 학명은 *Rheum palmatum* L.이다.

2) 학명은 *Rheum tanguticum* Maxim. ex Balf.이다.

3) 학명은 *Rheum officinale* Baill.이다.

4) 학명은 *Rheum coreanum* Nakai이다.

5) 학명은 *Rheum rhabarbarum* L.(=*R. undulatum* L.)이며, 식물명을 일반적으로 대황 또는 종대황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약명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부르는 이름인 '식용대황'으로 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를 파엽대황波葉大黃이라고 한다.



탕구트대황



탕구트대황 약재

리는 종대황(식용대황)이다.

금문계 대황 중에서 장엽대황과 탕구트대황은 중국 청해·감숙 지역이 주산지이므로 흔히 서북대황 또는 북대황·서대황이라 불리며, 약용대황은 호북·사천 지역이 주산지이므로 남대황이라 불린다. 약용대황은 외형적 특징에서 유래한 아황雅黃 또는 마제대황馬蹄大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장엽대황과 탕구트대황은 비슷한 지역에 분포하며, 재배지에서는 이미 교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종간 구별에 큰 의미가 없다. 금문계 대황은 중국에서만 생산되고 있으나, 종대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2. 약효 차이

공하약攻下藥으로서의 대황은 금문계 대황(장엽대황·탕구트대황·약용대황)이 적합하다. 금문계 대황 중에서도 사하 작용은 탕구트대황 > 장엽대황 > 약용대황 순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엽대황과 탕구트대황은 산지에서 교잡이 일어난 상황이므로 유의미한 효능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용대황은 다소 사하력이 떨어진다고 사료된다.

종대황의 경우, 효능군으로 나누면 공하약이라기보다는 청열약清熱藥에 해당하므로, 대황의 약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하력 또한 금문계 대황에 비해 매우 약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종대황은 청열사화조습清熱瀉火燥濕의 효능에 비중을 두고, 보조적으로 미약한 사하력을 갖춘 약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토대황의 일종으로 지역에 따라 혼입되고 있는 소리쟁이속(*Rumex*) 식물의 뿌리(양제근羊蹄根¹⁾, 산모酸模²⁾) 역시 약간의 사하력을 지니고는 있으나, 대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가. 장엽대황

- 겉껍질을 제거한 것은 외면이 황갈색이고 그물모양의 무늬(금문錦紋)를 볼 수 있다. 단면은 황갈색이고 희미한 방사상의 갈색 반점(성점星點)이 있다.
- 땅속줄기의 상단에 가까운 쪽은 단면에 두 줄의 성점이 뚜렷하게 고리를 이루며, 그 안쪽으로는 성점이 한줄의 고리를 이루거나 흩어져 있다.
- 질감은 단단하며 뿌리의 횡단면에는 성점이 없다.

1) 참소리쟁이(*Rumex japonicus* Houtt.) 또는 망과산모(*Rumex chalepensis* Mill.)의 뿌리.
2) 수영(*Rumex acetosa* L.)의 뿌리.

나. 탕구트대황

- 외형은 장엽대황과 유사하다.
- 땅속줄기의 상단에 가까운 쪽은 단면에 성점이 1~2줄의 고리를 이루며, 그 안쪽에는 한 줄의 성점이 있고 점차 흩어진다.
- 질감은 장엽대황에 비해 단단하지 않으며, 단면의 색깔도 연하고 금문 역시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다. 약용대황

- 말발굽(마제馬蹄) 모양에 가깝다.
- 땅속줄기의 횡단면에는 성점이 불룩하게 돌출되어 있고, 고리 모양을 이루거나 흩어져 있다. 성점은 장엽대황·탕구트대황에 비해 크고 배열이 불규칙한 편이다.
- 단면은 황갈색이고 빈 틈이 많으며 질감은 성글고 섬유성을 띤다.

라. 종대황

- 약간 불쾌한 특유의 냄새가 있으며 맛은 툇고 쓰다. 약재를 씹으면 모래를 씹는 느낌이 나고 침을 노랗게 물들인다.
- 금문과 성점이 없으며 금문계 대황에 비해 무겁고 단단하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 금문계 대황은 땅속줄기 단면에 성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뿌리 단면에는 방사상의 무늬와 형성층 고리가 뚜렷하다.
- 금문계 대황은 크고 가볍고 황갈색이며, 형광시험에서 갈색 반응을 보이는 반면, 종대황은 작고 단단하고 무거우며 적갈색이고, 형광시험에서 남자색 반응을 나타낸다.
- 금문계 대황은 외면이 황갈색이고 단면에는 금문과 성점이 뚜렷하며, 질감이 단단하고 특이한 냄새가 있으며, 맛은 쓰고 약간 툇으며, 씹으면 치아에 달라붙는 것이 좋다.
- 특히 잘게 절편된 약재는 금문계인지 토대황계인지 식별이 어려우므로, 가급적이면 원형을 유지하거나 큼직하게 절편된 약재를 쓰는 것이 좋다.
- 색깔이 연한 갈색이고 질감이 가벼우며 맛이 툇은 것은 하품下品이며, 특히 주증酒蒸하지 않았는데도 색깔이 검은색을 띠는 것은 건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약용대황



약용대황 약재



식용대황

4. 식물 검색표

- | | |
|---|-------|
| 1. 꽃은 자홍색이며, 잎의 주맥은 3~7가닥이다. | |
| 2.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3~7갈래로 중열中裂한다. | 장엽대황 |
| 2.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3~7갈래로 심열深裂하고 다시 깃모양으로 얇게 갈라진다. | 탕구트대황 |
| 1. 꽃은 황백색이다. | |
| 3.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천열淺裂하며, 주맥은 5가닥이다. | 약용대황 |
| 3. 잎은 천열하고 잎가장자리가 물결모양으로 말리며, 주맥은 5~7가닥이다. | 식용대황 |

5. 약재 검색표

- | | |
|--|-------------|
| 1. 금문錦紋과 성점星點이 있으며, 형광시험(365um)에서 갈색 반응을 나타낸다. | |
| 2. 방사상의 성점이 1~2환, 그 아래에 1환이 있다. | |
| 3. 질감이 단단하며, 금문이 더욱 뚜렷하다. | 금문대황(장엽대황) |
| 3. 질감이 단단하지 않으며, 금문이 뚜렷하다. | 금문대황(탕구트대황) |
| 2. 방사상의 성점이 2~3환, 그 아래에 2환, 혹은 뿌리 가까이에 1환 혹은 산재散在한다. 질감은 치밀하지 않고, 성점이 크고 돌출되어 있다. | 금문대황(약용대황) |
| 1. 금문과 성점이 없으며, 형광시험(365um)에서 남자색 반응을 나타낸다. 외형은 원주형 또는 원통형으로, 맛이 쓰고 떫다. | 종대황(식용대황) |



종대황(식용대황) 약재

도인(桃仁) 행인(杏仁)

도인

이 명 桃核仁
생약명 Persicae Semen
영문명 Peach Kernel
기 원 [한·중·일] 장미과 식물인 복사나무¹⁾ 또는 산복사나무²⁾의 잘 익은 씨.
약 성 苦·甘, 平. 心·肝·大腸經.
효 능 活血祛瘀, 潤腸通便, 止咳平喘.
주 치 經閉痛經, 癥瘕痞塊, 肺癰腸癰, 跌撲損傷, 腸燥便秘, 咳嗽氣喘.

행인

이 명 杏核仁, 杏子, 木落子, 苦杏仁, 杏梅仁
생약명 Armeniacae Semen, Armeniacae Amarum Semen
영문명 Apricot Kernel, Bitter Apricot Seed
기 원 [한·중] 장미과 식물인 살구나무³⁾, 개살구나무⁴⁾, 시베리아살구⁵⁾ 또는 아르메니아살구⁶⁾의 잘 익은 씨.
[일] 아르메니아살구, 살구나무 또는 시베리아살구의 씨.
약 성 苦, 微溫, 有小毒. 肺·大腸經.
효 능 降氣止咳平喘, 潤腸通便.
주 치 咳嗽氣喘, 胸滿痰多, 腸燥便秘.

도인과 행인은 대표적인 종자류 약재로서, 그 기원식물의 열매인 복숭아와 살구 또한 중요한 과일이기 때문에 매우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다. 복숭아의 씨를 도인이라 하여 활혈거어약活血祛瘀藥으로 이용하며, 살구의 씨를 행인이라 하여 화담지해평천약化痰止咳平喘藥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이들은 분류학적으로 모두 벚나무속(*Prunus*)에 속하며 외형이 유사하여, 유통 과정에서 서로 혼입되기 쉽다.

도인·행인은 열매가 잘 익은 뒤 과육과 핵각核殼만 제거한 유포留皮 약재와, 씨껍질도 제거한 거피去皮 약재 두 가지로 유통되고 있다. 특히 도인에서 씨껍질을 제거할 때에는 끓는물에 데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전통적인 수치법 중 천법燻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복사나무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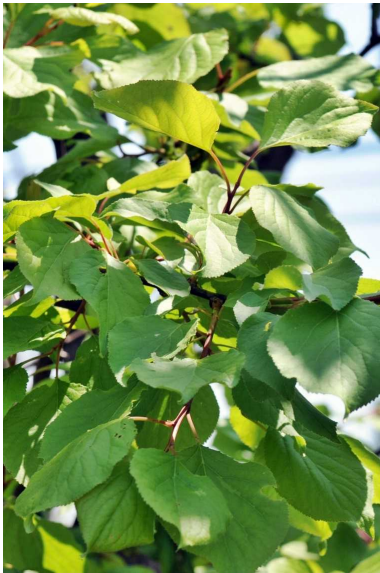


복사나무 잎



복사나무 꽃

- 1) 학명은 *Prunus persica* (L.) Batsch이다.
- 2) 학명은 *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이다.
- 3) 학명은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이다.
- 4) 학명은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이다.
- 5) 학명은 *Prunus sibirica* L.이다.
- 6) 학명은 *Prunus armeniaca* L.이다.



살구나무



살구나무 꽃



살구나무 열매

1. 도인·행인의 기원과 유통

도인은 한·중·일·대만의 공정서에서 모두 ‘복사나무 또는 산복사나무의 잘 익은 씨’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복사나무만을 정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인은 한·중·대만의 공정서에서는 살구나무·개살구나무·시베리아살구·아르메니아살구 등 4종을 기원식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 중 아르메니아살구·살구나무·시베리아살구 등 3종만을, 북한은 아르메니아살구·살구나무·개살구나무 등 3종만을 정품으로 하고 있다.

한약재로서 도인은 홍갈색으로 씨알이 크고 고르며 통통하고, 거피했을 때는 색깔이 흰색인 것이 상품上品이고, 행인은 씨알이 크고 완전하며 쓴맛이 나는 것이 좋다.

2. 약효 차이

도인은 활혈거어약으로서 화어소종약化痰消腫藥에 속하며, 행인은 화담약으로서 지해평천약止咳平喘藥에 속한다. 두 약재는 종자류 약물이 공통적으로 갖는 효능인 윤장통변潤腸通便 작용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용도에 쓰이므로 명확히 구별해 사용해야 한다.

행인의 경우, 여러 문헌에서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특히 쌍첨雙尖)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도인은 타원형으로 납작하며, 합접點에서부터 위쪽으로 갈라져나가는 관다발 무늬 중 가늘게 갈라진 분지가 적고, 행인은 심장모양 또는 치우친 심장모양으로 통통하며, 관다발 무늬 중 가늘게 갈라진 분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도인 중에서 복사나무와 산복사나무는 크기와 두께로 구별할 수 있으며, 행인의 각 종별 차이는 맛과 외형(대칭성·크기) 등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으로는 현미경을 이용한 내부형태 관찰이나 성분 패턴 분석이 필요하다.

4. 식물 검색표

- | | |
|---|-------|
| 1. 잎이 피침모양 또는 달걀꼴 피침모양이다. (복숭아) | |
| 2. 꽃이 1~2개씩 달리며 꽃받침조각에 털이 많고, 핵과核果는 공모양으로 크며 융털이 밀생한다. | 복사나무 |
| 2. 꽃이 1개씩 달리며 꽃받침조각에 털이 없고, 핵과는 공모양에 가깝고 작으며 구멍무늬와 짧은 도랑 무늬가 있다. | 산복사나무 |

1. 잎이 달걀모양이다. (살구)
3. 나무껍질은 코르크질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열매는 달다.
 4. 꽃은 단생單生하며 열매가 크다. 아르메니아살구
 4. 꽃은 2개가 족생簇生하고 열매가 작다. 살구나무
3. 나무껍질은 코르크질이 발달했으며, 열매는 뚝은맛이 강하다.
 5. 잔가지는 밤색이며, 꽃잎은 원형이다. 개살구나무
 5. 잔가지는 회색이며, 꽃잎은 달걀꼴 타원형이다. 시베리아살구



도인(복사나무) 약재

5. 약재 검색표

가. 약재 검색표 A

1. 길이 1.1~1.5cm, 너비 0.9~1.3cm로, 통통한 심장모양 또는 치우친 심장모양이며, 함점습點에서 위쪽으로 갈라지는 관다발 무늬에는 가늘게 갈라진 분지가 많다. 행인
1. 길이 1.2~2.0cm, 너비 0.9~1.5cm로, 납작한 타원형 또는 치우친 타원형이며, 관다발 무늬에는 가늘게 갈라진 분지가 적다. 도인

나. 약재 검색표 B

1. 한쪽으로 치우친 길쭉한 달걀모양 또는 치우친 타원형으로, 비교적 크고(길이 1.2~2.0cm) 불룩하며 얇다. 복사나무
1. 원형에 가까우며 비교적 작고(길이 0.9~1.5cm) 통통하며 두껍다.
 2. 달걀꼴 원형으로 두께 5mm 정도이다. 산복사나무
 2. 치우친 심장모양으로 두께가 5~8mm이다.
 3. 씨가 크고 맛이 달며, 비교적 크고 좌우가 약간 대칭이다. 아르메니아살구
 3. 씨가 작고 맛이 쓰다.
 4. 비대칭 정도가 심하며 납작한 원추형으로 크고(길이 1.0~1.2cm) 납작하다. 시베리아살구
 4. 비대칭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끝부분은 대칭에 가깝다.
 5. 원추형에 가까우며 작다(길이 0.8~1.1cm). 개살구나무
 5. 납작한 심장모양으로 크다(길이 1~1.9cm). 살구나무



도인(산복사나무) 약재



도인: 복사나무, 산복사나무



행인: 살구, 개살구, 시베리아살구, 아르메니아살구



행인 약재

독활(獨活)



땃두릅



땃두릅 잎차례



땃두릅 열매

이 명 胡王使者, 獨搖草, 獨滑, 長生草, 川獨活, 巴東獨活, 九眼獨活, 土當歸

생약명 *Araliae Continentalis Radix*, *Angelicae Pubescentis Radix*

영문명 *Aralia Continentalis Root*, *Pubescent Angelica Root*

기 원 [한] 두릅나무과 식물인 땃두릅¹⁾의 뿌리.

[중] 미나리과 식물인 중치당귀重齒當歸²⁾의 뿌리.

[일] 두릅나무과 식물인 땅두릅³⁾의 뿌리줄기.

약 성辛·苦, 微溫. 腎·膀胱經.

효 능祛風除濕, 通痹止痛.

주 치風寒濕痹, 腰膝疼痛, 少陰伏風頭痛, 風寒挾濕頭痛.

獨활은 대표적인 거풍습약祛風濕藥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민간에서도 봄철에 돋은 어린 순을 산나물로 식용해왔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몇 가지 기원식물이 혼용되고 있어 감별을 요한다. 독활의 약용부위는 뿌리이며, 지상부가 시들었을 때 채취하여 말려서 사용한다.

1. 독활류의 기원과 유통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독활은 지역별로 기원식물을 달리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에서는 두릅나무과 식물인 땃두릅을,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종인 땅두릅을 기원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대만에서는 미나리과 식물인 중치당귀를 정품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우리나라 약전의 독활을 ‘한국독활’, 중국 약전의 독활을 ‘중국독활’로 나누어 부르기로 한다.

한국독활을 중국에서는 구안독활九眼獨活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본초강목》에서 “독활은 아주 큰 강활로서 귀안鬼眼 모양의 우묵한 자국이 있다”는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땅속줄기에 있는 줄기 흔적의 모양을 묘사한 것이다. 한편 중국에는 우미독활牛尾獨活이라는 종류도 있는데, 이는 미나리과 식물인 어수리⁴⁾의 뿌리를 가리키는 것이며 중국 사천 등지에서 독활의 대용품으로 이용한다.

참고로 봄철에 산나물로 애용되는 두릅나무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모두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땃두릅의 순은 ‘땅두릅나물’로, 두릅

1) 학명은 *Aralia continentalis* Kitag.이며, 식물명을 일반적으로 독활이라고 하나, 약명과의 혼동을 피하고자 여기서는 옛 이름인 ‘땃두릅’으로 하였다.

2) 학명은 *Angelica biserrata* (R.H.Shan & C.Q.Yuan) C.Q.Yuan & R.H.Shan이며, 식물명을 중치모당귀重齒毛當歸라고 부르기도 한다.

3) 학명은 *Aralia cordata* Thunb.이다.

4) 학명은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이다.

나무¹⁾의 순은 ‘참두릅나물’로, 음나무²⁾의 순은 ‘개두릅나물’로 불린다.

한약재로서의 독활은, 뿌리가 크고 기름기가 많으며 향기가 진한 것이 좋다.

2. 약효 차이

문헌상으로는 한국독활과 중국독활의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종에 대한 효능 비교실험이 보고된 바는 없다. 효능 차이가 입증될 때까지는 현행 공정서에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다.

다만, 독활기생탕獨活寄生湯 등 중국에서 만들어진 처방에는 중국독활을, 사상처방의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이나 기타 경험방 등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처방에는 한국독활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가. 한국독활(땃두릅)

1) 전형 약재

땅속줄기는 크고 길이 10~15cm 지름 3~5cm이며, 겉에 비교적 큰 원형의 움푹한 자국이 있다. 약용부위(뿌리)는 긴 원주형 또는 막대 모양이며 길이 10~30cm, 지름 0.5~2cm이다. 바깥 면은 회백색~회갈색이며 세로주름과 잔뿌리 자국이 있다.

2) 절단 약재

겉껍질은 회백색으로 밝은 편이고, 단면은 섬유성으로 찢어진 틈이 있고, 갈색의 유점油點이 있으며 형성층은 고리 모양이고, 옅은 황색의 수髓가 있으며, 질은 가볍고 영성하다. 특이한 방향이 있고 맛은 처음에는 텁텁하고 약간 쓰다.

나. 중국독활(중치당귀)

1) 전형 약재

땅속줄기가 짧다. 약용부위(뿌리)는 원주형으로 아랫부분은 2~3갈래 이상 갈라졌고, 길이 10~30cm이다. 근두부根頭部는 부풀어 오른 원주상으로 가로주름이 특히 윗부분에 많으며 지름 1.5~4cm이고, 위쪽 끝에는 줄기와 잎의 흔적이 남아 있거나 오목하게 패여 있다. 표면은 회갈색 또는 자갈색으로 세로주름이 있고 움기된 피공皮孔과 가는뿌리의 흔적이 있다. 질감은 비교적 단단하나 습기가 닿으면 부드러워진다.

1) 학명은 *Aralia elata* (Miq.) Seem.이다.

2) 학명은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이며, ‘엄나무’라고도 한다.



중치당귀



중치당귀 잎차례



중치당귀 열매



한국독활(맛두릅) 땅속줄기 부분



한국독활(맛두릅) 전형 약재



한국독활(맛두릅) 절단면



중국독활(중치당귀) 전형 약재



중국독활(중치당귀) 절단면

2) 절단 약재

겉껍질은 회갈색 또는 자갈색이고, 단면에는 갈색 고리가 1줄 있고, 피부部는 회백색으로 갈색의 유실油室이 흩어져 있으며, 목부는 회황색 또는 황갈색이고, 형성층 고리는 갈색이다. 중심이 비어있기도 하다. 특이한 방향이 있고 맛은 쓰고 매우며 혀를 약간 마비시킨다.

4. 식물 검색표

- | | |
|---|------|
| 1. 잎몸은 둥근 달걀모양으로 3출엽이며, 작은잎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꽃차례는 겹우산모양꽃차례이며 꽃잎은 백색이다. | 중치당귀 |
| 1. 잎몸은 달걀모양이고, 작은잎은 5~9개씩 있으며, 꽃차례는 원뿔모양꽃차례이고, 꽃잎은 연녹색이다. | 맛두릅 |

5. 약재 검색표

가. 전형 약재 검색표

- | | |
|---|------------|
| 1. 땅속줄기가 짧고, 뿌리는 원주형이며 바깥면은 회갈색 또는 자갈색이다. | 중국독활(중치당귀) |
| 1. 땅속줄기가 크고 길며, 뿌리는 원주형이나 막대모양이며 바깥면은 회백색이다. | 한국독활(맛두릅) |

나. 절단 약재 검색표

- | | |
|---|------------|
| 1. 겉껍질은 회갈색 또는 자갈색이고, 맛은 쓰고 매우며 약간 혀를 마비시킨다. | 중국독활(중치당귀) |
| 1. 겉껍질은 회백색으로 밝은 편이고, 맛은 처음에는 텅텅하고 약간 쓰다. | 한국독활(맛두릅) |

동규자(冬葵子) 경마자(苘麻子)

동규자

이 명 葵子, 葵菜子
생약명 [한] Malvae Semen
[중] Malvae Fructus
영문명 Cluster Mallow Seed
기 원 [한] 아욱과 식물인 아욱¹⁾의 씨.
[중] 아욱과 식물인 아욱의 잘 익은 열매²⁾
약 성 甘·澀, 涼.
효 능 淸熱利尿, 消腫.
주 치 尿滲, 水腫, 口渴, 尿路感染.

경마자

이 명 苘實, 苧麻子, 空麻子, 野苧麻子, 冬葵子, 青麻子, 野棉花子, 白麻子
생약명 Abutili Semen
기 원 [중] 아욱과 식물인 어저귀³⁾의 잘 익은 씨.
약 성 苦, 平. 大腸·小腸·膀胱經.
효 능 淸熱解毒, 利濕, 退翳.
주 치 赤白痢疾, 淋證澀痛, 癰腫瘡毒, 目生翳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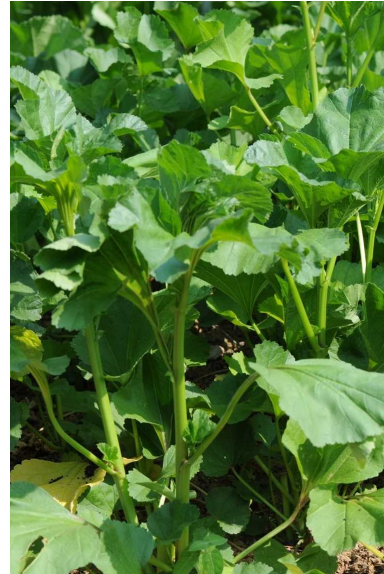
동규자는 아욱의 종자로서, 이수삼습약利水滲濕藥 중 이뇨통림약利尿通淋藥에 속하는 약물이며 《신농본초경》 상품上品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아욱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로서, 잎(아욱국 등)과 종자(동규자)를 각각 식품과 한약재로 활용하고 있다.

동규자는 크기가 작고 외견상 쉽게 구분되지 않는 유사성으로 인해,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다른 식물인 어저귀의 종자, 즉 경마자苧麻子가 혼입되는 일이 있다. 이에 확대경 수준에서의 감별법을 제시한다.

1. 동규자의 기원과 유통

동규자는 아욱과에 속한 한해살이풀인 아욱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이며, 중국에서는 종자가 아닌 열매를 ‘동규과’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 한편 경마자는 역시 아욱과에 속한 어저귀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정서에는 경마자가 수제되어 있지 않지만, 동규자의 위품·혼입품으로 경마자가 유통되는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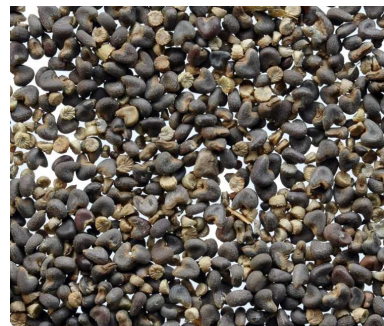
1) 학명은 *Malva verticillata* L.이다.
2) 중국과 대만에서는 이를 ‘동규과冬葵果’라는 이름으로 수제하고 있다.
3) 학명은 *Abutilon theophrasti* Medik.이다.



아욱



아욱 꽃



동규자 약재



동규과 약재



어저귀



동규자(상)와 경마자(하) 비교

2. 약효 차이

약명	동규자	경마자
성미	寒, 甘, 無毒	寒, 苦, 無毒
귀경	大腸·小腸·膀胱	
효능	利水通淋, 下乳, 潤腸通便	清熱利濕, 解毒消腫, 退翳明目
주치	淋病水腫·腫痛, 痢疾, 五隆, 乳汁不行·乳房腫痛	赤白痢疾, 淋病, 癰腫, 眼翳, 癩癧, 乳腺炎
구분	利水滲濕藥 - 利尿通淋藥	清熱藥 - 清熱燥濕藥

- 동규자는 이수삼습약 중 이뇨통림약에 속하고, 경마자는 청열약 중 청열조습약에 속하므로 당연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약재이다.
- 더구나 민간에서는 동규자의 사용처가 유옹乳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마자의 혼입은 출산 후에 허증虛症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 1) 크기의 차이 : 경마자가 동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 2) 뒷면 돌기의 길이 차이 : 동규자는 돌기의 길이가 비슷한 반면, 경마자는 한쪽이 길고 뾰족하다.
- 3) 표면의 움모 유무 : 동규자는 표면이 매끈한 반면, 경마자는 백색의 움모가 있다.

4. 식물 검색표

- | | |
|---|----------|
| 1. 앞이 둥근 신장형으로 손바닥처럼 5~7갈래로 얇게 갈라지고, 꽃은 담홍색이다. | 아욱(동규자) |
| 1. 앞이 둥근 심장형으로 장상맥이 (3)5(7)갈래이며, 꽃은 황색이다. | 어저귀(경마자) |

5. 약재 검색표

- | | |
|---|-----|
| 1. 길이 1.5~2mm의 신장형으로 비교적 작으며, 표면은 황갈색~흑갈색이다. | 동규자 |
| 1. 길이 3.5~6mm의 세모꼴로 치우친 신장형으로 비교적 크며(동규자의 2~3배), 한쪽면은 비교적 뾰족하고, 표면은 암갈색이며 백색의 움모가 드물게 보인다. | 경마자 |

목통(木通)

이 명 通草, 附支, 丁翁, 丁父, 菴藤, 王翁, 萬年, 燕覆, 烏覆, 活血藤

생약명 Akebiae Caulis

영문명 Akebia Stem

기 원 [한] 으름덩굴과 식물인 으름덩굴¹⁾의 줄기.

[중] 으름덩굴, 삼엽목통²⁾三葉木通²⁾ 또는 백목통³⁾白木通³⁾의 덩굴줄기.

[일] 으름덩굴 또는 삼엽목통의 덩굴줄기.

약 성 苦, 寒. 心·小腸·膀胱經.

효 능 利尿通淋, 清心除煩, 通經下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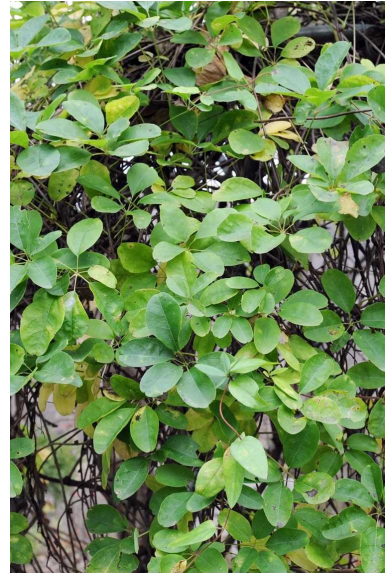
주 치 淋證, 水腫, 心煩尿赤, 口舌生瘡, 經閉乳少, 濕熱痹痛.

목통은 이수삼습약利水滲濕藥 중 이뇨통림약利尿通淋藥에 속하는 약물로써 임상에서 매우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그런데 한약재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혼란이 많았던 품목이며, 현재까지도 통초通草와 혼동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신농본초경》을 비롯해 《명의별록》, 《신수본초》 등의 많은 고문헌에서 ‘통초’라는 약명 아래 목통의 형태 묘사와 효능을 기재하고 있으며, 명나라 시대에 목통과 통초가 명확히 구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초강목》에서는 여전히 목통·통초의 내용이 혼동되어 있다. 지금의 통초⁴⁾는 《본초습유》 등에는 ‘통탈목通脫木’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고방古方에서 ‘통초’라고 기재된 약재는 지금의 목통임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목통과 유사한 이름을 갖는 약재로 관목통關木通이 있는데, 이는 아리스톨로크산 성분의 급성 신장염 유발 등 신장 독성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등축⁵⁾(취방울덩굴과)이므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이 관목통을 통초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1. 목통류의 기원과 유통

한·중·일·대만·북한의 공정서에서 모두 으름덩굴과 식물인 으름덩굴의 줄기를 목통의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일·대만은 으름덩굴의 근



으름덩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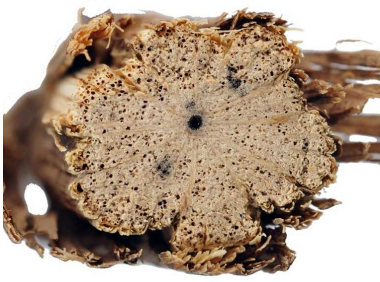


목통(으름덩굴) 약재

1) 학명은 *Akebia quinata* (Houtt.) Decne.이다.
 2) 학명은 *Akebia trifoliata* (Thunb.) Koidz.이다.
 3) 삼엽목통의 아종으로서 학명은 *Akebia trifoliata* subsp. *australis* (Diels) T.Shimizu이다.
 4) 두릅나무과 식물인 통탈목[*Tetrapanax papyrifer* (Hook.) K.Koch]의 경수莖髓이다.
 5) 학명은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이다.



소목통



천목통(소목통) 약재

연종인 삼엽목통이나 백목통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으름덩굴의 열매는 예지자預知子라는 별개의 약재로 사용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천목통川木通이라는 유사 품목을 약전에 수재하고 있는데, 이는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소목통小木通¹⁾ 또는 수구등綉球藤²⁾의 덩굴줄기이다. 여기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통과 혼동하기 쉬운 통초와 관목통까지 더하면 으름덩굴과, 미나리아재비과, 두릅나무과, 쥐방울덩굴과 등 4개 과에 걸쳐 있어 문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각 종별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으름덩굴은 한·중·일에, 삼엽목통은 중·일에, 백목통은 중국에 분포하며, 소목통은 중국과 미얀마에, 수구등은 중국과 히말라야에, 통탈목은 중국과 제주도에, 등침은 한·중에 분포한다.

2. 약효 차이

약명	목통	천목통	목통근 ³⁾	관목통
성미	寒, 苦, 無毒	寒, 淡·苦	苦, 平	苦, 寒, 有毒
귀경	心·小腸·膀胱	心·小腸·膀胱	膀胱·肝	心·小腸·膀胱
효능	瀉火行水, 通利血脈	清熱利尿, 通經下乳	祛風利尿, 行氣活血	瀉熱降火, 通淋, 下乳通經
주치	小便赤澀, 淋濁水腫, 胸中煩熱, 喉痺咽痛, 遍身拘痛, 婦女經閉, 乳汁不通	濕熱癰閉, 水腫, 淋證, 心火上炎, 口舌生瘡, 濕熱痺痛, 關節不利, 婦人經閉, 乳汁不通	風濕關節痛, 小便不利, 胃腸氣脹, 疝氣, 經閉, 跌打損傷	小便赤澀, 熱淋, 水腫, 心中煩熱, 口舌生瘡, 白帶, 經閉, 產後乳汁不通, 濕熱痺痛
구분	利水滲濕藥	利水滲濕藥	祛風濕藥	利水滲濕藥

- 목통의 정품은 으름덩굴속(*Akebia*)에 속하는 3종(으름덩굴, 삼엽목통, 백목통)을 기원으로 하여야 한다.
- 오랫동안 목통과 혼동된 통초(통탈목)는 청열이뇨清熱利尿, 통기하유통氣下乳의 효능을 나타내며, 이 중 통유通乳시키는 효능이 목통과 비슷하나 통리通利하되 음액陰液을 손상시키지 않으므로 산부에 통용되었던 한약재이기도 하다.
- 천목통(소목통, 수구등)은 목통과 유사한 효능을 지니므로 공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한국 임상가에서 사용되었던 목통근은 거풍습약祛風濕藥에 속하므로 목통·통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목통은 약성이 목통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독성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이 금지된다.

1) 학명은 *Clematis armandii* Franch.이다.

2) 학명은 *Clematis montana* Buch.-Ham. ex DC.이다.

3) 으름덩굴의 뿌리이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가. 목통(으름덩굴)

- 전형 약재 : 가지가 갈라지며, 갈라지는 마디는 부풀어오르고, 피목皮目이 뚜렷하다.
- 절단 약재 : 원형 또는 타원형의 절편으로, 단면은 섬유성으로 백색, 회황색의 방사상 무늬가 있다.

나. 천목통(소목통)

- 목통과 유사하나 약간 섬세하고 작아 보인다.
- 단면에 황백색의 방사상 무늬와 찢긴 틈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수부髓部는 비교적 작고 간끔 빈공간이 있다.

다. [독성 위품] 관목통(등취)

- 전형 약재 : 표면이 회황색이고 긴 원주형으로 꼬여 있다.
- 절단면은 황색이고 목부가 매우 넓은데, 전체적으로 고리 모양과 방사상 무늬가 치밀하다.

라. 통초(통탈목)

- 별도 품목 '통초' 참조

4. 식물 검색표

1. 목질의 덩굴식물이다.
2. 잎이 3~5개의 손모양겹잎이다.
 3. 잎은 5개의 손모양겹잎이며 거꿀달걀모양이고, 잎가장자리는 전연全緣이며, 수꽃은 작고 암꽃은 크다. 으름덩굴
 3. 잎이 3출겹잎이다.
 4. 잎은 달걀꼴 피침모양으로 잎가장자리는 전연이다. 소목통
 4. 잎은 달걀모양으로 잎가장자리가 3갈래로 갈라진다. 수구등
2. 잎이 홑잎으로 등글며 잎밑은 심장모양이고, 꽃은 중앙부가 구부러져 U자 모양을 나타낸다. 등취
1. 낙엽관목으로 잎은 5~7갈래로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지며, 줄기 단면은 대부분이 백색의 수髓로 충만하고, 꽃차례는 크기가 큰 원뿔모양꽃차례이다. 통탈목



등취



관목통(등취) 약재

5. 약재 검색표



통초(통탈목) 약재(거피 전)

- | | |
|--|-----------------|
| 1. 약용부위가 덩굴줄기 또는 뿌리이다. | |
| 2. 약용부위가 덩굴줄기이며, 단면은 목부의 방사상 배열이 뚜렷하다. | |
| 3. 절단면이 백색이다. | |
| 4. 절단면에 회황색의 방사상 무늬가 있으며 틈새는 없다. | 목통(으름덩굴) |
| 4. 절단면에 황백색의 방사상 무늬와 찢긴 틈새가 있다. | 천목통(소목통) |
| 3. 절단면이 황갈색이고 고리 모양 및 방사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 관목통(등첩) |
| 2. 약용부위가 뿌리이며, 절단면은 갈색이고 단면이 치밀하며 목부의 방사상 배열이 뚜렷하다. | 목통근(으름덩굴) |
| 1. 약용부위가 경수莖髓로서, 절단면의 가운데가 비어있거나, 일정 간격으로 반투명의 얇은 막이 있다. | 통초(통탈목) |

목향(木香) 토목향(土木香) 천목향(川木香)

목향

이 명 雲木香, 唐木香, 密香, 青木香, 五香, 五木香, 南木香, 廣木香
 생약명 Aucklandiae Radix, Saussureae Radix
 영문명 Costus Root, Saussurea Root
 기 원 [한·중·일] 국화과 식물인 운목향(雲木香¹⁾)의 뿌리.
 약 성 辛·苦, 溫. 脾·胃·大腸·三焦·膽經.
 효 능 行氣止痛, 健脾消食.
 주 치 胸脇·腕腹脹痛, 瀉痢後重, 食積不消, 不思飲食.

토목향

이 명 青木香, 祁木香, 藏木香
 생약명 Inulae Heleni Radix
 기 원 [한·중] 국화과 식물인 토목향²⁾의 뿌리.
 약 성 辛·苦, 溫. 肝·脾經.
 효 능 健脾和胃, 行氣止痛, 安胎.
 주 치 胸脇·腕腹脹痛, 嘔吐瀉痢, 胸脇挫傷, 岔氣作痛, 胎動不安.

천목향

이 명 木香
 생약명 Vladimiriæ Radix
 영문명 Common Vladimiriæ Root
 기 원 [중] 국화과 식물인 사천목향(四川木香³⁾) 또는 회모천목향(灰毛川木香⁴⁾)의 뿌리.
 약 성 辛·苦, 溫. 脾·胃·大腸·膽經.
 효 능 行氣止痛.
 주 치 胸脇·腕腹脹痛, 腸鳴腹瀉, 裏急後重.

‘목향’이라는 이름을 갖는 한약재에는 목향(운목향雲木香 또는 당목향唐木香), 천목향, 토목향, 청목향靑木香 등 4종이 있으며, 모두 이기약理氣藥에 속한다. 모두 약용부위가 뿌리이므로 가을철에 채취하여 말려서

- 1) 학명은 *Aucklandia costus* Falc.(=*A. lappa* Decne.)이다.
- 2) 학명은 *Inula helenium* L.이며, 식물명은 흔히 목향이라고 부르나, 여기에서는 다른 목향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토목향’으로 적는다.
- 3) 학명은 *Dolomiaea souliei* (Franch.) C.Shih[=*Vladimiriæ souliei* (Franch.) Ling]이며, 식물명은 원래 천목향(川木香)이나, 여기에서는 약명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천목향’으로 적는다.
- 4) 사천목향의 변종으로서 학명은 *Dolomiaea souliei* var. *mirabilis* (J.Anthony) C.S hih[=*Vladimiriæ souliei* var. *cinerea* Ling]이다.



운목향



목향(운목향) 약재



토목향



토목향 약재

사용한다. 그런데 약명이 비슷하여 서로 혼동되는 일이 많으며, 특히 청목향의 경우 관목통과 마찬가지로 독성 문제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

1. 목향류의 기원과 유통

목향(운목향, 당목향唐木香)은 한·중·일·대만에서 공정서에 수재하고 있는데, 모두 운목향 1종만을 기원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목향은 한·중·북한의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는데, 역시 기원종은 토목향 1종으로 동일하다. 천목향은 중국과 대만에서만 신고 있으며, 기원종은 사천목향과 회모천목향의 2종이다. 한편 독성 문제가 있는 청목향은 한·중·일 모두 공정서에서 배척하였으나, 북한에서만 ‘방울풀뿌리(토청목향)’이라는 이름으로 약전에 신고 있다. 청목향은 쥐방울덩굴과에 속한 식물인 쥐방울덩굴¹⁾의 뿌리로서, 여타 동속 식물과 마찬가지로 신장독성 물질인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하고 있어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재이다. 그런데 사실 청목향은 목향의 이명으로, 토목향은 청목향의 이명으로, 목향은 토목향의 이명으로 일부 문헌에 등장하는 등, 명칭으로 인한 혼란이 적지 않다.

목향류의 산출 지역을 보면, 운목향은 인도 북부 원산으로 중국 남부에서 재배되며, 토목향은 중국 신강 지역을 비롯해 아시아·유럽·북미에 널리 분포하고, 사천목향은 중국 사천·서장 지역에서 생산되며, 쥐방울덩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중부·동북부와 일본·러시아 등에 분포한다.

목향류는 모두 뿌리 약재로서, 크고 질감이 단단하며 향기가 강한 것을 상품上品으로 하며, 특히 운목향은 유성油性이 많은 것이 좋다.

2. 약효 차이

일단 청목향은 효능 여하에 관계없이 신장독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쥐방울덩굴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식물이므로, 혹여나 민간에서 목향으로 오인하여 복용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목향(운목향)은 주로 상초~중초 부위를 따라 행기行氣하므로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 등에 응용함이 마땅하고, 운목향의 대용품으로 볼 수 있는 토목향은 주로 중초 부위를 따라 행기하므로 가미평위산加味平胃散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천목향의 경우, 문헌에 기재된 청목향의 약성과 유사하여 중초~하초 부위를 따라 행기하므로, 목향빈랑환木香檳榔丸 등에 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용금지 약물인

1) 학명은 *Aristolochia contorta* Bunge이다.

청목향을 천목향으로 대응하는 썸이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향산화 활성은 목향류 중에서 천목향이 가장 뛰어나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활용해봄직 하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목향의 전형 약재 외형은 ‘선어통鱗魚筒’이라고 불리는 마른 뼈 모양을 보이며, 이는 오래된 것일수록 뚜렷하다. 표면에는 황갈색 또는 회갈색으로 그물모양의 뚜렷한 주름이 있다. 절단면에는 형성층 고리가 명확하며, 갈색의 방사상 무늬와 황갈색의 점 같은 유실油室(일명 주사점朱砂點)이 흩어져 있다. 씹어보면 다른 목향과는 달리 씹어도 입에 붙지 않는 특징이 있다.

토목향은 전형 약재일 때 표면이 황갈색, 회갈색 또는 갈색이며 세로 주름이 많고 가로로 피공皮孔이 줄지어 있다. 절단면은 약간 평탄하며 피부皮部는 회갈색이고 목부木部는 회백색으로 뚜렷이 구분되는데, 갈색의 유점油點이 드문드문 보인다.

천목향의 전형 약재는 상단에 유두油頭 또는 호두糊頭라고 불리는 검은색의 끈끈한 물질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겉껍질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수세미같은 가느다란 근맥根脈이 있다. 절단면은 황백색~황색이며 어두운 황색의 유점이 드문드문 있고 찢어진 틈새가 보이며, 고리모양의 형성층은 목부가 넓고 방사상의 무늬가 있으며 중심이 말라 썩어있는 경우도 있다. 씹어 보면 이에 달라 붙는다.

청목향은 다른 목향류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으며 표면은 황갈색 또는 회갈색으로 영성하고 세로주름과 수염뿌리의 흔적이 있으며, 질감은 약하여 쉽게 절단된다. 절단면은 평탄하지 않고, 형성층 고리는 뚜렷하며 황갈색인데, 피부는 옅은 황색이며 목부는 넓고 황갈색 혹은 백색으로 된 사선射線이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사천목향(천목향)



천목향 약재

4. 식물 검색표

- | | |
|-----------------------------------|-------|
| 1. 줄기가 없거나 곧게 서며, 잎 양면에 털이 있다. | |
| 2. 줄기는 곧게 서며 잎은 어긋난다. | |
| 3. 잎의 밑부분에 날개가 있고 꽃은 보라색이다. | 운목향 |
| 3. 잎의 밑부분에 날개가 없고, 꽃은 노란색이다. | 토목향 |
| 2. 줄기가 없으며 잎이 죽생簇生한다. | 사천목향 |
| 1. 줄기가 덩굴성이고, 잎 양면에 털이 없다. | 취방울덩굴 |



취방울덩굴

5. 약재 검색표

- | | |
|--|------------------|
| 1. 뿌리 상단에 끈끈한 물질이 없다. | |
| 2. 뿌리가 크며 질감이 단단하여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 |
| 3. 윗부분이 마른뼉 모양(고골상枯骨狀)으로 황갈색의 유점油點이 뚜렷하다. | 목향(운목향) |
| 3. 윗부분이 덩어리 모양의 원추형으로 크며 갈색의 유점이 가끔 보인다. | 토목향 |
| 2. 뿌리가 작으며 질감이 약해 쉽게 끊어지고, 표면이 황갈색이고 단면은 목부木部가 넓다. | 청목향(취방울덩굴) |
| 1. 뿌리 상단에 검은색의 끈끈한 유두油頭가 있으며, 겉껍질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수세미 모양의 근맥根脈이 보이며, 질감이 약하여 쉽게 끊어진다. | 천목향(사천목향) |



청목향(취방울덩굴) 약재

반하(半夏)

이 명 水玉, 地文, 和姑, 守田, 示姑, 羊眼半夏

생약명 *Pinelliae Tuber*

영문명 *Pinellia Tuber*

기 원 [한·중·일] 천남성과 식물인 끼무릇¹⁾의 덩이줄기.

약 성 辛, 溫, 有毒. 脾·胃·肺經.

효 능 燥濕化痰, 降逆止嘔, 消痞散結.

주 치 濕痰寒痰, 咳喘痰多, 痰飲眩悸, 風痰眩暈, 痰厥頭痛, 嘔吐反胃, 胸脘痞悶, 梅核氣. [외용] 癰腫痰核.

체내에서 발생하는 병적인 진액津液인 담痰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반하는 효능분류상 온화한담약溫化寒痰藥에 속한다. 주로 소화기계(비위脾胃)와 호흡기계(폐肺)의 증상을 대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한약재 중의 하나이다.

반하의 정품은 모든 공정서에서 끼무릇의 덩이줄기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반하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류의 약재가 유통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반하속(*Pinellia*) 식물뿐 아니라 이두침속(*Typhonium*), 반룡우속(*Sauromatum*) 등 다른 천남성과 식물도 반하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우리나라에도 유입된 바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끼무릇(반하)

1. 반하류의 기원과 유통

- 1) 반하 : 천남성과의 반하속에 속하는 끼무릇의 덩이줄기
- 2) 호장虎掌 : 천남성과의 반하속에 속하는 호장²⁾의 덩이줄기
- 3) 수반하水半夏 : 천남성과의 이두침속에 속하는 편침이두침鞭箠犁頭尖³⁾의 덩이줄기
- 4) 우백부禹白附 : 천남성과의 반룡우속에 속하는 독각련獨角蓮⁴⁾의 덩이뿌리

이상 반하의 유사 약재 3종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이 중 호장과 수반하가 반하의 위품·유사품으로 흔히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절단이나 법제 과정을 거쳐 육안으로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반하 절단약재

- 1) 학명은 *Pinellia ternata* (Thunb.) Makino이며, 식물명을 일반적으로 ‘반하’라고 하나, 약명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옛 이름인 ‘끼무릇’으로 적는다.
- 2) 학명은 *Pinellia pedatisecta* Schott이다.
- 3) 학명은 *Typhonium flagelliforme* (Lodd.) Blume이다.
- 4) 학명은 *Sauromatum giganteum* (Engl.) Cusimano & Hett.(=*Typhonium giganteum* Engl.)이다.

2. 약효 차이

약명	반하	호장	수반하	우백부
성미	辛, 溫, 有毒	苦·辛, 溫, 有毒	辛, 溫, 有毒	辛·甘, 溫, 有毒
귀경	脾·胃(肺)	肺·肝·脾	?	胃·肝
효능	燥濕化痰, 降逆止嘔, 消痞散結	祛風止癩, 化痰散結	燥濕化痰, 解毒消腫, 止血	祛風痰, 通經絡, 解毒鎮痛
주치	咳嗽痰多, 嘔吐反胃, 胸脘痞滿, 頭痛眩暈, 夜臥不安, 癭瘤痰核, 癰疽腫毒	中風痰壅, 口眼喎斜, 半身不隨, 手足麻痺, 風痰眩暈, 癲癇·驚風, 破傷風, 咳嗽痰多, 癰腫, 瘰癧, 跌撲損傷, 毒蛇咬傷	咳嗽痰多, 癰瘡癰腫, 無名腫毒, 毒蟲毀傷, 外傷出血	中風痰壅, 口眼喎斜, 偏頭痛, 破傷風, 毒蛇咬傷, 瘰癧結核, 癰腫
구분	溫化寒痰藥 (반하)	溫化寒痰藥 (천남성)	?	溫化寒痰藥 (백부자)

- 호장은 온화한담약의 천남성 대체품으로서의 효능을 지닌다.
- 수반하는 반하에 비해 진해鎮咳, 진토鎮吐 작용이 아주 미약하다는 실험적 보고가 있다.
- 우백부는 온화한담약의 백부자로서의 효능을 지닌다.
- 이처럼 호장, 수반하, 우백부 모두 반하와는 다른 약성을 지니므로,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하여 반하로 사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 1) 반하
 - 윗부분에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고, 주변에 뿌리 흔적이 있다.
 - 아래쪽은 매끄럽고 등근 모양이다.
- 2) 호장
 - 어린 것은 반하와 구별이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가장자리에 작은 덩이 줄기의 흔적이 보이며, 큰 것은 그 모양이 뚜렷해 호랑이 발 모양(호장虎掌)을 이룬다.
 - 덩이줄기 중심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고, 주변의 뿌리 흔적이 있다.
- 3) 수반하
 - 타원형~원추형이며, 표면의 색깔이 황갈색이다.
 - 정단頂端에 약간 돌기된 잎의 흔적이 있다.
 - 몸통 주변에 점상點狀의 뿌리 흔적이 있다.
- 4) 우백부
 - 크기가 크며, 정단에 약간 패인 줄기 흔적이 있다.
 - 몸통 주변에 수염뿌리 흔적이 불룩한 점 모양으로 규칙적인 고리를 이룬다.

4. 식물 검색표

1. 잎이 갈라진다.
 2. 불염포관佛焰苞管의 윗부분이 닫혀 있고, 부속기가 직립하거나 S자형으로 구부러진다.
 3. 엽편이 2~5조각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긴 타원형 또는 피침형이다.

..... 끼무릇(반하)
 3. 잎이 새발 모양으로 7~11갈래로 갈라지고, 달걀꼴 피침형이다.

..... 호장
 2. 불염포관의 윗부분이 열려 있고, 부속기가 아래로 길게 구부러지며, 엽편이 3~4개이고 화살깃 모양이다.

..... 편침이두침(수반하)
1. 잎이 갈라지지 않는다.
 4. 잎이 1~7장이며 잎자루는 육질이고 아랫부분이 연한 분홍색이거나 보라색 반점이 있고, 불염포는 자홍색이다.

..... 독각련(우백부)

5. 약재 검색표

1. 정단頂端 중앙에 오목한 줄기 흔적이 있으며, 표면의 색깔이 흰색~회황백색이다.
 2. 전체적인 모양은 약간 납작한 구형이며, 지름 0.7~2.5cm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 반하
 2. 전체적인 모양이 타원형~원추형이다.
 3. 지름 1.5~5cm이며, 가장자리에 작은 덩이줄기가 몇 개 붙어있어 호장상虎掌狀을 이룬다.

..... 호장
 3. 지름 1~2cm이며, 표면에 고리무늬와 수염뿌리의 흔적이 있다.

..... 우백부
1. 정단 중앙에 오목한 줄기 흔적이 없으며, 표면의 색깔이 담황색~황갈색이다. 전체적인 모양은 타원형~원추형이다.

..... 수반하



호장



호장 약재



호장 약재 윗부분



호장 약재 아랫부분



편침이두침(수반하)



독각련(우백부)



수반하 약재 외면



수반하 약재 내면



우백부 약재

방기(防己) 목방기(木防己)

방기

- 이 명 漢防己, 瓜防己
 생약명 [한·일] Sinomeni Caulis et Rhizoma
 [중] Stephaniae Tetrandrae Radix
 영문명 Sinomenium Stem and Rhizome, Stephania Tetrandra Root
 기 원 [한·일] 새모래덩굴과 식물인 청등¹⁾의 덩굴성 줄기 및 땅속줄기.
 [중] 새모래덩굴과 식물인 분방기²⁾의 뿌리.
 약 성 苦, 寒. 膀胱·肺經.
 효 능 祛風止痛, 利水消腫.
 주 치 風濕痺痛, 水腫脚氣, 小便不利, 濕疹瘡毒.

목방기

- 이 명 土木香, 牛木香, 板南根, 白山番薯, 青藤仔, 圓藤根
 생약명 Cocculi Radix
 기 원 새모래덩굴과 식물인 덩대이덩굴³⁾의 뿌리.
 약 성 苦·辛, 寒. 膀胱·腎·脾經.
 효 능 祛風除濕, 通經活絡, 解毒消腫.
 주 치 風濕痺痛, 水腫, 小便淋痛, 閉經, 跌打損傷, 咽喉腫痛, 瘡瘍腫毒, 濕疹, 毒蛇咬傷.

방기는 거풍습약祛風濕藥으로서 사용 빈도가 높은 한약재이다.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처음 기록된 이래 시대별로 기원 및 효능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방기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종류로는 방기(분방기粉防己), 청풍등靑風藤, 목방기木防己, 광방기廣防己 등이 있다. 이 중 분방기·목방기 및 광방기는 약용부위가 뿌리이며, 청풍등은 줄기를 약용부위로 하고 있다. 모두 가을(9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채취하여 사용한다.



청등(청풍등)



청풍등 약재(전형)

- 1) 학명은 *Sinomenium acutum* (Thunb.) Rehder & E.H.Wilson이며, 식물명을 일반적으로 '방기'라고 하나, 약명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중국 식물명인 '청등'으로 적는다.
- 2) 학명은 *Stephania tetrandra* S.Moore이다.
- 3) 학명은 *Cocculus orbiculatus* (L.) DC.[=*C. trilobus* (Thunb.) DC.]이다.



분방기



분방기 약재(전형)

1. 방기류의 기원과 유통

역사적으로 복잡한 기원을 나타내고 있다. 《신농본초경》의 방기는 약재의 외형 묘사에 따르면 목방기로 추정되며, 《상한론》에서는 방기의 종류를 목방기(목방기탕木防己湯)와 한방기漢防己(한방기탕漢防己湯, 방기황기탕防己黃芪湯)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금궤요략》에서는 “방기는 한중에서 난다(防己生漢中).”라는 언급에 비추어 볼 때 한중방기漢中防己, 즉 한방기로 추정된다.

한편 청대에 이르러 19세기 광저우廣州 지역에서 광방기廣防己를, 1935년부터는 중국에서 분방기粉防己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광방기와 분방기는 한중방기의 대용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한중방기와 광방기는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톨로크산의 독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한중방기나 광방기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에도시대(17~19세기) 이후 청등을 방기의 기원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정서 또한 이에 따르고 있다.

약명	기원	공정서
청풍등靑風藤	청등의 덩굴성 줄기 및 뿌리줄기	한국 일본 중국 ¹⁾
분방기粉防己	분방기의 뿌리	중국 ²⁾
목방기木防己	덩대이덩굴의 뿌리	한국 북한
광방기廣防己	광방기 ³⁾ 의 뿌리	(금지)
한방기漢防己	이엽마두령異葉馬兜鈴 ⁴⁾ 의 뿌리	(금지)

방기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식물은 위와 같이 다섯 종류에 이르며, 이중 쥐방울덩굴속에 속한 광방기와 한방기는 금지 품목임에도 유통 현장에서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정품으로 인정하는 분방기의 경우 광방기와 형태가 유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청풍등과 목방기이다.

- 1)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약명을 ‘방기防己’로 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청풍등靑風藤’으로 수재하고 있다.
- 2) 중국에서는 약명을 ‘방기防己’로 수재하고 있다.
- 3) 쥐방울덩굴과에 속한 식물로서 학명은 *Aristolochia fangchi* Y.C.Wu ex L.D.Chow & S.M.Hwang이다.
- 4) 쥐방울덩굴과에 속한 식물로서 학명은 *Aristolochia kaempferi* Willd.(= *A. heterophylla* Hemsl.)이다. 한중방기라고도 부른다.

2. 약효 차이

분방기, 광방기, 한방기는 모두 이수삼습利水滲濕의 효능을 주로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한방기는 치수治水하고 목방기는 치풍治風한다.”라는 인식과 부합된다. 한편 청풍등은 거풍습祛風濕의 효능에 중점이 있는데, 문헌에 근거하면 [치풍治風 > 치수治水]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목방기는 상대적으로 [치수治水 > 치풍治風]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약명	청풍등	목방기	분방기	광방기·한방기
성미	苦·辛, 平	苦·辛, 寒	苦·辛, 寒	苦·辛, 寒
귀경	肝·脾	膀胱·腎·脾	膀胱·肺·脾	膀胱·肺(腎·脾)
효능	祛風通絡, 除濕止痛	祛風除濕, 通經活絡, 解毒消腫	利水消腫, 祛風止痛	祛風止痛, 清熱利水
주치	風濕痺痛, 歷節風, 鶴膝風, 脚氣腫痛	風濕痺痛, 水腫, 小便淋痛, 閉經, 跌打損傷, 咽喉腫痛, 瘡瘍腫毒, 濕疹, 毒蛇咬傷	水腫, 小便不利, 風濕痺痛, 脚氣腫痛, 疥癬瘡腫, 高血壓	濕熱身痛, 風濕痺痛, 下枝水腫, 小便不利, 脚氣腫痛
구분	祛風濕藥 祛風濕止痛藥	祛風濕藥 祛風濕止痛藥	利水滲濕藥 利水退腫藥	利水滲濕藥 利水退腫藥



덩댕이덩굴(목방기)

3. 약재 감별 기준점

1) 청풍등

- 약용부위가 덩굴줄기이고, 표면에 가는 세로무늬와 피목皮目이 있으며 **부풀어 오른 마디 부위**가 있다.
- 횡단면은 규칙적인 방사상의 바릿살 무늬가 있고, **작은 구멍이 많으며**, 유관속초 섬유는 **전체적으로 파도 모양의 고리**를 이루고 중심에는 원형의 수髓가 있다.

2) 목방기

- 약용부위가 뿌리이고, 표면에 거칠고 세로로 비틀어진 깊은 홈과 피공皮孔 등이 있고 결뿌리 자국이 약간 있다.
- 횡단면은 **분성粉性이 없으며**, 방사상의 바릿살 무늬는 촘촘하지 않다.

3) 분방기

- 약용부위가 뿌리이고, 표면에 깊이 파인 세로 주름(일명 근맥筋脈)과 가로로 긴 피목의 흔적과 결뿌리 자국이 있다. 구부러진 부분에서 가로로 깊은 홈이 있고 **흑과 같은 결절 모양**이 특징적이다(일명 저대장猪大腸·결장상結腸狀).
- 횡단면은 **회백색의 분성이 풍부**하며 방사상의 바릿살 무늬는 촘촘하지 않으며 주변 조직과 더불어 거미줄 모양의 무늬를 이룬다.



목방기 약재(전형)



광방기



광방기 약재(전형)

4) 광방기

- 약용부위가 뿌리이고, 표면에 깊이 파인 세로 주름(일명 근맥筋脈)이 있다.
- 횡단면은 회백색의 **분성이 약하고** 방사상의 바릿살 무늬는 **촘촘하며** 중심에 원형의 수髓가 있다.

4. 식물 검색표

1. 초본성 덩굴식물이다.	
2. 취산꽃차례이며, 잎이 삼각형 혹은 타원형으로 다양하다.	
3. 잎의 기부는 조금 파이거나 거의 직선에 가까우며, 잎맥은 장상맥으로 9~10갈래이다.	분방기
3. 잎의 기부는 쉼개 모양이고, 잎맥은 장상맥으로 3~5갈래이다.	댕댕이덩굴(목방기)
1. 목본성 덩굴식물이다.	
4. 원추꽃차례이며, 잎이 달걀꼴 심장형이나 넓은 계란형이고, 기부는 심장형이며, 잎맥은 장상맥으로 5~7갈래이다.	청등(청풍등)
4. 총상꽃차례이며, 잎은 달걀꼴 피침형이고, 기부는 심장형 또는 원형이며, 잎맥은 주맥이 3갈래로 번는다.	광방기

5. 약재 검색표

1. 약용부위가 덩굴줄기이며, 마디 부위가 약간 팽대하고, 단면은 규칙적인 방사상의 바릿살 무늬있으며 원형의 수髓가 있다.	청풍등
1. 약용부위가 뿌리이며, 단면에 방사상 무늬가 있다.	
2. 분성粉性이 있다.	
3. 분성이 강하며, 바릿살 무늬는 촘촘하지 않고 주변조직과 더불어 거미줄 같은 무늬를 이룬다.	분방기
3. 분성이 약하며, 바릿살 무늬는 촘촘하고 원형의 수가 있다.	광방기
2. 분성이 없으며, 바릿살 무늬는 촘촘하지 않고, 표피는 흑갈색이다.	목방기



청풍등 약재 (횡단면)



목방기 약재 (횡단면)



분방기 약재 (횡단면)



광방기 약재 (횡단면)

방풍(防風) 식방풍(植防風) 해방풍(海防風)



진방풍(방풍)

방풍

이 명 銅芸, 回雲, 回草, 百枝, 百韭, 百種, 屏風, 風肉
 생약명 Saposhnikoviae Radix
 영문명 Saposhnikovia Root
 기 원 [한·중·일] 산형과 식물인 진방풍¹⁾의 뿌리.
 약 성 辛·甘, 微溫. 膀胱·肝·脾經.
 효 능 祛風解表, 勝濕止痛, 止癢.
 주 치 感冒頭痛, 風濕痺痛, 風疹瘙癢, 破傷風.

식방풍

이 명 防葵
 생약명 Peucedani Japonici Radix
 기 원 [한] 산형과 식물인 갯기름나물²⁾
 약 성 辛, 寒, 有毒. 腎經.
 효 능 清熱止咳, 利尿解毒.
 주 치 肺熱咳嗽, 濕熱淋痛, 瘡癰紅腫.



방풍 약재(절단)

해방풍³⁾

이 명 眞北沙參, 海沙參, 銀條參, 萊陽參, 遼沙參, 野香菜根
 생약명 Glehniae Radix
 영문명 Glehnia Root
 기 원 [한·중·일] 산형과 식물인 갯방풍⁴⁾의 뿌리.
 약 성 甘·微苦, 微寒. 肺·胃經.
 효 능 養陰清肺, 益胃生津.
 주 치 肺熱燥咳, 勞嗽痰血, 胃陰不足, 熱病津傷, 咽乾口渴.

방풍은 발한해표發汗解表 거풍제습약祛風除濕藥의 하나로서 해표거풍解表祛風, 승습지통勝濕止痛, 지사지혈止血하는 효능으로, 미온微溫하되 조燥하지 않고 감완甘緩하여 준열峻烈하지 않으며 성성이 비교적 완화緩和하므로 ‘풍약風藥 중의 윤제潤劑’라 불리는 풍병요약風病要藥이다. 이름 자체도 ‘풍을 막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완만한 발한發汗

- 1) 일반적으로 ‘방풍’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방풍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진방풍’이라고 적는다. 학명은 *Saposhnikovia divaricata* (Turcz.) Schischk.이다.
- 2) 학명은 *Peucedanum japonicum* Thunb.이다.
- 3) 일본에서는 빈방풍濱防風, 중국과 대만에서는 북사삼北沙參이라는 이름으로 수재하고 있다.
- 4) 학명은 *Glehnia littoralis* F.Schmidt ex Miq.이다.

으로 진액津液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약재라는 뜻이다. 《신농본초경》에 최초로 기록된 이래 오랫동안 사용되어왔으나, 그 기원 및 효능 구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약재이다.

약용부위는 뿌리로서, 2년생 이상 된 것을 봄이나 가을철에 꽃대가 없을 때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1. 방풍류의 기원과 유통

현재 우리나라 약제시장에서 ‘방풍’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으로는 진방풍(원방풍原防風, 중국방풍), 우리나라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갯기름나물(식방풍), 방풍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며 심지어 원방풍元防風이라는 약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갯방풍(해방풍, 복사삼) 등 3종이 있다.

동아시아 각국의 공정서에서는 진방풍을 방풍의 정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더해 식방풍을 방풍의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중국에서는 이를 빈해전호濱海前胡라는 이름으로 부름). 갯방풍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방풍, 일본에서는 빈방풍이라고 하는 반면, 중국과 대만에서는 사삼류로 구분하여 복사삼北沙參이라고 한다.

산출지역을 보면, 진방풍은 주로 중국의 내몽고 지역에서 생산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시험재배가 진행되는 수준이다. 식방풍은 중국에서도 생산되나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의 해안을 중심으로 대량 재배되고 있으며, 해방풍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변 모래밭에 자생한다. 이밖에 여러가지 식물이 방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실제 사용량은 극히 적다.

2. 약효 차이

약명	진방풍	식방풍	해방풍
성미	溫, 辛·甘	寒, 辛, 小毒	涼, 甘
귀경	膀胱·肺·肝·脾	肺·膀胱	肺·胃
효능	解表祛風, 勝濕止痛, 止瀉止血	清熱止咳, 利尿解毒	養陰清肺, 益胃生津
주치	外感風寒, 頭痛, 目眩, 項強, 風寒濕痺, 骨節酸痛, 四肢攣急, 破傷風	肺熱咳嗽, 濕熱淋痛, 瘡癰紅腫	肺燥乾咳, 虛勞嗽血, 胃陰不足, 津傷口乾
구분	解表藥 發散風寒藥	清熱藥 清熱燥濕藥	補益藥 補陰藥

약성 및 효능에 근거하면, 방풍은 각국 공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진방풍의 뿌리를 정품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식방풍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갯기름나물은 효능군



갯기름나물(식방풍)



식방풍 약재(절단)



갯방풍(해방풍)



해방풍 약재(절단)

분류상 청열약清熱藥에 해당하므로 방풍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식방풍은 식물학적으로 전호前胡에 가깝다. 이를 《상한론》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진방풍은 발산풍한發散風寒의 효능을 가진 태양병太陽病 약물에 해당하고, 식방풍은 청열清熱의 효능을 가진 양명병陽明病 약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방풍은 진방풍 적응증의 다음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약물로서, 오한惡寒보다는 발열發熱이 주요증상인 감모感冒에 구갈口渴과 해수咳嗽을 동반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갯방풍은 본래 사삼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방풍이나 원방풍이라는 이름으로 방풍의 적응증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굳이 감모 증상에 갯방풍을 쓰고자 한다면, 감모 후기의 폐위음허증肺胃陰虛症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1) 방풍(진방풍)

- 전형 약재 : 겉껍질이 담갈색이며, 윗부분(근경 부분)에는 고리 모양의 마디가 촘촘하고 세로 주름이 있다(일명 구인두蚯蚓頭).
- 절단 약재 : 가장자리(피부皮部)는 회갈색으로 갈라진 틈이 있으며, 목부木部는 황색이고 방사상 무늬가 있으며(일명 국화문菊花紋, 봉안권鳳眼圈), 중앙에는 원형의 황갈색 무늬가 있다.

2) 식방풍(갯기름나물)

- 전형 약재 : 겉껍질이 회황색이며, 많은 세로 주름과 가는뿌리가 있다.
- 절단 약재 : 가장자리(피부)는 회갈색으로 갈라진 틈이 없으며, 목부는 황갈색으로 치밀하다.

3) 해방풍(갯방풍) [오용품]

- 전형 약재 : 겉껍질이 연한 황백색이며, 윗부분(근경 부분)에는 황갈색의 근경 흔적이 있고, 가는 세로 주름과 세로 홈이 있으며, 가는 뿌리 흔적이 황갈색의 점 모양으로 뚜렷하다.
- 절단 약재 : 가장자리(피부)는 회황색으로 때로 갈라진 틈이 있으며, 갈색의 분비도가 흩어져 있고, 목부는 담황색으로 치밀하다.

4. 식물 검색표

- | | |
|--|------------|
| 1. 전체적으로 털이 없으며, 열매는 타원형이다. | |
| 2. 잎조각이 선형線形이고, 꽃차례의 소산경小傘梗은 5~9개이며, 열매는 분과分果이고 모서리가 있다. | 진방풍 |
| 2. 잎조각이 도란형倒卵形이고, 꽃차례의 소산경은 10~20개이며, 열매는 현수果懸垂果이고 8개의 유선이 있다. | 갯기름나물(식방풍) |
| 1. 전체적으로 흰색의 털이 있으며, 꽃차례의 소산경은 10개 정도이고, 열매는 원형이고 분과로서 뾰뾰한 긴 털이 있다. | 갯방풍(해방풍) |



방풍 횡단면

5. 약재 검색표

- | | |
|--|-------|
| 1. 절단면의 피부皮部에 갈라진 틈이 있다. | |
| 2. 겉껍질이 담갈색이고, 목부木部가 황색이며 방사상 무늬(국화문菊花紋)가 뚜렷하다. | 방풍 |
| 2. 겉껍질은 담황색이고, 목부는 담황색이며 치밀하다. | 갯방풍 |
| 1. 절단면의 피부에 갈라진 틈이 없으며, 겉껍질이 회황색이고, 목부는 황갈색으로 치밀하다. | 갯기름나물 |



식방풍 횡단면



해방풍 횡단면

백단향(白檀香) 자단향(紫檀香)



백단나무(백단향)



백단향 약재(전형)

백단향

이 명 檀香, 旃檀, 白檀, 檀香木, 真檀

생약명 Santali Albi Lignum

기 원 [한·중] 단향과 식물인 백단나무¹⁾의 나무줄기의 심재.

약 성辛, 溫. 脾·胃·心·肺經.

효 능 行氣溫中, 開胃止痛.

주 치 寒凝氣滯, 胸膈不舒, 胸痹心痛, 脘腹疼痛, 嘔吐食少.

자단향

이 명 紫檀, 紫栴木, 紫真檀, 赤檀, 勝沈香

생약명 Santalini Lignum Rubrum

기 원 [한·중] 콩과 식물인 자단나무²⁾의 나무줄기의 심재.

약 성 鹹, 平. 肝經.

효 능 祛瘀止血, 解毒消腫.

주 치 頭痛, 心腹痛, 惡露不盡, 小便淋痛, 風毒癰腫, 金瘡出血.

단향은 향기를 내는 약물로서 내복약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제사 등에서 분향의 재료로서 활용되었던 대표적인 순기약順氣藥이다. 약물의 등급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도 ‘무겁고 단단하며 기름 방울이 보이고 향기가 진하며 오래 가고 특히 태울 때 향기가 있는 것이 좋다’고 하여 향기를 감별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다.

단향은 모두 아열대식물이며, 이중 백단향은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중국 남부 등에서 생산되며 우리나라에는 자생하지 않는다. 30~40년 된 나무에서 전년에 걸쳐 채취하여 밝은 색의 변재를 제거하고 잘게 썰어 건조한다. 또한 자단향은 인도 남부, 중국의 해남도 및 대만에서 생산되고 CITES³⁾ 품목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 자단향의 대용품으로 유통되는 향나무는 한국과 중국에 널리 분포한다.

1. 단향류의 기원과 유통

단향류는 백단향과 자단향으로 나뉘며, 임상 현장에서 실제 사용량이 많지 않으므로 공정서 중에서도 한국(KHP)과 중국(ChP)에만 수재되어 있다. 백단향은 단향과 식물인 백단나무를, 자단향은 콩과 식물인 자단

1) 일반적으로 ‘단향’이라고 부르나, 여기에서는 약명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백단나무’라고 하였다. 학명은 *Santalum album* L.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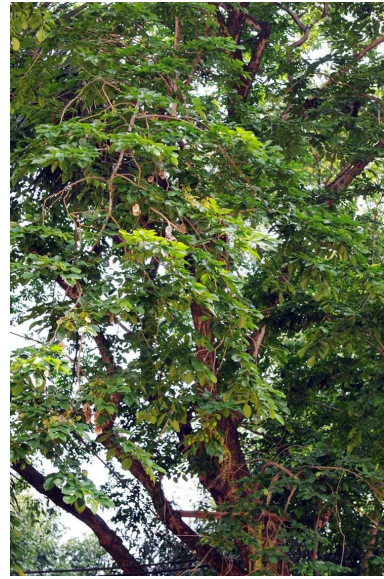
2) 학명은 *Akebia quinata* (Houtt.) Decne.이다.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나무를 기원종으로 하며, 두 가지 모두 나무줄기의 심체를 약용부위로 하고 있다.

한편 《신편중약지新編中藥誌》에서는 단향과 식물인 백단나무 중에서 피부皮部가 충실하고 황색인 것을 황단黃檀, 피부가 백색인 것을 백단白檀, 피부가 충실하지 않고 보라색을 띠는 것을 자단紫檀이라 하여, 하나의 기원식물로부터 백단향과 자단향이 모두 유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혼란을 준다.

실제 한약재 유통 시장에서는 콩과 식물인 자단이 CITES 품목에 해당하는 고가 약재인 관계로 정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으며, 두침향沈沈香이라고도 하는 인도자단나무¹⁾나 향나무²⁾의 심체가 자단향의 대용품으로 쓰이고 있다.



인도자단나무

2. 약효 차이

약명	백단향	두침향	향나무
성미	辛, 溫	鹹, 平	辛·苦, 溫, 小毒
귀경	脾·胃·肺	肝	
효능	行氣, 散寒, 止痛	祛瘀和營, 止血定痛, 解毒消腫	祛風散寒, 活血解毒
주치	胸腹脹痛, 霍亂吐瀉, 呃膈吐食, 寒疝腹痛, 腫毒	頭痛, 心腹痛, 惡露不盡, 小便淋痛, 風毒癰腫, 金瘡出血	風寒感冒, 風濕關節痛, 蕁麻疹, 陰疽腫毒初期, 尿路感染
구분	理氣藥 - 順氣藥	止血藥 - 化瘀止血藥	解表藥 - 辛溫解表藥



인도자단 약재(절단)

- 자단향의 정품인 자단나무의 경우 CITES 품목에 해당된 이후 사용 기록이 없지만, 과거 문헌의 기록 및 근연종인 두침향의 약성을 고려하면 순기약인 백단향과는 약성이 확연히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 순기약으로서의 단향은 백단향만이 해당한다.
- 우리나라에서 자단향의 대용품으로 쓰이는 향나무는 해표약에 해당하므로 백단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1) 백단향

- 색깔은 백색~담황갈색으로 밝고 매끄러우며, 햇볕에 오래 방치하면 색이 비교적 짙어진다.
- 종절면에서 세로 무늬를 볼 수 있으며, 횡절면에서는 방사상 무늬와 뚜렷한 기름 방울을 볼 수 있고 불에 태우면 향기가 더욱 진해진다.

1) 학명은 *Pterocarpus indicus* Willd.이다.

2) 측백나무과에 속한 식물로서 학명은 *Juniperus chinensis* L.이다.



향나무

2) [대용품] 인도자단나무

- 색깔이 자색으로 종단면은 세로 방향으로 갈라진 무늬가 있고 층층의 균열을 이루고 있으며 횡단면은 공점孔點이 있다.

3) [오용품] 향나무

- 종단면에 잔 물결 모양의 무늬가 있으며 향기가 약하다.

4. 식물 검색표

- | | |
|---|-----------------|
| 1. 잎은 타원형이며, 길이 4~10cm로 크다. | |
| 2. 잎은 대생하며, 열매는 핵과이다. | 백단나무(백단향) |
| 2. 잎차례는 홀수우상겹잎(7~9조각)이며, 열매는 협과로 넓은 것이 있다. | 인도자단나무(자단향 근연종) |
| 1. 잎은 비늘잎이며, 길이 1~1.2mm로 아주 작다. | 향나무(자단향 위품) |

5. 약재 검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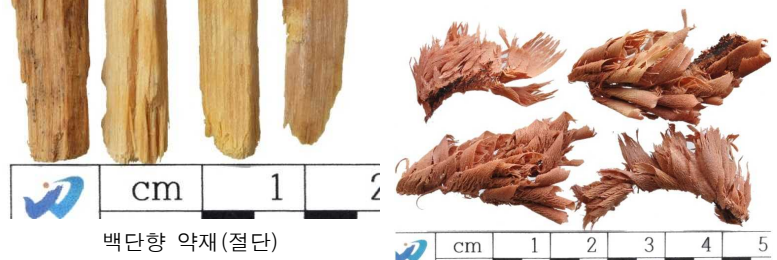
- | | |
|---|------|
| 1. 색깔이 백색~담황갈색으로, 종절면의 세로 무늬와 횡절면의 방사상 무늬를 볼 수 있으며 불에 태우면 향기가 더욱 진해진다. | 백단향 |
| 1. 색깔이 자색이다. | |
| 2. 종단면은 세로 방향으로 갈라진 무늬가 있으며 층층의 균열을 이루고 있다. | 인도자단 |
| 2. 종단면은 잔 물결 모양의 무늬가 있으며 향기가 약하다. | 향나무 |



향나무 약재 (절단)



인도자단 약재 (절단)



백단향 약재 (절단)

향나무 약재 (절단)

백부자(白附子)

관백부(關白附¹⁾)

이 명 白附子, 節附, 兩頭尖, 竹節白附

생약명 *Aconiti Koreani Tuber*

기 원 [한·중]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노랑들썩귀²⁾의 덩이뿌리.

약 성 辛·甘, 熱, 有毒. 胃·肝經.

효 능 祛風痰, 定驚癇, 逐寒濕.

주 치 中風痰壅, 口眼歪斜, 癲癇, 偏正頭痛, 風痰眩暈, 破傷風, 小兒驚風, 風濕痺痛, 面部黧黯, 瘡瘍疥癬, 皮膚濕痒.

우백부(禹白附³⁾)

이 명 白附子, 牛奶白附, 野半夏, 野慈姑, 鷄心白附, 麻芋子

생약명 *Typhonii Rhizoma*

기 원 [중] 천남성과 식물인 독각련(獨角蓮⁴⁾)의 덩이줄기.

약 성 辛, 溫, 有毒. 胃·肝經.

효 능 祛風痰, 定驚搖, 解毒散結, 止痛.

주 치 中風痰壅, 口眼喎斜, 語言謇澁, 驚風癲癇, 破傷風, 痰厥頭痛, 偏正頭痛, 瘰癧痰核, 毒蛇咬傷.



노랑들썩귀(관백부)

백부자는 화담약化痰藥으로서, 온리약溫裏藥인 부자附子(일명 흑부자黑附子)와 비교하면 “백부자는 치상초한습治上焦寒濕하여 상부로 들어가 먼·두부頭面部 질환을 치료하며, 흑부자는 치중하초한습治中下焦寒濕한다.”고 정리된다.

한약재 유통 시장에서 백부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품으로 인정되는 백부자(관백부)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우백부는 수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약성이 전혀 다른 뽕만지(뽕지감자) 종류가 외형이 비슷함으로 인해 위품으로 유통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정품은 노랑들썩귀이며 우리나라 중복부 및 중국에 분포한다. 반면 중국의 정품은 독각련으로 중국에만 분포한다. 이 두 종류 모두 8-9월에 채취하여 줄기·잎과 수염뿌리를 제거한 다음 햇볕에 말려 사용한다.



관백부 약재(내면)

1) KHP에는 ‘백부자’라는 약명으로 수재되어 있다.

2) 일반적으로 ‘백부자’라고 부르지만, 여기에서는 약명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노랑들썩귀’라고 적는다. 학명은 *Aconitum coreanum* (H.Lév.) Rapaics이다.

3) ChP에는 ‘백부자’라는 약명으로 수재되어 있다.

4) 학명은 *Sauromatum giganteum* (Engl.) Cusimano & Hett.(=*Typhonium giganteum* Engl.)이다.



독각련(우백부)



우백부 약재(전형)

1. 백부자의 기원과 유통

백부자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각각 다른 식물을 기원식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노랑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정품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흔히 ‘관백부’라 부른다. 반면 중국에서는 독각련의 덩이줄기를 정품으로 하며, 이를 흔히 ‘우백부’라 한다.

하지만 노랑돌쩌귀는 우리나라에서 보호식물로 지정될 정도로 생산량이 적은 관계로, 모양이 비슷한 위품이 유통되는 일이 있다. 이 중에는 특히 뚱딴지¹⁾와 개뚱딴지(개돼지감자)²⁾의 덩이뿌리가 문제이다. 이들은 한약명으로 국우菊芋에 해당하며, 약성이 백부자와는 무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관백부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약성이 유사한 중국의 우백부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백부자는 관백부의 경우 표면이 옅은 갈색이고 단면은 담회백색으로 분성이 많은 것이 좋으며, 우백부의 경우에는 크고 단단하며 백색으로 분성이 많은 것이 좋다.

2. 약효 차이

약명	관백부	우백부	국우
성미	溫(熱), 辛·甘, 有毒	溫, 辛, 有毒	涼, 甘·微苦, 無毒
귀경	胃·肝	關白附와 동일	
효능	祛風痰, 定驚搐, 解毒散結止痛	關白附와 유사	清熱涼血, 消腫
주치	中風痰壅, 口眼喎斜, 言語蹇澀, 痰厥頭痛, 偏正頭痛, 喉痺咽痛, 破傷風. 外治癰癤痰核, 毒蛇咬傷	關白附와 유사	熱病, 腸熱出血, 跌打損傷, 骨折腫痛
구분	祛痰藥 - 溫化寒痰藥	祛痰藥 - 溫化寒痰藥	清熱藥 - 清熱涼血藥

관백부와 우백부의 효능 차이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관백부는 우백부에 비해 성질이 더욱 따뜻하고熱 감미甘味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한습祛寒濕 지통止痛의 목적으로는 관백부를 사용함이 마땅하고, 정정축定驚搐의 목적으로는 우백부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중풍·구안와사·반신불수의 초기에 응용되는 견정산牽正散(백부자 전갈 백강잠)의 경우를 예를 들면,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관백부를 사용하고 마비 및 경련이 있을 경우에는 우백부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들어 관백부의 생산량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우백부의 수입 및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구나 관백부와 형태상으로 유사한 뚱딴지 종류가 관백부의 위품으

1) 국화과에 속한 식물로 학명은 *Helianthus tuberosus* L.이다.

2) 국화과에 속한 식물로 학명은 *Helianthus strumosus* Willd.이다.

로 유통되는 점은 우려할 부분이다. 뚱딴지 종류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강식품이기는 하나, 약효는 백부자와 전혀 다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 1) 관백부와 우백부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 전형 약재에서의 크기를 기준으로, 관백부는 작으며 우백부는 훨씬 크다.
 - 표면의 형태에서, 관백부는 얇은 세로 주름이 있고, 우백부는 고리 같은 가로 무늬가 뚜렷하다.
 - 절단면을 관찰하면, 관백부는 중심 부분에 틈새가 많고, 우백부는 분성(粉性)이 풍부하여 구분된다.

- 2) 관백부와 뚱딴지 종류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 관백부와 외형이 매우 비슷한 개뚱딴지는 표면에 **확실한 고리 모양의 가로 주름**이 있고, **잔뿌리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
 - 뚱딴지의 경우, 외면에 고리 모양의 가로 주름이 있으며, 크기가 크고 단면이 황백색으로 섬유성이 많다.



관백부 약재(외면)



우백부 약재(외면)

4. 식물 검색표

- | | |
|--|------------|
| 1. 잎은 호생하며 잎몸은 3~5개로 손바닥처럼 갈라지고, 꽃은 총상꽃차례로서 담황색이다. | 노랑돌쩌귀(관백부) |
| 1. 잎은 1~4개로 창날과 비슷한 화살깃 모양이고, 꽃은 육수꽃차례로서 불염포가 있고 보라색이다. | 독각련(우백부) |



[위품] 국우(개뚱딴지) 약재(외면)

5. 약재 검색표

- | | |
|---|-----|
| 1. 약용부위가 덩이뿌리이다. | |
| 2. 긴 타원형의 모근(母根)과 계란형의 자근(子根)으로 나뉘며, 표면에 가늘고 희미한 세로주름이 있다. | 관백부 |
| 2.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며, 표면에 고리 모양의 가로 주름이 뚜렷하다. | 국우 |
| 1. 약용부위가 덩이줄기로 크고 난원형(卵圓形)이며, 표면에 고리 모양의 가로 무늬가 있다. | 우백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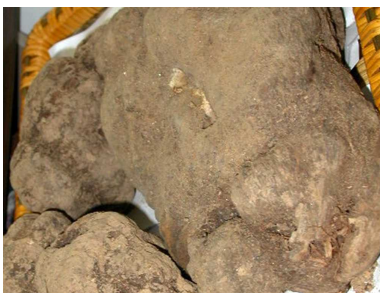


[위품] 국우(뚱딴지) 약재(단면)

복령(茯苓)



인공배양 복령



복령개

이 명 白茯苓, 赤茯苓, 茯菟, 松腴, 不死麵, 松薯, 松苓, 松木薯
 생약명 Poria Sclerotium
 영문명 Indian Bread
 기 원 [한·중·일] 구멍장이버섯과의 진균인 복령¹⁾의 균핵
 약 성 甘·淡, 平. 心·肺·脾·腎經.
 효 능 利水滲濕, 健脾, 寧心.
 주 치 水腫尿少, 痰飲眩暈, 脾虛食少, 便溏泄瀉, 心神不安, 驚悸失眠.

구멍장이버섯과에 속한 진균류 중에서 한약재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복령이다. 복령은 죽은 소나무의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으로서, 그 균핵 덩어리를 한약재로 쓴다. 아주 오래 전부터 한의임상에서 활용된 약재로서 매우 높은 사용 빈도를 지니며, 갈수록 야생품의 채취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최근 들어서는 인공배양되기도 한다.

야생 복령은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소나무숲에서 채취하는데, 대개 소나무를 벌채한 뒤 3~8년이 지난 뿌리에서 번식한다. 인공배양의 경우에는 복령 종균을 접종한 뒤 2년이 지나서 7~8월 사이에 채취한다.

복령의 전통적인 건조 방법으로는, 채취한 복령을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 두고 뱃집으로 덮어 발한發汗을 시켜 수분을 제거한 뒤,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내어 놓는다. 표면이 건조해지면 다시 발한 과정을 되풀이하여 표면에 주름이 형성되고 내부의 수분이 대부분 없어지면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다.

복령의 상품上品에 대한 설명을 보면, 덩어리가 묵직하고 견실하며 외피는 자갈색이고 다소의 광택이 있으며, 껍질의 무늬가 가늘면서 조개진 틈이 없고, 단면의 내부는 백색이며 결이 곱고 점착력이 강한 것이라 하고 있다.

1. 복령의 기원과 유통

복령의 기원은 모든 공정서에서 1개 종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유통 명칭은 다양하다.

복령을 채취하여 내부의 수분을 없앤 다음 그늘에 말린 것을 ‘복령개 茯苓個’라 하고, 신선한 복령을 거피去皮한 다음 절편한 것을 ‘복령피 茯苓塊’이라 하며, 그 중 육면체 형태로 절편한 것을 ‘복령편 茯苓片’라 한다. 또한 중심에 소나무 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복신 茯神’이라 하며,

1) 학명은 *Wolfiporia cocos* (F.A.Wolf) Ryvarden & Gilb.[=*Poria cocos* (Schw.) Wolf]이다.

겉질 부분은 ‘복령피茯苓皮’, 내부가 담홍색인 것을 ‘적복령赤茯苓’, 적복령을 절편하고 남은 백색 부분을 ‘백복령白茯苓’이라 한다. 그리고 복신 안에 있는 소나무 뿌리를 ‘복신목茯神木’이라 부른다. 이중 복령개, 복령편, 복령피는 절단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며, 이밖에도 칼로 각지게 썬 것을 ‘각복령角茯苓’, 대패 등으로 얇게 썰어서 원통처럼 말려있는 것을 ‘통복령筒茯苓’ 또는 ‘복령권茯苓卷’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생산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중국 후베이·안후이 등에서 생산되는 것을 ‘안령安苓’, 윈난에서 생산되는 것을 ‘운령雲苓’이라고 한다.

유통 시장에서의 전통적인 분류로 나누면, 복령 전형(복령개)의 바깥쪽으로부터 겉질 부분인 복령피, 숙성 단계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인 적복령, 숙성이 거의 끝나 흰색을 띠는 부분인 백복령, 숙성이 종료되고 수분이 거의 상실된 복신, 그리고 죽은 뿌리 부분인 복신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숙성 단계에서는 내부 전체가 붉은색을 띠는 적복령의 모양도 있을 수 있으며, 완전히 숙성되어 흰색의 치밀한 조직을 형성한 복신만으로 되어있기도 하는 등 모양은 다양할 수 있다. 대체로 숙성·탈수의 정도 및 시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할 수 있다.



복령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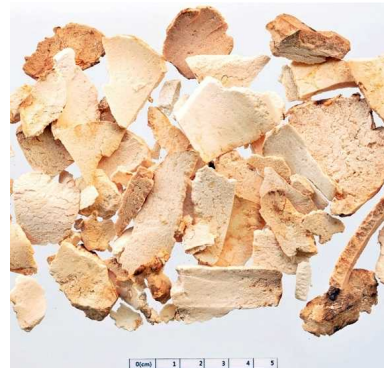
복령편

2. 약효 차이

약명	복령피	적복령	백복령	복신	복신목
성미	甘, 淡, 平, 無毒				甘, 平, 無毒
귀경	心, 脾, 腎	心, 脾, 膀胱	心, 肺, 脾, 腎	心, 脾	肝, 心
효능	利水消腫	行水, 利濕熱	利水滲濕, 健脾寧心	寧心, 安神, 利水	平肝安神
주치	水腫膚脹	小便不利, 淋濁, 瀉痢	水腫尿少, 痰飲眩悸, 脾虛食少, 便溏泄瀉, 心神不安, 驚悸失眠	心虛驚悸, 健忘, 失眠, 驚癇, 小便不利	驚悸健忘, 中風語蹇, 腳氣轉筋
구분	利水滲濕藥 (利水退腫藥)	利水滲濕藥 (利水退腫藥)	補益藥 (健脾燥濕藥)	安神藥 (健脾安神藥)	安神藥 (平肝安神藥)



백복령



적복령

- 이수삼습利水滲濕의 효능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복령피 > 적복령 > 백복령 > 복신의 순서로 정리된다. 즉, 질병의 실성實性 → 허성虛性의 이행과정에 인체에 불필요한 습濕을 제거하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
- 보비력補脾力의 효능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백복령 > 복신 > 적복령 > 복령피의 순서로 정리된다. ‘비오습脾惡濕’이라는 한의학 이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질병의 허성虛性 → 실성實性의 순서로 이해된다.
- 안신력安神力의 효능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복신 > 복신목 > 백복령 > 적복령 > 복령피의 순서로 정리된다. 특히 이중 복신목은 귀중 약재의 활용성 확장이라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복령피



복신



복신목

3. 약재 감별 기준점

약명	복령개	복령괴	복령편(백)	적복령
모양	불규칙한 덩어리	덩어리조각	얇은 조각	덩어리 혹은 부서진 모양
외피	거칠고 주름짐. 흑갈색~회갈색	정제된 모습. 백색~담홍색	잘라진 모습. 백색~회백색	잘라진 모습. 담홍색~담갈색
내면	과립상, 백색	정제된 모습, 백색	백색	담홍색
질감	단단	단단	쉽게 부서짐.	쉽게 부서짐.

특히 복령 중 최상품으로서의 복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복신목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공배양한 복령에 소나무 뿌리를 억지로 박아넣은 것이 유통되기도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4. 약재 검색표

1. 균핵이다.
2. 덩어리 형태로서 질감이 단단하다.
3. 정제된 모습이다.
 4. 가루가 적으며, 외피가 백색~담홍색이다. 복령괴
 4. 가루가 많으며, 외피가 백색이다. 복신
3. 불규칙한 덩어리모양으로, 외피가 거칠고 주름져 있으며 흑갈색~회갈색이다. 복령개
2. 얇게 부서진 조각으로 질감이 무르다.
5. 잘린 형태이다.
 6. 외피와 내면이 백색~회백색이다. 복령편(백)
 6. 외피와 내면이 담홍색~담갈색이다. 적복령
5. 벗겨진 형태로, 외피는 흑갈색~갈색이며 내면은 백색이다. 복령피
1. 균핵으로 둘러싸인 목질로서 원주형이고 황색~황백색이다. 복신목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부자

생약명 Aconiti Lateralis Radix Preparata

영문명 Monkshood Daughter Root

기 원 [한·중]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오두烏頭¹⁾의 자근子根을 가공한 것.
[일] 오두 또는 오슈바꽃²⁾의 덩이뿌리를 가공한 것.

약 성辛·甘, 大熱, 有毒. 心·腎·脾經.

효 능回陽救逆, 補火助陽, 散寒止痛.

주 치亡陽虛脫, 肢冷脈微, 心陽不足, 胸痹心痛, 虛寒吐瀉, 脘腹冷痛, 腎陽虛衰, 陽痿宮冷, 陰寒水腫, 陽虛外感, 寒濕痺痛.

천오

이 명 川烏頭, 烏喙, 奚毒, 即子, 鷄毒, 毒公, 耿子

생약명 Aconiti Tuber, Aconiti Radix

영문명 Aconite

기 원 [한·중] 오두의 모근母根.

약 성辛·苦, 熱, 有大毒. 心·肝·腎·脾經.

효 능祛風除濕, 溫經止痛.

주 치風寒濕痺, 關節疼痛, 心腹冷痛, 寒疝作痛, 麻醉止痛.

초오

이 명 草烏頭, 董, 芘, 烏頭, 烏喙, 奚毒, 即子, 鷄毒, 毒公, 耿子, 土附子, 竹節烏頭, 金鴉, 五毒根, 耗子頭

생약명 Aconiti Kusnezoffii Tuber, Aconiti Kusnezoffii Radix

영문명 Kusnezoff Monkshood Root, Korean Aconite Root

기 원 [한]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이삭바꽃³⁾, 늦젓가락나물⁴⁾ 또는 세잎들져귀⁵⁾의 덩이뿌리.

[중] 이삭바꽃의 덩이뿌리.

약 성辛·苦, 熱, 有大毒. 心·肝·腎·脾經.

효 능祛風除濕, 溫經止痛, 麻醉止痛.

주 치風寒濕痺, 關節疼痛, 心腹冷痛, 寒疝作痛.

부자, 천오, 초오는 대표적인 독성 한약재로서, 모두 미나리아재비과의 초오속(*Aconitum*)에 속하는 식물의 덩이뿌리이며, 주된 독성물질은



오두(부자·천오)

1) 학명은 *Aconitum carmichaelii* Debeaux이다.

2) 학명은 *Aconitum japonicum* Thunb.이다.

3) 학명은 *Aconitum kusnezoffii* Rchb.이다.

4) 학명은 *Aconitum volubile* var. *pubescens* Regel(=*A. ciliare* DC.)이다.

5) 학명은 *Aconitum jaluense* var. *triphylllum* (Nakai) U.C.La(=*A. triphylllum* Nakai)이다.



오두 지하부

아코니틴Aconitine이다. 초오속에 속하는 식물은 전세계적으로 40여 종이 있으며, 그 중 한약재로 활용된 기록이 있는 것은 40여 종에 이른다. 부자·초오류 외에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 초오속 식물로는 백부자白附子(관백부關白附)가 대표적이며, 진교秦艽의 오용품인 진범도 이에 해당한다.

부자와 천오는 온리약溫裏藥에 해당되며, 초오는 거풍습지비통약祛風濕止痛藥으로 분류된다. 비록 강한 독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특정한 효능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처방에서 활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성문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많은 의가들에 의해 다양한 수치修治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수치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예: 포부자炮附子, 백부편白附片등). 천오 중에서 크기가 큰 것은 달리 천웅天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 부자·초오류의 기원과 유통

부자와 천오는 오두의 자근子根(부자)과 모근母根(천오)이며, 초오는 이 삭바꽃을 비롯한 기타 여러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서 실제 유통 현장에서 여러 종이 섞여있음을 볼 수 있다.

부자는 다양한 수치 방법에 따라 여러 이름을 갖고 있는데, 먼저 채취한 생부자를 간수와 소금을 가해 가공하여 그 바깥면에 소금 결정이 생기고 단단해진 것을 ‘염부자鹽附子’라 한다. 염부자를 감두탕甘豆湯 등으로 더 가공한 것을 ‘담부편淡附片’, 여기에 다시 열을 가하여 볶는 과정(포炮)을 거친 것을 ‘포부자炮附子’라 부른다. 포부자 중에서 중국에서 만든 것을 ‘당포부자唐炮附子’라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경포부자京炮附子’라 한다. 그밖에 크기가 작은 부자를 수치한 것은 ‘편부자片附子’라 부른다. 실제 유통되는 종류는 염부자, 경포부자, 당포부자, 편부자 정도이며, 이 중에서 포부자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흑순편黑順片과 껍질을 벗긴 백부편白附片으로 나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와 천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초오의 경우에는 소량을 국내에서도 생산하고 있다.



염부자



당포부자



경포부자

2. 약효 차이

약명	부자	천오	초오
성미	辛·甘, 熱, 有毒	辛, 熱, 有毒	辛·苦, 熱, 大毒
귀경	心, 脾, 腎	脾, 命門	心, 肝, 腎, 脾
효능	回陽補火, 散寒除濕	祛寒濕, 散風邪, 溫經止痛	祛風除濕, 溫經止痛
주치	陰盛格陽, 大汗亡陽, 吐痢厥逆, 心腹冷痛, 脾泄冷痢, 一切沈寒痼冷.	風寒濕痺, 歷節風痛, 四肢拘攣, 半身不遂, 頭風頭痛, 心腹冷痛, 陰疽腫毒.	風寒濕痺, 關節疼痛, 心腹冷痛, 寒疝作痛, 癱醉止痛.
구분	溫裏藥 (溫下焦藥)	溫裏藥 (溫裏祛風濕藥)	祛風濕藥 (祛風濕止痛藥)

- 옛 의가들은 “부자는 축한(逐寒)하고 천오는 거풍(祛風)한다.” 또는 “천오는 거한(逐寒)하고 초오는 거풍(祛風)한다.” 등으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즉, 초오의 경우 성미와 효능이 천오와 비슷하나, 보양(補陽)시키는 효능은 천오에 미치지 못하며, 거풍통비(祛風通痺)시키는 효능은 천오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 온리약(溫裏藥)에 속해있는 부자와 천오는 이한증(裏寒證)에 사용되며, 초오는 풍한습비(風寒濕痺)에 사용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 온리력(溫裏力)을 기준으로 하면 부자 > 천오 > 초오 순이며, 거풍습력(祛風濕力)을 기준으로 하면 초오 > 천오 > 부자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이들 약재를 사용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1) 저독(低毒)에서 증독(增毒)으로(예: 부자의 경우 편부자 → 당포부자 → 경포부자 → 염부자), 2) 소량에서 대량으로, 3) 냉복(冷服)에서 온복(溫服)으로 점차 용법(用法)용량(用量)을 변경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1) 부자

(1) 염부자

- 전형 약재는 원추형이며, 표면에는 소금 결정(염상鹽霜)이 덮여 있으며, 윗부분에는 함몰된 줄기 흔적(아흔芽痕)이 있고, 옆부분에는 특징적으로 혹 모양의 돌출된 결뿌리 흔적(지근흔支根痕, 일명 정각釘角)이 있다.
- 절단 약재는 횡단면이 회갈색이며 소금으로 가득 찬 바탕에 작은 빈틈이 있으며, 형성층은 다각형으로 고리 모양을 이루고 근맥(筋脈) (유관속)이 보인다.

(2) 포부자

- 수치 방법 및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보통 경포부자가 당포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하다고 인식된다.
- 경포부자는 대개 절반으로 절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피(留皮)되어 있고 불규칙한 삼각형이며, 절단면은 암황색으로 기름기가 있고 광택이 나며 반투명하고 세로로 뻗은 근맥이 보인다.
- 당포부자는 보다 얇게 절편되어 있으며, 유피된 것은 불규칙한 삼각형이나 수치 과정의 열로 인해 주글주글해진 모습이고, 거피(去皮)된 것은(백부편白附片) 절단면이 황백색이며 반투명하고 세로로 뻗은 근맥이 보인다.



백부편



천오(전형)



천오(절단면)



통천오(전형)



통천오(절단면)



이삭바꽃 (초오)

2) 천오

- 유통 시장에서 천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품으로서 오두의 모근이며, 다른 하나는 비정품으로서 오두의 자근, 즉 부자의 미성숙품이다.
- 오두의 모근(정품)은, 전체 형태가 불규칙한 원추형~방추형으로 약간 구부러지고 한쪽으로 부풀어 있다(까마귀 머리 모양, 일명 오아두鳥鴉頭). 외면은 회갈색~흑갈색이며 단면은 미색인데 형성층은 고리 모양으로 다각형을 이룬다.
- 오두의 자근(미성숙 부자)는 보통 ‘통천오筒川烏’라 부른다. 전체 형태는 거꾸로 된 원추형이며 옆부분에 모근으로부터 분리된 흔적이 있다. 외면은 다갈색이며 단면은 미색이거나 약간 황색을 띠며 분성粉性이 많고 다각형의 무늬가 보인다.

3) 초오

- 초오속(*Aconitum*)에 속하는 여러 식물의 덩이뿌리가 정확한 구분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모양은 비슷하다.
- 전체 형태는 불규칙한 긴 원추형으로 약간 구부러져 까마귀 머리 모양(오아두鳥鴉頭, 오훼鳥喙)을 이룬다. 절단면은 회백색이며 형성층 고리는 다각형의 층을 이루고 있으며 수부髓部가 크거나 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식물 검색표

1. 줄기가 덩굴성이고, 줄기와 화경花梗에 짧은 유모柔毛가 있다.	늦것가락나물
1. 줄기가 직립성이다.	
2. 줄기 윗부분, 화병葉柄, 화경花梗에 털이 있으며 꽃잎에는 털이 없다.	오두
2. 줄기에 털이 없다.	
3. 잎이 완전히 갈라져 있으며, 화경에는 털이 없다.	이삭바꽃
3. 잎이 털 갈라져 있으며, 화경에 털이 있다.	투구꽃

5. 약재 검색표

1) 부자와 초오의 검색표

1. 자근子根으로서 비교적 크고(지름 2~5cm), 원추형~도란형이다.	부자
1. 모근母根 또는 자근子根으로 비교적 작고(지름 0.6~1.8cm), 까마귀 머리 모양이며 원추형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다.	초오

2) 부자, 천오, 초오의 검색표

- | | |
|--|-----|
| 1. 모근母根과 자근子根을 분리해서 약용한다. | |
| 2. 모근을 사용하며 가운데 부분이 약간 부풀어 올라 까마귀 머리 모양이며, 절단면이 딱 차 있고 유관속이 다각형의 고리를 이룬다. | 천오 |
| 2. 자근子根을 사용한다. | 부자 |
| 3. 가공하지 않은 전형으로, 표면이 소금 가루로 덮여있고 주위에 결뿌리의 흔적이 흑처럼 돌출되어 있다(정각釘角). | 염부자 |
| 3. 가공한 약제로서 불규칙한 삼각형 조각이며, 단면에 세로로 뻗은 유관속(근맥筋脈)이 뚜렷하다. | |
| 4. 유피留皮한 것으로, 외면은 흑갈색이고 절단면은 암황색이다. | 흑순편 |
| 4. 거피去皮한 것으로, 황백색이다. | 백부편 |
| 1. 모근과 자근을 분리하지 않고 약용하며, 절단면은 수부髓部가 크거나 구멍이 있다. | 초오 |



초오(전형)



초오(절단면)

사삼(沙參)



잔대 (남사삼)



남사삼 약재 (전형)

남사삼 南沙參¹⁾

이 명 沙參, 知母, 白沙參, 苦心, 虎鬚, 白參, 志取, 文虎, 文希, 羊婆奶, 鈴兒參, 泡參, 桔參, 山沙參, 沙獺子

생약명 Adenophorae Radix

영문명 Ladybell Root

기 원 [한] 초롱꽃과 식물인 잔대²⁾ 또는 당잔대³⁾의 뿌리.

[중·일] 층층잔대⁴⁾ 또는 당잔대의 뿌리.

약 성 甘, 微寒. 肺·胃經.

효 능 養陰清肺, 益胃生津, 化痰, 益氣.

주 치 肺熱燥咳, 陰虛勞嗽, 乾咳痰黏, 胃陰不足, 食少嘔吐, 氣陰不足, 煩熱口乾.

북사삼 北沙參⁵⁾

이 명 海防風, 濱防風, 眞北沙參, 海沙參, 銀條參, 萊陽參, 遼沙參, 野香菜根

생약명 Glehniae Radix

영문명 Coastal Glehnia Root

기 원 [한·중·일] 미나리과 식물인 갯방풍⁶⁾의 뿌리.

약 성 甘·微苦, 微寒. 肺·胃經.

효 능 養陰清肺, 益胃生津.

주 치 肺熱燥咳, 勞嗽痰血, 胃陰不足, 熱病津傷, 咽乾口渴.

인삼이 대표적인 보기약補氣藥이라면, 사삼은 대표적인 보음약補陰藥이다. 옛 의서에서 “인삼은 보오장지양補五臟之陽하고 사삼은 보오장지음補五臟之陰하는데, 인삼은 보양이생음補陽而生陰하고 사삼은 보음이제양補陰而制陽한다.”라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에서 사삼의 향명鄉名을 ‘더덕’으로 잘못 기재한 이후, 지금까지도 한약재 유통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잔대의 근연식물인 모시대(즉, 제니薺薺)와 남사삼인 잔대에 대비해 북사삼인 갯방풍(유통명 해방풍, 원방풍)도 공정서에 수록되어 있어 혼란을 가중한다.

- 1)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약명을 ‘사삼’으로 하고 있지만, 북사삼과의 구별을 위해 여기에서는 ‘남사삼’으로 적는다.
- 2) 층층잔대와 같은 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학명은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ara이다.
- 3) 학명은 *Adenophora stricta* Miq.이다.
- 4) 학명은 *Adenophora triphylla* (Thunb.) A.DC.[=*A. verticillata* Fisch.; *A. tetraphylla* (Thunb.) Fisch.]이다.
- 5) 약명을 우리나라에서는 ‘해방풍海防風’, 일본에서는 ‘빈방풍濱防風’이라 하고 있지만, 남사삼과의 구별을 위해 여기에서는 ‘북사삼’으로 적는다.
- 6) 학명은 *Glehnia littoralis* F.Schmidt ex Miq.이다.

중국에서는 잔대류를 남사삼, 갯방풍을 북사삼이라 하여 사삼의 두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약효 측면에서는 북사삼이 남사삼보다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경봉원本經逢源》 중, ‘남·북의 두 종류가 있는데, 북사삼은 조직이 단단하고 충실하며 성질이 차갑고, 남사삼은 조직이 성글고 약력이 미약하다有南北二種, 北者堅實性寒, 南者體虛力微’는 기록).

1. 사삼류의 기원과 유통

사삼류는 그 유통 상황이 매우 혼란하므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남사삼 : 잔대류(잔대, 층층잔대, 당잔대 등)
- 산해라(山海螺¹⁾) : 더덕²⁾
- 제니(薺蔴 : 모시대³⁾)
- 북사삼 : 갯방풍

사삼의 종류로는 남사삼(잔대류)과 북사삼(갯방풍)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약재 시장에서는 흔히 더덕을 ‘사삼’, 잔대를 ‘제니’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갯방풍은 ‘원방풍’이라는 이름으로 방풍으로 오용되기도 한다(‘방풍’편 참조). 네 가지 종류 모두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산해라만이 대량 재배되고 있으며(국내 약용작물 생산량 1~2위 수준), 제니는 국내외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고, 남사삼과 북사삼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덕(산해라)



산해라 약재(전형)

2. 약효 차이

약명	남사삼	산해라	제니	북사삼
성미	微寒, 甘·微苦, 無毒	平, 甘·辛, 無毒	寒, 甘, 無毒	微寒, 甘·微苦, 無毒
귀경	肺, 胃	肺, 肝, 大腸	肺, 脾	肺, 胃
효능	養陰清肺, 祛痰止咳, 益胃生津	養陰潤肺, 祛痰排膿, 清熱解毒, 催乳	清熱, 解百藥毒, 祛痰	養陰清肺, 益胃生津
주치	肺熱燥咳, 虛勞久咳, 乾咳稠痰, 傷陰咽乾喉痛.	乾咳, 肺癰, 乳癰, 腸癰, 瘡瘍腫毒, 乳汁不足, 毒蛇咬傷	燥咳, 咽痛, 消渴, 疔毒, 咽喉炎, 急性氣管支炎	肺熱燥咳, 陰虛勞嗽, 脾胃氣虛, 熱病傷津
구분	補益藥 (補陰藥)	清熱藥 (清熱解毒藥)	清熱藥 (清熱解毒藥)	補益藥 (補陰藥)

- 1)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양유근羊乳根’이라고 부르며, 중약대사전 등에는 ‘산해라’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 2) 중국에서는 식물명을 ‘양유羊乳’라고 부른다. 학명은 *Codonopsis lanceolata* (Siebold & Zucc.) Benth. & Hook.f. ex Trautv.이다.
- 3) 학명은 *Adenophora remotiflora* (Siebold & Zucc.) Miq.이다.



모시대 (제니)

-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에서 혼란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 약재 시장에서는 더덕이 사삼으로 유통되고 있는 바,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사삼(잔대)은 기미가 감·미고(微苦)하여 폐음허(肺陰虛)에 쓰이고, 산해라(더덕)는 감·신후(甘·辛)하고 고미(苦)맛이 강하여 폐실증(肺實證)에 쓸 수 있다. 또한 해수천식(咳喘) 등에 있어서도, 산해라는 사삼에 비해 효력이 약하다. 반면에 산해라는 최유(催乳) 작용이 있어 저제(猪蹄) 목통(木通) 왕불류행(王不留行) 천산갑(穿山甲) 등과 같은 최유제와 배합될 수 있다.
- 북사삼은 자음(滋陰)의 효력이 강하고, 남사삼은 거담(祛痰)의 작용이 강하다.
- 거담 작용에 있어 산해라와 제니는 남사삼에 미치지 못하지만 유사한 효능을 나타내며, 이중 산해라는 최유 작용이, 제니는 청열해독(淸熱解毒) 작용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즉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보음력(補陰力) : 북사삼 > 남사삼 > 산해라 > 제니
 - 거담력(祛痰力) : 남사삼 > 산해라 > 제니
 - 청열력(淸熱力) : 제니 > 산해라 > 남사삼

3. 약재 감별 기준점

1) 남사삼

- 위쪽에 **뚜렷한 고리 모양의 가로주름(나문(螺紋))**이 있다.
- 절단면은 미색~황백색을 띠고 빈틈이 많다.

2) 산해라

- 외면에 작은 흑이 많이 붙어 있으며, **황갈색이다**.
- 절단면은 백색으로 빈틈이 많다.

3) 제니

- 외면은 **갈색이다**.
- 절단면은 백색을 띠고 빈틈이 많다.

4) 북사삼

- 절단면은 담황백색의 피부(皮部)와 황색의 목부(木部)로 **뚜렷이 구분되며, 빈틈이 없고 치밀하다**.



제니 약재 (전형)

4. 식물 검색표

1. 내륙성 식물이다.
2. 줄기는 직립하며, 꽃이 자색이고 원추화서이다.
 3. 잎이 윤생한다. 잔대(남사삼)
 3. 잎이 호생한다. 모시대(제니)
2. 줄기가 덩굴성이며, 꽃이 담녹색으로 안쪽에 자갈색 반점이 있다.
 - 더덕(산해라)
1. 바닷가 모래밭에 자생하며, 전체적으로 털이 있고, 꽃은 겹산형화서로 백색이다. 갯방풍(복사삼)



5. 약재 검색표

1. 절단면에 찢어진 틈이 많다.
2. 외면이 갈색이고 표면에 흑이 없으며, 윗부분에 고리 같은 가로 무늬가 뚜렷하다.
 3. 질감이 가볍고 씹으면 점액성이다. 남사삼
 3. 질감이 무겁고 씹으면 점액성이 없다. 제니
2. 외면이 황백색이고 표면에 흑이 있으며, 윗부분의 가로 무늬가 약하고, 전체적으로 주름이 일정하지 않고 거칠다. 산해라
1. 절단면에 찢어진 틈이 없어 치밀하며, 피부部는 담황백색이고 목부木部는 황색이다. 복사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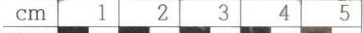
사인(砂仁)



양춘사



양춘사(전형)



양춘사(거피)

이 명 縮砂蜜, 縮砂仁, 縮砂蓢

생약명 Amomi Fructus

영문명 Villous Amomum Fruit

기 원 [한] 생강과 식물인 녹각사(綠殼砂¹⁾) 또는 양춘사(陽春砂²⁾)의 잘 익은 열매 또는 씨앗 덩어리.

[중] 양춘사, 녹각사 또는 해남사(海南砂³⁾)의 잘 익은 열매.

약 성辛, 溫. 脾·胃·腎經.

효 능 化濕開胃, 溫脾止瀉, 理氣安胎.

주 치 濕濁中阻, 脘痞不飢, 脾胃虛寒, 嘔吐泄瀉, 妊娠惡阻, 胎動不安.

사인은 사용량이 많은 방향화습약芳香化濕藥으로서, 원산지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약용뿐 아니라 식품(향신료)으로도 흔히 활용되고 있다. 사인은 중국 당나라 문헌인 《본초습유本草拾遺》에 ‘축사밑縮砂蜜’이라는 약명으로 처음 기록되었으며, 산지가 같은 근연 분류군인 익지인益智仁, 백두구白豆蔻, 초두구草豆蔻 등과 모양이 비슷하여 사용 초기부터 혼란을 일으켜 왔다. 현재는 사인의 기원이 명확히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약제나 이물질의 혼입이 많은 상황이다. 이는 껍질을 제거하고 쓰는 것을 선호하는 시장 수요의 영향이 크므로, 혼입을 막기 위해서 껍질째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사인의 기원과 유통

사인의 기원식물로는 양춘사, 녹각사 및 해남사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 해남사는 정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역사상 본초로서의 사인에 가장 부합하는 종은 중국 남부(푸젠·광둥·광시·윈남)에 분포하는 양춘사이며, 사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가까운 다른 종들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녹각사는 중국 남부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해남사는 중국 하이난에만 분포하는 종으로서 대량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1) 흔히 ‘축사인’이라고 부르며, 학명은 *Amomum villosum* var. *xanthioides* (Wall. ex Baker) T.L.Wu & S.J.Chen이다.

2) 학명은 *Amomum villosum* Lour.이다.

3) 학명은 *Amomum longiligulare* T.L.Wu이다.

2. 약효 차이

문헌적으로는 세 종 모두 동일한 약효를 지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 남부에서 생산되는 양춘사가 최상품으로 취급되며,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녹각사는 이에 버금가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한편 해남사는 이들에 비해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에서는 양춘사의 대용품 정도로 이해된다.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다소의 차이점이 확인된 바 있다.

현대적인 효능 연구 결과는 기존의 한의학적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건위 작용(위궤양 억제, 펩신 활성 억제, 담즙 및 위액 분비 촉진)이 있고, 소량에서 소장을 흥분시키고 대장에서 억제시킴으로써 설사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기타로 혈소판응집 억제, 혈관 확장, 진통 작용이 있다고 한다.

이를 정리하면 사인은 방향성 건위제로서 고급 소화제로 분류되며, 소화력을 촉진시켜주고 식욕을 강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임상의 응용폭이 넓다.



녹각사

3. 약재 감별 기준점

1) 열매 상태에서의 감별

- 표면에 가시가 뾰뾰하고 세 모서리가 뚜렷하지 않은 양춘사·녹각사, 가시가 밀생하지 않으며 세 모서리와 세로 주름이 뚜렷한 해남사로 1차 분류한다.
-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맛과 냄새가 강렬한 양춘사와, 크기가 작고 맛과 냄새가 상대적으로 약한 녹각사로 2차 분류한다.



녹각사(전형)

2) 종자 상태에서의 감별

- 색깔이 홍갈색 또는 암갈색인 양춘사와, 회갈색 또는 갈색인 녹각사·해남사로 1차 분류한다.
- 종자 덩어리가 비교적 둥글고 큰 녹각사와, 비교적 작은 해남사로 2차 분류한다.
- 사인의 주성분은 휘발성 물질이므로, 껍질을 벗긴 채 유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3) 시장 유통품 상태

- 시장 수요에 따라, 유통되는 사인의 대부분은 과피가 벗겨진 상태(종자 덩어리 또는 추말)이다. 기본적으로 완전한 종자 덩어리는 3쪽의 종자 단團을 형성해야 하며, 한쪽의 종자는 6~15(~17)개이고 홍갈색을 띠며 향기가 강렬한 것이 상품上品이다. 유통되고 있는 거피 사인은 종자가 미숙하거나, 종자 수가 적은 저질품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심지어는 추말로 분쇄한 상태로 유통되는 것도 많은데, 이 경우에



녹각사(거피)



해남사



해남사(전형)



해남사(거피)

는 다음과 같이 이물질이 혼입되기 쉽다.

- ① 초두구(草豆蔻) 종자를 함께 갈아서 섞은 경우 : 종자 알갱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므로, 유심히 관찰하면 추말 상태에서도 구별이 가능하다. ② 흙이 섞인 경우. ③ 건조가 덜 된 사인이 섞인 경우 (사인 약재 자루에 손을 넣으면 열감을 느낄 수 있음).

4. 식물 검색표

1. 잎허가 짧으며(0.3~0.5cm), 삭과는 가시가 밀생하며 과피가 얇다.	
2. 잎허가 홍갈색이며, 삭과는 홍색이다.	양춘사
2. 잎허가 녹색이며, 삭과도 녹색이다.	녹각사
1. 잎허가 길며(2~4.5cm), 삭과는 가시가 부드럽고 분지하며 과피가 두텁다.	
	해남사

5. 약재 검색표

1. 삭과는 가시가 밀생하며 과피가 얇으면서 연하다.	
2.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며, 표면의 가시같은 돌기는 밀생하며, 맛과 냄새가 강렬하다.	양춘사
2.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표면의 가시같은 돌기가 더욱 밀생하며, 맛과 냄새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녹각사
1. 삭과는 가시가 밀생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과피가 두텁고 단단하며 표면의 세로 모서리가 뚜렷하다.	해남사

산조인(酸棗仁)

이 명 棗仁, 酸棗核

생약명 Zizyphi Semen

영문명 Jujube Seed

기 원 [한·중·일] 갈매나무과 식물인 산조(酸棗¹⁾)의 잘 익은 씨.

약 성 甘酸, 平. 肝·膽·心經.

효 능 養心補肝, 寧心安神, 斂汗, 生津.

주 치 虛煩不眠, 驚悸多夢, 體虛多汗, 津傷口渴.

산조인은 정신적 긴장을 완화해주는 안신약安神藥 중 자양안신약滋養安神藥에 속하는 한약재로서, 《신농본초경》에서는 ‘상품上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원식물인 ‘산조’는 대추나무²⁾와 가까운 변종으로서, 여러 본초문헌에서 산조와 대추를 비교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대추나무는 식용으로 육성되면서 과육이 발달하고 종자는 사라진 반면, 산조는 과육이 적고 종자가 비대하다.

가을철에 잘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과육을 제거하고 과핵을 깨뜨려, 안에 든 종자만 모아 햇볕에 말린다. 상품上品의 기준으로는 알맹이가 크고 부풀어 있으며 깨진 곳이 없이 완전하고, 표면에 광택이 있으며 홍갈색인 것이다.

산조인은 최근 들어 가격이 매우 폭등한 약재로, 이에 따라 위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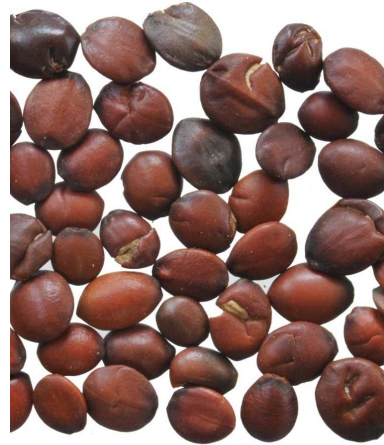
1. 산조인의 기원과 유통

산조인의 기원식물은 ‘산조’만이 정품이다. 그런데 산조는 생산량이 부족하여 품귀 현상을 빚고 있으며, 위품이 많아 정품 산조인을 ‘원산조인’이라 별칭하기도 한다.

산조인의 대표적인 위품으로는 ‘면산조인緬酸棗仁’이 있다. 이는 남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는 전자조(滇刺棗³⁾)의 종자로서, 외형이 산조인과 유사하여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현재는 이 면산조인마저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면산조인의 위품까지 등장했는데, 열대 아메리카 원산의 콩과 식물인 은합환(銀合歡⁴⁾)이 그것이다. 전자조는 산조의 근연종이지만, 은합환은 분류학적으로 매우 거리가 먼 식물이므로, 혼입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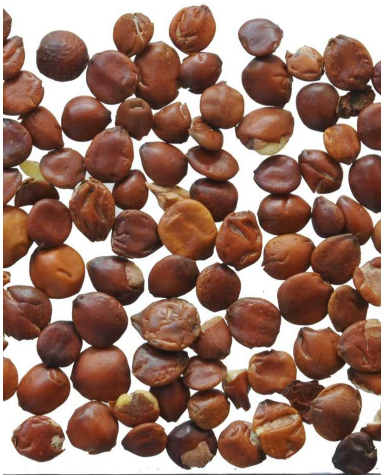


산조(원산조인)



원산조인

- 1) 우리나라에도 분포하는 뽕대추(*Ziziphus jujuba* Mill.)의 변종으로서, 학명은 *Ziziphus jujuba* var. *spinosa* (Bunge) Hu ex H.F.Chow이다.
- 2) 학명은 *Zizi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이다.
- 3) 학명은 *Ziziphus mauritiana* Lam.이다.
- 4) 학명은 *Leucaena leucocephala* (Lam.) de Wit이다.



전자조 종자(면산조인)

2. 약효 차이

약명	산조인	전자조(수피·열매)	은합환(근피)
성미	甘, 平	澁·苦, 凉	甘, 平
귀경	心, 肝		
효능	寧心安神, 養肝斂汗	清熱止痛, 收斂止瀉	解鬱寧心, 解毒消腫
주치	虛煩不眠, 驚悸怔忡, 體虛自汗·盜汗	燒燙傷, 咽喉痛, 腹瀉, 痢疾	心煩失眠, 心悸怔忡, 跌打損傷, 骨折, 肺癰, 癰腫, 疥瘡
구분	安神藥(滋養安神藥)	清熱藥(清熱解毒藥)	清熱藥(清熱涼血藥)

전자조와 은합환은 종자를 약용한다는 기록도 없으며, 일부 문헌에 수피와 열매(전자조), 근피(은합환)의 효능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자조와 은합환은 청열약에 해당한다.

현대적 연구에서 산조인과 면산조인(전자조)의 진정·안정 효능을 비교한 결과로는, 면산조인은 산조인에 비해 1/3 내지 1/5 정도에 불과한 낮은 효능을 지닌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 위품인 전자조의 종자는 외형이 산조인과 유사하나, 전체적인 모양이 원형에 가깝고, 회황색 또는 황갈색의 표범무늬같은 반점이 있으며, 양면에 세로 방향의 능선이 보이지 않는다.
- 다른 위품인 은합환의 종자는 외형이 다소 길쭉하며, 테두리에 봉선縫線이 두드러져 있고, 양면에 세로 방향의 능선이 없다.

4. 식물 검색표

1) 대추와 산조

- | | |
|--|------|
| 1. 가지에는 가시가 혼적뿐이고, 열매는 맛이 달며 크고(지름 1.5~2cm), 과핵은 양 끝이 뾰족하다. | 대추나무 |
| 1. 가지에는 가시가 2개씩 있으며(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음), 열매는 맛이 시며 작고(지름 1.2cm 이하), 과핵은 양 끝이 뭉툭하다. | 산조 |

2) 산조와 위품들

- | | |
|---|-----|
| 1. 앞은 단엽으로 어긋나고, 열매는 핵과로서 지름 1.2cm이하이다. | |
| 2. 낙엽 관목이며, 중과피는 얇다. | 산조 |
| 2. 상록 소교목이며, 중과피는 코르크처럼 되어 있다. | 전자조 |
| 1. 앞은 2회 기수우상복엽이고, 열매는 삭과로서 길이 10~18cm이다. ... | 은합환 |



은합환 열매

5. 약재 검색표

- | | |
|--|--------------------|
| 1. 납작한 원형 또는 납작한 타원형이다. | |
| 2. 색깔이 자홍색이고, 한쪽 면에 세로 방향으로 능선이 있다. | 산조인(원산조인) |
| 2. 색깔이 회황색이고 연한 황갈색의 표범무늬 반점이 있으며, 양면에 능선이 없다. | 전자조 종자(면산조인) |
| 1. 납작한 긴 원형으로 테두리에 두드러진 봉선縫線이 있으며, 양면에 능선이 없다. | 은합환 종자 |



원산조인 외면



면산조인 외면



은합환 종자 외면



원산조인 외면(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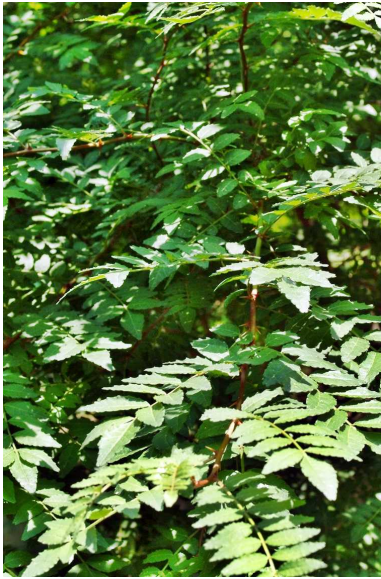


은합환 종자 외면(확대)



면산조인 외면(확대)

산초(山椒)



초피나무



초피나무 과피

이 명 蜀椒, 川椒, 花椒, 檳, 大椒, 秦椒, 南椒, 巴椒, 蓂藪, 陸拔, 漢椒, 點椒
생약명 Zanthoxyli Pericarpium

영문명 Pricklyash Peel

기 원 [한] 온향과 식물인 초피나무¹⁾, 산초나무²⁾ 또는 화초花椒³⁾의 잘 익은 열매껍질.

[중] 산초나무 또는 화초의 잘 익은 열매껍질.⁴⁾

[일] 초피나무의 잘 익은 열매껍질.

약 성 辛, 溫. 脾·胃·腎經.

효 능 溫中止痛, 殺蟲止痒.

주 치 脘腹冷痛, 嘔吐泄瀉, 蟲積腹痛. [외용] 濕疹, 陰痒.

산초는 온중산한溫中散寒의 효능을 갖는 온리약溫裏藥으로서 한약재뿐 아니라 식품으로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초, 조피, 제피 등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이며, 많은 근연 식물 중 어떤 것이 약용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산초는 8~10월에 잘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말린 다음 종자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열매껍질만을 사용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종자와 열매 꼭지도 섞인 채로 유통되는 일이 많다. 산초 종자는 초목椒目이라는 별개의 약재이므로 함께 투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초는 크기가 크고 자홍색이며 기름기가 풍부하고 향기가 진한 것이 좋다.

1. 산초의 기원과 유통

국가별로 산초의 기원식물을 달리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산초나무와 화초를, 일본에서는 초피나무를,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종 모두를 기원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초나무와 초피나무가 생산되며 식품 또는 약용으로 구분없이 이용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산초나무는 식용, 초피나무는 약용으로 구별한다. 화초는 중국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산초나무를 청초靑椒라고 부른다.

1) 학명은 *Zanthoxylum piperitum* (L.) DC.이다.

2) 학명은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이다.

3) 학명은 *Zanthoxylum bungeanum* Maxim.이다.

4) 중국약전에서는 ‘화초花椒’라는 약명으로 수재하고 있다.

2. 약효 차이

문헌적으로 산초의 기원종 3종의 효능 차이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경험적으로 화초 > 초피나무 > 산초나무 순으로 약성이 강하다고 인식되어 있다. 향후 산초류 3종에 대한 효능 비교실험을 통해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산초나무의 경우, 약용일 때에는 완전히 익은 열매껍질을, 식용일 때에는 덜익은 열매를 쓴다.

한편 산초의 비약용부위인 종자, 즉 초목은 약성이 고춧·신후, 온溫, 소독小毒하고, 비脾·폐肺·방광경膀胱經에 귀경하며, 이수소종利水消腫, 거담평천祛痰平喘하는 효능으로 수종창만水腫脹滿, 효천哮喘 등에 이용된다. 산초와는 약성이 다르므로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초나무

3. 약재 감별 기준점

1) 초피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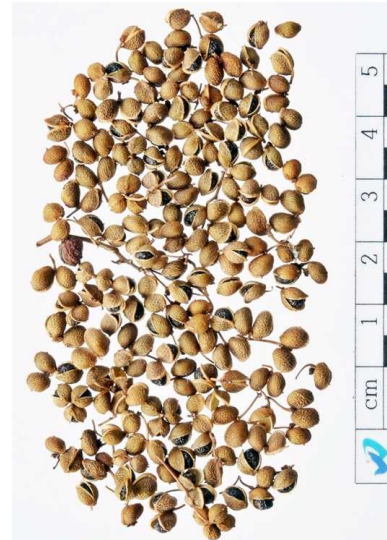
- 열매는 2~3개의 분과로 이루어지고, 어두운 황적색 내지 암적색이며, 외면에 오목한 작은 점처럼 보이는 유실油室이 많이 있고, 내면은 연한 황백색이다.
- 특유한 냄새가 있으며, 맛은 맵고 혀를 마비시킨다.

2) 산초나무

- 2~3개의 작은 열매가 상부에서 갈라지는 작은 골돌과로서, 회녹색~녹갈색이며, 외면에 유점이 많고 그물같은 주름이 뚜렷하다. 지름 0.3~0.4cm로 화초에 비해 작다.
- 특유한 냄새가 있으나 약하며, 맛은 약간 달고 후에 맵다.

3) 화초

- 대개 단생하는 1~2개의 골돌과로, 자홍색 또는 홍갈색이고, 외면에 사마귀 모양으로 돌기된 유점이 많다. 지름 0.4~0.5cm로 산초에 비해 크다.
- 특유한 냄새가 강하게 나며, 맛은 맵고 혀를 마비시키는 느낌이 오래 지속된다.



산초나무 과피



화초

4. 식물 검색표

- | | |
|---|------|
| 1. 가지에 가시가 어긋난다. | |
| 2. 소엽은 13~21개로 피침형이고, 열매는 녹갈색이다. | 산초나무 |
| 2. 소엽은 7~13개로 난형~난상피침형이고, 열매는 적색이다. | 화초 |
| 1. 가지에 가시가 마주나며, 소엽은 9~10개로 난형~난상피침형이고, 열매는 적갈색이다. | 초피나무 |

5. 약재 검색표

- | | |
|---|------|
| 1. 외과피에 사마귀 모양으로 돌기된 유점油點이 많고, 홍자색 혹은 홍갈색이다. | 화초 |
| 1. 외과피에 작은 유점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 |
| 2. 홍갈색이며 오목한 점 모양의 유점이 많으며, 맛이 맵다. | 초피나무 |
| 2. 녹갈색이며 외면이 그물같은 주름으로 덮여 있으며, 맛이 약간 달고 후에 맵다. | 산초나무 |



화초 과피



초피나무

산초나무

화초



초목

석고(石膏)

이 명 細石, 細理石, 軟石膏, 寒水石, 白虎

생약명 Gypsum Fibrosum

영문명 Gypsum

기 원 [한·중·일] 황산염광물 석고. 주로 황산칼슘 수화물(CaSO₄·2H₂O).

약 성 甘·辛, 大寒. 肺·胃經.

효 능 淸熱瀉火, 除煩止渴.

주 치 外感熱病, 高熱煩渴, 肺熱喘咳, 胃火亢盛, 頭痛, 牙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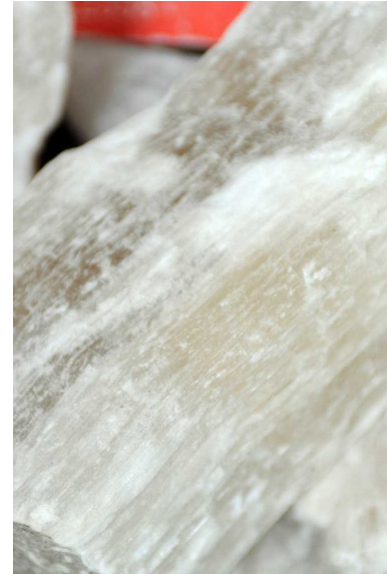
《신농본초경》 등 초기의 본초서에서는 많은 종류의 광물성 약재를 수록하고 있으나, 중금속 독성 등의 문제로 인해 광물성 약재 사용 빈도는 점차 감소하고 내복보다는 외용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내복약으로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광물성 약재로 석고를 들 수 있다.

천연 광물의 특성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현재까지도 내복약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석고의 경우, 흙, 모래, 각종 유기물, 황화물, 철이나 마그네슘 이온, 규산, 수산화알루미늄, 황산마그네슘 등이 불순물로 함유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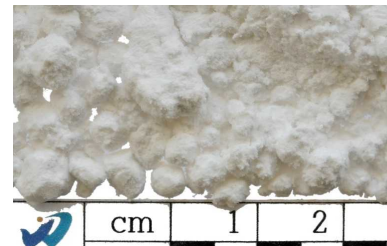
석고는 역사상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한약재로서, 뇌효雷黻와 소송蘇頌은 방해석方解石을 석고로 잘못 쓰지 않도록 경계하였으며, 이시진李時珍은 석고의 종류를 연석고, 경석고, 홍석고, 백석고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현재 석고의 정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함수황산칼슘, 즉 황산칼슘 수화물(CaSO₄·2H₂O)로서, 중국 후베이성의 응성應城에서 산출되는 것을 최상품으로 친다. 석고의 양품 기준은 ‘크고 백색이며 반투명하고, 단면이 섬유상으로 광택이 있으며 잡질이 없는 것’이다.

1. 석고의 기원과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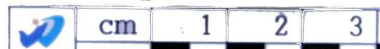
현재 모든 공정서에서는 황산칼슘 수화물만을 석고의 정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광물은 화학적 조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결정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석고는 황산칼슘수화물의 결정이 섬유처럼 일정 방향인 것만을 가리키며, 그렇지 않은 것은 별개의 약재인 한수석寒水石이 된다. 또한 석고가 오래 묵어서 멍쳐진 것을 현정석玄精石이라고 하며 그 주성분 또한 황산칼슘수화물이다. 그밖에도 이석理石, 장석長石, 방해석 등이 혼용되기도 하는데, 그 중 방해석이 가장 대표적인 위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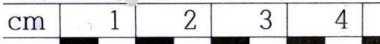
천연 석고



석고 가루



천연 방해석



방해석 음편

고방古方에서의 한수석은 응수석凝水石의 이명이고, 당·송대의 한수석은 석고(연석고)의 이명이며, 금·원대 이후의 한수석은 장석이나 방해석을 말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수석을 북한수석과 남한수석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 중 북한수석은 황산칼슘 수화물로서 홍석고, 남한수석은 탄산칼슘으로서 방해석을 말한다.

이석은 황산칼슘(CaSO₄)으로서 석고에 가까운 광물이며, 장석은 규산알루미늄염류[(K,Na,Ca,Ba)AlSi₃O₈]로서 석고와는 거리가 멀다. 한편 방해석은 탄산칼슘(CaCO₃)으로서 외형이 석고와 유사하다.

2. 약효 차이

약명	석고	방해석
성미	大寒, 辛·甘, 無毒	寒, 苦·辛, 無毒
귀경	肺, 胃	肺, 胃
효능	生用解肌清熱, 除煩止渴	清熱瀉火解毒
주치	熱病壯熱不退, 心煩神昏, 譫語發狂, 口渴咽乾, 肺熱喘急, 中暑自汗, 胃火頭痛, 牙痛, 熱毒壅盛, 發斑發疹, 口舌生瘡, 煨敷生肌斂瘡.	胸中煩熱, 口渴, 黃疸
구분	清熱藥(清熱瀉火藥)	清熱藥(清熱瀉火藥)

위와 같이 문헌적인 측면에서는 석고와 방해석의 효능이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랜 세월 서로 혼용되면서 비슷한 효능이 기재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성분이 완전히 다르므로 현대적인 비교실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약효 비교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품 석고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정품 석고는 단사정계單斜晶系에 속하는 **섬유상**의 집합체로서 긴 덩어리나 판 모양 또는 불규칙한 덩어리를 이루는 반면, 방해석은 유리와 같은 질감을 나타낸다. 석고의 색깔은 백색, 회백색 또는 담황색이며 반투명한 반면, 방해석은 황색을 많이 띤다. 석고는 묽은 염산을 가했을 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으나, 방해석은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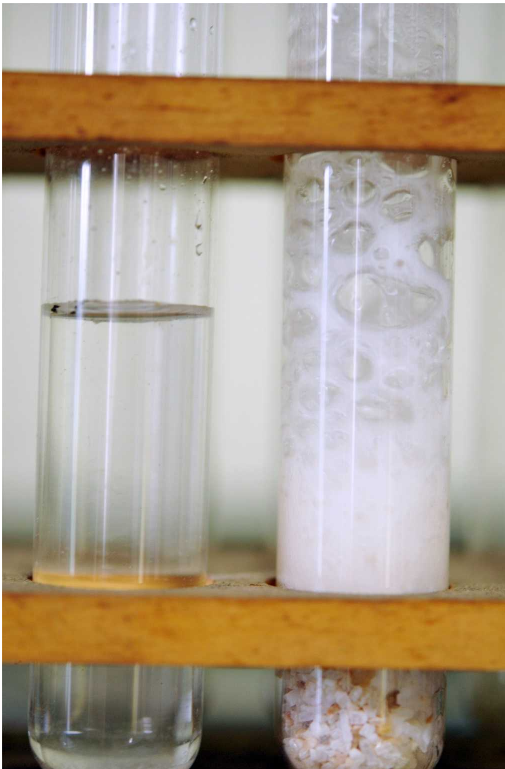
석고는 중단면에 섬유같은 무늬와 비단같은 광택이 있다. 무게는 무겁고 질감은 무르며, 손으로도 부스러뜨릴 수 있다. 경도는 1.5~2.0이고 비중은 2.3~2.37이다. 냄새와 맛이 거의 없으며, 물에 잘 녹지 않는다.

4. 광물 검색표

- | |
|---|
| 1. 탄산염류로서 결정이 규칙적이며, 유리 모양의 광택이 있다. 방해석 |
| 1. 황산염류로서 결정이 불규칙하며, 섬유상이거나(섬유석고) 무색투명하다(투명석고). 석고 |

5. 약재 검색표

- | |
|---|
| 1. 묽은 염산을 가했을 때 기포가 발생하며, 조각 모양이나 기둥 모양으로 무색 투명하다. 방해석 |
| 1. 묽은 염산을 가했을 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으며, 긴 덩어리 모양의 결정 취합체로 백색~담황색이며 반투명하다. 석고 |



염산 반응
(좌: 석고, 우: 방해석)

석류(石榴) 석류피(石榴皮)



석류나무



석류 열매(건조품)

석류

이 명 甜石榴, 天漿, 甘石榴

생약명 Granati Fructus

영문명 Pomegranate

기 원 [한] 부처꽃과 식물인 석류나무¹⁾의 열매.

약 성 甘·酸·澁, 溫.

효 능 生津止渴, 殺蟲.

주 치 咽燥口渴, 蟲積, 久痢.

석류피

이 명 石榴殼, 安石榴酸實殼, 酸石榴皮, 酸榴皮, 西榴皮

생약명 [한] Granati Cortex, [중] Granati Pericarpium

영문명 [한] Granate Bark, [중] Pomegranate Pericarp

기 원 [한] 석류나무의 줄기, 가지 및 뿌리의 껍질로 될 수 있는 대로 신선한 것을 씹.

[중] 석류나무의 잘 익은 열매껍질.

약 성 酸·澁, 溫. 大腸經.

효 능 澁腸止瀉, 止血, 驅蟲.

주 치 久瀉, 久痢, 便血, 脫肛, 崩漏, 帶下, 蟲積腹痛.

석류는 고대 이래 동서양에서 널리 사랑받은 과일로서, 특히 여성 건강에 탁월한 기능성 식품으로 애용되었다. 한약재로서는 그 열매와 열매껍질, 줄기나 뿌리의 껍질을 이용하며, 가을철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쓴다. 지혈 목적으로는 초탄炒炭하고, 민간에서는 쌀뜨물에 하루 정도 담가둔 뒤 쓰기도 한다.

1. 석류의 기원과 유통

우리나라에서는 열매를 석류, 줄기나 뿌리의 껍질을 석류피라고 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열매를 석류자, 열매껍질을 석류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석류피의 약용부위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실제 유통시장에서는 대부분 열매껍질이 ‘석류피’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며, 줄기나 뿌리의 껍질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석류피의 약용부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과거에는 석류나무과로 분류했다. 학명은 *Punica granatum* L.이다.

2. 약효 차이

약명	석류(酸石榴)	석류(括石榴)	석류피(뿌리껍질)	석류피(열매껍질)
성미	溫, 酸	溫, 甘·酸·澀	溫, 酸·澀	溫, 酸·澀
귀경	-			大腸
효능	止渴澀腸止血	生津止渴, 殺蟲	驅蟲, 澀腸, 止帶	澀腸止瀉, 止血, 驅蟲
주치	津傷燥渴, 滑瀉, 久痢, 崩漏, 帶下	咽燥口渴, 蟲積, 久痢	蛔蟲, 條蟲, 久瀉, 久痢, 赤白帶下	久瀉, 久痢, 便血, 脫肛, 崩漏, 白帶, 蟲積腹痛
구분	收澀藥(止瀉止血驅蟲藥)			



석류피(줄기껍질)

문헌에서는 열매의 맛에 따라 신맛인 산석류와 단맛인 침석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뿌리껍질과 열매껍질의 약성도 따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모두 대동소이한 약효이며, 구분에 큰 의미 없는 수준이다. 유통 시장에서도 열매껍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줄기껍질이나 뿌리껍질의 경우 채취 과정이 까다롭고 산출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열매껍질을 대표약재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1) 석류(열매)

- 구형으로, 지름 6~10cm이다.
- 껍질은 암홍색~적갈색이고 백색의 작은 돌기가 있으며, 껍질의 두께는 1.5~3mm이다.
- 끝부분에는 **통 모양의 목은꽃받침**이 있고, 기부에는 짧은 열매꼭지 또는 그 자국이 있다.
- **열매 안쪽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고, 그 안에는 작은 씨앗 주머니가 들어 있는데, 씨앗 주머니의 **둔하게 각진 종자**를 황색~적색의 과육이 둘러싸고 있다.
- 크고 모양이 일정한 것이 좋다.

2) 석류피(줄기·가지·뿌리의 껍질)

- 관상 또는 휘어진 껍질 조각으로, 길이 3~10cm, 두께 1~3mm이다.
- 줄기·가지껍질의 바깥면은 대개 **지의류가 붙어있던 흔적**이 보이며, 어두운 회갈색 또는 황색이고 세로 주름 무늬와 작은 피공이 보이고, 단면은 담황색이고 가는 주름 무늬가 있다.
- 뿌리껍질의 바깥면은 지의류의 흔적이 없으며, 담회갈색 혹은 토황색이고 갈색의 비늘 모양의 코르크층이 있고, 내표면은 암갈색이다.
- 냄새가 없고 맛은 수렴성이며 약간 쓰고 불쾌하다.
- 잡질이 없으며 큰 것이 좋다.



석류피(뿌리껍질)

3) 석류피(열매껍질)

- 불규칙한 조각 또는 표주박 모양으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두께 1.5~3mm이다.
- 외면은 홍갈색, 황갈색 또는 어두운 갈색으로 약간 광택이 있고 영성하며, 사마귀 같은 돌기가 많고, 돌출된 통 모양의 묵은꽃받침 및 열매꼭지나 그 흔적이 있다.
- 내면은 황색 또는 홍갈색으로 그물 모양으로 융기된 열매꼭지의 흔적이 있고, 종자가 있던 자리는 움푹하다.
- 질감은 단단하나 부스러지기 쉽고, 단면은 황색으로 약간 과립상을 나타낸다.
- 냄새는 없고 맛은 쓰고 떫다.
- 껍질이 두껍고 홍갈색으로 깨끗한 것이 좋다.



석류피(열매껍질)

속단(續斷)

천속단(川續斷¹⁾)

이 명 龍豆, 屬折, 接骨, 南草, 接骨草, 鼓錘草, 和尚頭, 川斷

생약명 Dipsaci Radix

영문명 Dipsacus Root

기 원 [한·중] 인동과 식물인 천속단²⁾의 뿌리.

약 성 苦·辛, 微溫. 肝腎經.

효 능 補肝腎, 強筋骨, 續折傷, 止崩漏.

주 치 肝腎不足, 腰膝酸軟, 風濕痹痛, 跌撲損傷, 筋傷骨折, 崩漏, 胎漏.

한속단(韓續斷)

이 명 糙蘇, 山蘇子, 續斷, 山芝麻

생약명 Phlomidis Radix

기 원 [한] 꿀풀과 식물인 속단풀³⁾의 뿌리.

약 성 辛, 平.

효 능 祛風化痰, 利濕除痹, 祛痰, 解毒消腫.

주 치 感冒, 咳嗽痰多, 風濕痹痛, 跌打損傷, 瘡癰腫毒.

속단은 보익약으로서 보간신補肝腎, 강근골強筋骨하여 간신부족肝腎不足으로 인한 요슬산통腰膝酸痛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약재이며, 아울러 안태安胎 작용을 나타내므로, 예로부터 ‘상과傷科와 부과婦科의 상용지품常用之品’이라고 하였다. 《신농본초경》의 상품上品에 ‘속절접골續折接骨’의 약효가 있는 것으로 기록된 이후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 그 기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오기도 했다.

속단의 약용부위는 2년 이상 된 뿌리로서, 가을에 채취하여 약한 불을 쪄서 말리다가 반쯤 마르면 쌓아두어 ‘발한發汗’시켜 내부가 녹색이 되도록 한 뒤, 다시 불에 쪄서 말린다. 이는 햇볕에 말릴 경우 절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천속단

- 1) 각국 약전에서는 ‘속단’이라는 약명으로 수재하고 있으나, 한속단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천속단’으로 적는다.
- 2) 과거에는 산토끼꽃과로 분류했다. 학명은 *Dipsacus asper* Wall. ex DC.(=*D. asperoides* C.Y.Cheng & T.M.Ai)이다.
- 3) 일반적으로 식물명을 ‘속단’이라 하나, 약명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속단풀’로 적는다. 학명은 *Phlomis umbrosa* (Turcz.) Kamelin & Makh m.(=*Phlomis umbrosa* Turcz.)이다.



산토끼꽃(토속단)

1. 속단류의 기원과 유통

‘속단’이라는 이름의 약재는 우리나라와 중국·대만의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는데 모두 인동과 식물인 천속단의 뿌리만을 정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속단’이라는 이름으로 꿀풀과 식물인 속단풀의 뿌리를 따로 수재하고 있다.

천속단은 중국 서남부와 인도·미얀마에 분포하며 주로 중국 쓰촨성에서 재배되고, 한속단은 우리나라와 중국 동북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 시장에서 ‘중국산 속단’은 천속단, ‘국산 속단’은 한속단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는 한속단을 조소蕪蘇라고 부른다.

한편 분류학적으로 천속단과 같은 속에 속하는 산토끼꽃¹⁾은 한·중·일 3국에 분포하는데, 이를 일본속단 또는 토속단土續斷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2. 약효 차이

약명	천속단·토속단	한속단
성미	苦·辛, 微溫	辛, 平
귀경	肝, 腎	
효능	補肝腎, 強筋骨, 調血脈, 止崩漏	祛風化痰, 利濕除痹, 祛痰, 解毒消腫
주치	腰背酸痛, 肢節痠痺, 跌撲創傷, 損筋折骨, 胎動漏紅, 血崩, 遺精, 帶下, 癰疽瘡腫	感冒, 咳嗽痰多, 風濕痺痛, 跌打損傷, 瘡癰腫毒
구분	補益藥(補陽藥)	清熱藥(清熱燥濕藥)

많은 문헌에 천속단과 토속단의 효능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분류학적으로 같은 속에 속하는 매우 가까운 식물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과에 속하는 한속단의 경우 약성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천속단·토속단은 보양약에 속하며, 한속단은 청열조습약에 속하므로, **한속단을 천속단의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토속단의 경우 현재 각국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천속단과의 효능 비교를 거쳐 공정서에 수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1) 천속단

- 전형 약재일 때 외형은 원주형이면서 약간 납작하고, 표면은 황갈색 또는 회갈색이며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1) 학명은 *Dipsacus japonicus* Miq.이다.

- 질감이 연하여 쉽게 절단되며, 단면은 황갈색이고 도관이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2) 토속단

- 외형은 천속단과 유사하며, 표면이 황토색이고 한 가닥으로 반듯하다.
- 질감은 비교적 단단하며 쉽게 잘라지지 않으며, 단면에는 흑갈색의 고리 무늬가 있다.

3) 한속단

- 전형 약재일 때 외형은 전체적으로 윗부분이 가늘고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굵어지는 모습이 특징이다.
- 질감은 약하여 쉽게 절단되며, 단면은 피부部가 좁고 목部木部가 넓으며 수선線이 수레바퀴 모양이고 찢어진 틈이 많다.

4. 식물 검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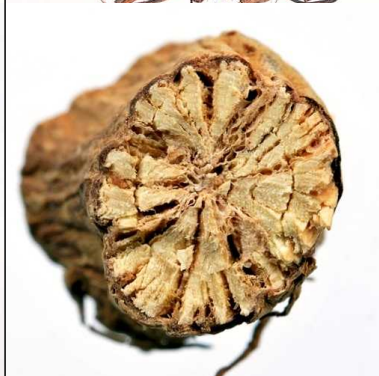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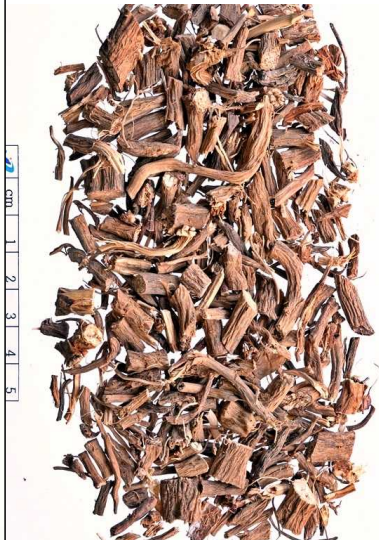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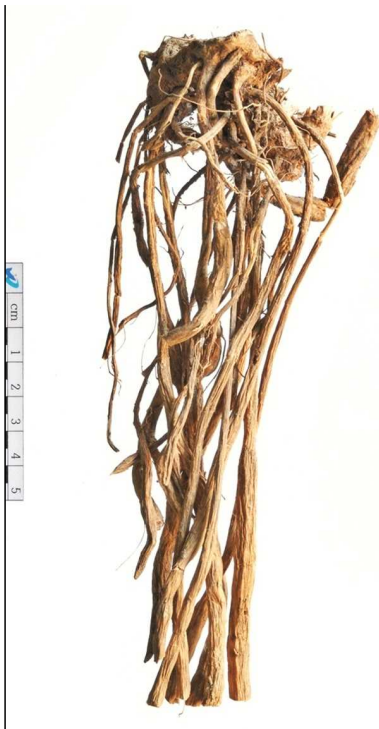
- | | |
|--|-----------|
| 1. 잎이 마주나며 깃꼴로 깊이 갈라지고, 흰색의 가시같은 털이 있으며, 꽃차례는 공 모양의 두상화서이다. | |
| 2. 줄기에 6-8개의 홈이 있으며, 잎에 찢꼭지 모양의 가시같은 털이 있고, 꽃은 흰색이나 연한 황색이며, 꽃받침은 그릇 모양이다. | 천속단 |
| 2. 줄기에 4-6개의 홈이 있으며, 잎에 찢꼭지 모양의 가시같은 털은 없고, 꽃은 자홍색이며, 꽃받침은 얇은 쟁반 모양이다. | 산토끼꽃(토속단) |
| 1. 잎이 마주나며 갈라지지 않고, 거친 털이 있으며, 꽃은 줄기 끝이나 잎 겨드랑이에 윤산화서로 난다. 줄기는 단면이 사각형이며, 꽃은 흰색 또는 분홍색이다. | 속단풀(한속단) |

5. 약재 검색표

- | | |
|---|-----|
| 1. 전체 모양이 원주형이며, 가로 방향으로 피공皮孔이 줄지어 있다. | |
| 2. 약간 납작하며, 목부木部는 방사상으로 배열하며, 절단하기 쉽다. | 천속단 |
| 2. 갈라지지 않고 한 가닥으로 반듯하며, 목부에는 흑갈색의 고리 무늬가 있고, 절단하기 어렵다. | 토속단 |
| 1. 전체 모양이 송곳같은 원주형으로 아랫부분이 굵어지며, 절단하기 어렵고 단면에는 수레바퀴 무늬의 수선線이 있다. | 한속단 |



속단풀(한속단)



천속단

토속단

한속단

오매(烏梅)

이 명 梅實, 黑梅, 熏梅, 桔梅肉

생약명 Mume Fructus

영문명 Dark Plum Fruit

기 원 [한] 장미과 식물인 매실나무¹⁾의 덜 익은 열매로서 연기를 쪄낸 것.

[중] 매실나무의 거의 익은 열매를 말린 것. 열을 가해 저온건조한 다음 검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밀폐해둔다.

[일] 매실나무의 덜 익은 열매를 훈제하거나 쪄서 말린 것.

약 성 酸·澀, 平. 肝·脾·肺·大腸經.

효 능 斂肺, 澀腸, 生津, 安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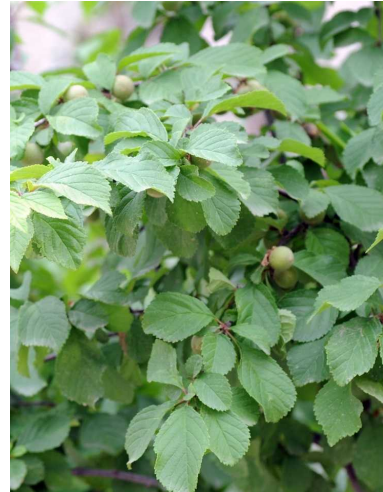
주 치 肺虛久咳, 久瀉久痢, 虛熱消渴, 蛔厥嘔吐腹痛.

매실은 덜 익은 열매(청매靑梅)를 발효식품으로 활용하는 등 식품으로도 중요한 자원이며, 한의학에서는 수삼收澁의 효능을 가진 대표적인 한약재(오매)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열매로 만든 위품이 유통되기도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오매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청매를 벗겼이나 왕겨로 훈연하여 검은색이 될 때까지 말린 다음 거핵去核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든 오매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강하게 난다. 그런데 이 방식은 고온에 의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형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청매를 40°C의 저온에서 2~3시간 정도 말려 황갈색으로 주글주글하게 되도록 한 뒤, 2~3일 동안 뚜껑을 덮고 열을 가해 검은색으로 변하게 한 뒤 거핵하여 사용한다.

또한 이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하여, 건조기에서 50°C로 말리고 2~3일 동안 보관한 뒤 포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매는 비록 검은색이 아니지만 벤조피렌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청매를 밤에는 소금물에 담갔다가 낮에는 햇볕에 말리기를 10일간 반복하여 표면에 흰색의 결정이 생기도록 하는데, 이것을 백매白梅라 하여 식용 또는 약용한다.

한·중·일 3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늦은 봄에 열매가 익기 시작할 때 채취한다. 오매는 크고 과육이 두껍고 고르며 흑색이고 맛이 신 것이 좋다.



매실나무

1) 학명은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Armeniaca mume* Siebold)이다.



오매 약재



오매 약재(확대)



오매 약재(절단)

1. 오매의 기원과 유통

각국 공정서에서는 매실나무의 덜 익은(또는 거의 익은) 열매를 오매의 정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건조방식은 다소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실나무와 같은 벚나무속(*Prunus*)에 속하는 다른 열매, 즉 개복숭아¹⁾, 살구²⁾, 자두³⁾ 등을 혼연해서 만든 위품이 유통되기도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약효 차이

개복숭아, 살구, 자두 등을 혼연한 것에 대한 효능 기록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각 열매 자체의 효능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약명	매실(오매)	매실(청매)	개복숭아(桃子)	살구(杏子)	자두(李子)
성미	酸·澁, 溫	酸, 平	甘·酸, 溫	甘·酸, 溫	甘·酸, 平
귀경	肝, 脾, 肺, 大腸	肺, 胃, 大腸		肺, 心	肝, 脾, 胃
효능	潤腸, 生津, 斂肺, 安蛔	利咽, 生津, 潤腸止瀉, 利筋脈	生津, 潤腸, 活血, 消積	潤肺定喘, 生津止渴	清熱生津, 消積
주치	肺虛久咳, 虛熱消渴, 蛔厥嘔吐腹痛, 久痢滑腸, 膽道蛔蟲症	咽喉腫痛, 喉痺, 津傷口渴, 瀉痢, 筋骨疼痛	津少口渴, 腸燥便秘, 閉經, 積聚	肺燥咳嗽, 津傷口渴	虛勞骨蒸, 消渴, 食積
구분	收澁藥 (潤腸斂肺藥)	收澁藥 (潤腸斂肺藥)	瀉下藥 (潤下藥)	化痰藥 (止咳平喘藥)	清熱藥 (清熱瀉火藥)

위의 도표와 같이, 오매와 기타 유사 열매들의 효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열매로서의 효능이 이와 같이 다르다면, 혼제과정을 거친 다음의 효능은 더욱 추정하기 어려운 차이를 나타낼 것이므로, 철저한 구분을 필요로 한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오매는 구형이나 납작한 구형에 가까운 불규칙한 모양으로 길이 2~3cm, 지름 1.5~3cm이다. 표면은 검은색 또는 **흑갈색으로 쭈글쭈글**하고 고르지 않으며 윤기가 없고 **아래쪽에는 원형의 열매꼭지 흔적**이 있다. 과육은 부드럽고 과육안에 길이 1~1.4cm, 너비 1cm, 두께 0.5cm 가량 되는 타원형의 딱딱한 과핵이 있는데, 황갈색이며 표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그물 모양**을 이룬다. 과핵 안에 든 종자는 납작한 달걀모양으로 담황색이다. 오매는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시다.

- 1) 식물명은 일반적으로 ‘산복사나무’라고 한다. 학명은 *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이다.
- 2) 학명은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이다.
- 3) 학명은 *Prunus salicina* Lindl.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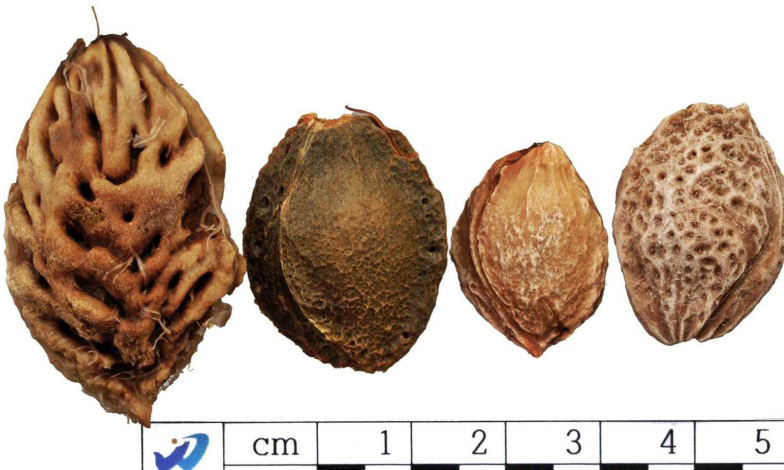
4. 식물 검색표

- | | |
|--|-------------|
| 1. 열매에 털이 있다. | |
| 2. 잎이 달걀모양이다. | |
| 3. 잎의 양면에 유모柔毛가 있으며, 꽃은 연한 녹색을 띤 흰색이다. | 매실나무 |
| 3. 잎의 양면에 털이 없으며, 꽃은 연한 분홍색이다. | 살구나무 |
| 2. 잎이 피침형 또는 달걀꼴 피침형이며, 꽃은 연한 홍색이다. | 산복사나무(개복숭아) |
| 1. 열매에 털이 없으며, 꽃이 흰색이다. | 자두나무 |

5. 약재 검색표

일부 유통 시장에서 혼입되어 있는 개복숭아, 살구, 자두 등의 혼제 열매는 외형만으로는 쉽게 구분하기 힘들다.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물에 불려 과육을 제거한 뒤, 과핵의 표면을 다음의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 | |
|---|
| - 매실 : 과핵 표면에 작은 구멍들의 모습이 그물 모양을 이룬다. |
| - 개복숭아 : 과핵 표면에 불규칙하고 깊은 골과 구멍이 있다. |
| - 살구 : 과핵 표면이 매끄럽고 한쪽 면에 깊고 두터운 골이 있다. |
| - 자두 : 과핵 표면은 옅은 그물 무늬가 있으며, 기부가 뚜렷한 비대칭이다. |



과핵 비교 : 개복숭아, 살구, 자두, 매실

옥죽(玉竹) 황정(黃精)



등굴레(옥죽)



옥죽(건조 전)



옥죽(절단면)

옥죽

이 명 莢, 萎蕤, 女萎, 萎菴, 葳蕤, 玉馬, 節地, 蟲蟬, 烏菱, 青粘, 地節, 萎蕤, 馬熏, 葳參, 玉朮, 菱香, 山玉竹, 筆管子, 十樣錯, 竹七根, 竹節黃, 黃脚雞, 百解藥, 山薑, 黃蔓菁, 尾參, 連竹, 西竹

생약명 Polygonati Odorati Rhizoma

영문명 Fragrant Solomonseal Rhizome

기 원 [한] 아스파라거스과¹⁾ 식물인 등굴레²⁾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땅속줄기.

[중] 풍도등굴레³⁾의 땅속줄기를 말린 것.

약 성 甘, 微寒. 肺·胃經.

효 능 養陰潤燥, 生津止渴.

주 치 肺胃陰傷, 燥熱咳嗽, 咽乾口渴, 內熱消渴.

황정

이 명 龍銜, 白及, 免竹, 垂珠, 鷄格, 米脯, 菟竹, 鹿竹, 重樓, 救窮, 戊己芝, 萎蕤, 苟格, 馬筋, 仙人餘糧, 氣精, 黃芝, 生薑, 野生薑, 米舖, 野仙薑, 山生薑, 玉竹黃精, 白及黃精, 陽雀蕨, 土靈芝, 老虎薑, 山搗臼, 鷄頭參, 懶薑

생약명 Polygonati Rhizoma

영문명 Solomonseal Rhizome

기 원 [한·일] 층층갈고리등굴레⁴⁾, 진황정⁵⁾, 진황정演黃精⁶⁾ 또는 다화황정多花黃精⁷⁾의 땅속줄기를 쥔 것.

[중] 진황정, 층층갈고리등굴레 또는 다화황정의 땅속줄기를 찌거나 데쳐서 말린 것.

약 성 甘, 平. 脾·肺·腎經.

효 능 補氣養陰, 健脾, 潤肺, 益腎.

주 치 脾胃氣虛, 體倦乏力, 胃陰不足, 口乾食少, 肺虛燥咳, 癆嗽咳血, 精血不足, 腰膝酸軟, 鬚髮早白, 內熱消渴.

옥죽과 황정은 보음약補陰藥에 속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서, 아스파라거스과의 등굴레속(*Polygonatum*)에 속하는 식물의 땅속줄기를 약용부위로 한다. 등굴레속에 속하는 식물이 많고 문헌과 경험에 따라 약명과

1) 과거에는 백합과로 분류했으며, 현재도 넓은 의미의 백합과로 분류하기도 한다.

2) 학명은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이다.

3) 학명은 *Polygonatum odoratum* (Mill.) Druce이다.

4) 학명은 *Polygonatum sibiricum* F.Delaroche이다.

5) 학명은 *Polygonatum falcatum* A.Gray이다.

6) 학명은 *Polygonatum kingianum* Collett & Hemsl.이다.

7) 학명은 *Polygonatum cyrtoneura* Hua이다.

이명도 매우 다양하므로 기원·효능에 논란이 있는 한약재이기도 하다.

식품으로서의 등굴레차로 이용되는 것이 대표적이며, 중국 광둥 지방의 기능성 음료인 청보량淸補涼의 원료로 들어가지도 한다(玉竹 沙蔘 蓮子 山藥 百畝 白扁豆 등). 최근에는 강심 작용이 입증되어 임상에서 응용되기도 한다. 봄과 가을에 채취하며, 보통 찌서 말려 사용한다.

1. 옥죽·황정의 기원과 유통

1) 옥죽

우리나라에서는 등굴레를, 중국에서는 등굴레의 원변종인 풍도등굴레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며, 등굴레와 풍도등굴레는 변종 관계이므로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중·일·몽골·러시아 등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다.

2) 황정

황정의 경우 한·중·일 3국 모두 층층갈고리등굴레, 전황정, 다화황정을 기원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기에 진황정을 추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약재의 외형에 따라 대황정大黃精, 계두황정雞頭黃精, 강형황정薑形黃精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이 중 대황정은 주로 전황정을, 계두황정은 주로 층층갈고리등굴레를, 강형황정은 주로 다화황정을 가리킨다.

산지를 보면, 층층갈고리등굴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북부와 몽골·러시아에, 전황정은 중국 남부와 동남아 지역에, 다화황정은 중국 남부에, 진황정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황정은 주로 층층갈고리등굴레이다.

한약재로서 옥죽과 황정의 상품上品은, 크기가 크고 윤기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위에서 식물학적 종에 따라 옥죽과 황정을 구분했지만, 관습적으로는 종에 무관하게 땅속줄기가 크고 굵으며 색깔이 황색이고 단면에 광택이 있고 투명하며 녹진녹진하면 ‘황정’으로, 그에 비해 크기가 작고 빈약한 것은 ‘옥죽’으로 유통되었으며, 이는 현재에도 통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원종에 따라 외형이나 성분에서의 차이는 분명하다.



층층갈고리등굴레



진황정



전황정



다화황정

2. 약효 차이

약명	황정	옥죽
성미	平 甘 無毒	微寒 甘 無毒
귀경	脾 肺 腎	肺 胃
효능	補氣養陰, 健脾, 潤肺益腎	養陰潤燥, 生津止渴
주치	虛損寒熱, 肺癆咳血, 病後體虛食少, 筋骨軟弱, 脾胃虛弱, 食欲不振, 風濕疼痛, 消渴	熱病陰傷, 咳嗽煩渴, 虛勞發熱, 消穀易飢, 小便頻數, 消渴
구분	補益藥(補陰藥)	補益藥(補陰藥)

위와 같이, 황정과 옥죽은 기미에서의 약간의 차이(황정은 평부, 옥죽은 미한(微寒)를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양음윤조(養陰潤燥)의 효능이 있어 폐위상음(肺胃陰傷)으로 인한 병증에 응용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황정은 보중기(補中氣)·익신정(益腎精)하는데 약성이 지나(滋膩)하여 습사(濕邪)를 조장할 수 있는 폐단이 있는 반면, 옥죽은 자음생진(滋陰生津) 작용이 있으나 사기(邪氣)를 유체(留滯)시키지 않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보음력(補陰力) 측면에서는 황정이 더 우수하며, 옥죽은 그에 못미치는 대신 소화부담을 덜 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옥죽의 경우 문헌에 따라 ‘인삼의 대응으로 한다’, ‘인삼·황기의 대응으로 한다’는 식의 기록이 있으나, 이는 옥죽의 자보(滋補) 효능을 과대평가한 내용이다. 실제로 옥죽의 자보 효능은 황정에 못미치며, 윤조(潤燥) 효능은 맥문동보다 못하다. 따라서 옥죽으로 충분한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대량을 사용해야 한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자연 상태에서는 약용부위인 땅속줄기의 비후 정도가 옥죽(등굴레)은 황정류에 비해 가늘고 빈약하다. 그러나 재배기술의 발달로, 현재 재배되는 옥죽은 자연 상태의 황정에 비해서도 더 비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진황정과 동일, 층층갈고리등굴레에 버금가는 수준).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비후 정도와 진액 함유량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황정류 4종은 주로 모양에 따라 구분되며(층층갈고리등굴레는 닭 머리 모양, 전황정은 큰 덩어리 모양, 다화황정은 생강 모양, 진황정은 막대 모양), 효능 차이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문헌 기록을 준용하여, 맛을 기준으로 **단맛이 많을수록 좋은 약재**라고 할 수 있다.

4. 식물 검색표

1) 옥죽과 황정의 구분

- | | |
|--|--------------|
| 1. 잎은 돌려나기 하고 잎끝이 말리며, 줄기에는 모서리가 없고, 2~4개의 꽃이 돌려난다. | 층층갈고리등굴레(황정) |
| 1. 잎은 어긋나기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며, 줄기에 모서리가 있고, 꽃은 1~2개씩 난다. | 등굴레(옥죽) |



2) 황정류의 구분

- | | |
|---|----------|
| 1. 잎이 돌려나기 한다. | |
| 2. 꽃이 백색이며 2개 정도씩 달리고, 잎끝이 말린다. | 층층갈고리등굴레 |
| 2. 꽃이 분홍색이며 1~7개씩 달리고, 잎끝이 말린다. | 전황정 |
| 1. 잎이 어긋나기 한다. | |
| 3. 잎이 피침형이고(대잎 모양), 꽃은 녹백색으로 1~5개씩 달린다. .. | 진황정 |
| 3. 식물체가 크고 잎이 타원형으로 끝이 점차 뾰족해지며, 꽃은 녹백색으로 1~7개씩 달린다. | 다화황정 |



옥죽

5. 약재 검색표

1) 옥죽과 황정의 구분 (1)

- | | |
|---|----|
| 1. 불규칙한 원추형으로 길고 굵으며, 외면은 황백색~황갈색이고 단면은 담갈색이다. | 황정 |
| 1. 가늘고 긴 원추형으로 짧고 가늘며, 외면은 담황색~담황갈색이고 단면은 황백색이다. | 옥죽 |



2) 옥죽과 황정의 구분 (2)

- | | |
|--|----|
| 1. 원추형으로 지름 1.5cm 이상의 육질이 풍부한 결절상이며, 마디 사이가 2~4cm이다. | 황정 |
| 1. 긴 원추형으로 지름 1.5cm 이하이며 육질이 풍부하지 않고, 마디 사이의 길이는 1~1.5cm이다. | 옥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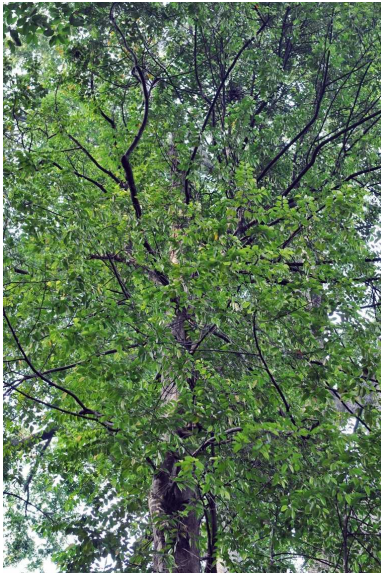


황정

3) 황정류의 구분

- | | |
|---|----------|
| 1. 전체적으로 원추형이다. | |
| 2. 구부러진 막대 모양이며, 마디 사이가 2~4cm이다. | 층층갈고리등굴레 |
| 2. 고리 모양으로 육질이 풍부하며, 마디 사이가 10cm 정도이다. | 전황정 |
| 1. 전체적으로 결절상의 원추형이다. | |
| 3. 반듯한 막대 모양이며, 마디 사이가 1~2cm로 짧다. | 진황정 |
| 3. 생강과 비슷한 모양이며, 마디 사이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 | 다화황정 |

용뇌(龍腦) 장뇌(樟腦)



용뇌향나무



용뇌향나무 줄기의 상처

용뇌¹⁾

이 명 梅花冰片, 龍腦香, 腦子, 冰片, 片腦, 冰片腦, 梅花腦, 天然冰片, 老梅片, 梅片

생약명 Borneolum

영문명 Borneol

기 원 이우시과 식물인 용뇌향나무²⁾의 줄기 상처에서 흘러 나온 수지 또는 나무줄기와 가지를 썰어 수증기 증류하여 얻은 백색의 결정체.

약 성辛苦, 凉. 心·肺經.

효 능 開竅醒神, 散熱止痛, 明目去翳.

주 치 中風口噤, 熱病神昏, 驚癇痰迷, 氣閉耳聾, 目赤翳膜, 喉痺, 口瘡, 癰腫, 痔瘡, 蟻蟲病.

장뇌³⁾

이 명 天然冰片, 韶腦, 潮腦, 腦子, 油腦, 樹腦

생약명 Camphorum

영문명 Camphor

기 원 녹나무과 식물인 녹나무⁴⁾의 목부, 가지 또는 잎을 절단하여 수증기증류하여 얻은 장뇌유樟腦油를 냉각시켜 석출한 결정체.

약 성辛, 熱, 小毒. 心·脾經.

효 능 通竅辟穢, 殺蟲止痒, 消腫止痛.

주 치 熱病神昏, 中惡猝倒, 痧脹吐瀉腹痛, 寒濕脚氣, 疥瘡頑癬, 禿瘡, 凍瘡, 膿瘡, 水火燙傷, 跌打傷痛, 牙痛, 風火赤眼.

용뇌와 장뇌는 식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 한약재로서, 거의 순수한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합성해서 만들 수도 있는 물질이다. 용뇌의 구성성분은 주로 이소보르네올(*d,l-isoborneol*, $C_{10}H_{18}O$)과 *d*-보르네올(*d-borneol*, $C_{10}H_{18}O$)이며, 장뇌의 주성분은 캠퍼(camphor, $C_{10}H_{16}O$)이다.

용뇌는 개규성신開竅醒神의 효능으로 우황청심원牛黃清心元 등에 응용되며, 장뇌는 주로 외용으로 개선창양疥癬瘡瘍 등에 응용되는 구분이 있으나, 실제 유통 시장에서는 용뇌와 장뇌의 구별이 엄정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상 기준에서도, 용뇌는 ‘무색 투명하거나 백색 반투명한 판모양 또는 입상을 이루고 결정편이 부스러져 가루로 된 것도 있다’, 장뇌는

- 1) 대만중약전에는 ‘빙편’, 중약대사전에는 ‘매화빙편’이라는 약명으로 수제되어 있다.
- 2) 학명은 *Dryobalanops sumatrensis* (J.F.Gmel.) Kosterm.(=*D. aromatica* C.F.Gaertn.)이다.
- 3) 중국약전에는 ‘천연빙편’이라는 약명으로 수제되어 있다.
- 4) 학명은 *Cinnamomum camphora* (L.) J.Presl이다.

‘무색~흰색 반투명의 가는 입자, 결정성 분말 또는 덩어리모양으로 실온에서 천천히 휘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1. 용뇌·장뇌의 기원과 유통

우리나라에서는 용뇌를 빙편冰片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은데, 중국에서는 합성 보르네올을 빙편이라고 하며, 장뇌를 가공한 것을 천연빙편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시장에는 용뇌, 장뇌 및 합성 보르네올까지 ‘빙편’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시장 유통품의 대부분은 합성빙편). 그리고 중국에서는 천연빙편을 우선용뇌右旋龍腦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와 대조해 좌선용뇌左旋龍腦라 불리는 것으로 애편艾片이라는 약재도 있어 더욱 혼란을 일으킨다. 이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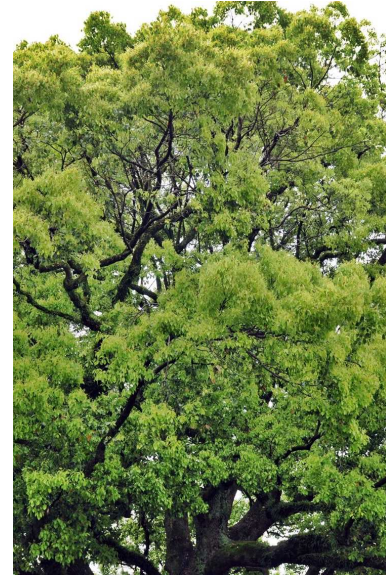
- **용뇌** : 이우시과 식물인 용뇌향나무로부터 추출 정제한 것. 다른 말로 매화빙편梅花冰片 또는 매편梅片이라고 함. 주로 이소보르네올과 *d*-보르네올.
- **빙편** : 우리나라와 대만에서는 용뇌를, 중국에서는 합성빙편을 가리킴.
- **합성빙편** : 송절유(테레빈유) 등을 재료로 삼아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 *d*-보르네올과 *l*-보르네올을 모두 함유함.
- **장뇌** : 녹나무과 식물인 녹나무로부터 추출 정제한 것. 주로 캄페.
- **천연빙편** : 녹나무과 식물인 녹나무로부터 추출 가공한 것. 다른 말로 우선용뇌라고 함. 주로 *d*-보르네올.
- **애편** : 국화과 식물인 애남향艾納香¹⁾으로부터 추출 정제한 것. 중국에서는 좌선용뇌라고도 함. 주로 *l*-보르네올.

2. 약효 차이

약명	용뇌	장뇌
성미	辛·苦, 涼	辛, 熱, 小毒
귀경	心·肺經	心·脾經
효능	開竅醒神, 散熱止痛, 明目去翳	通竅辟穢, 殺蟲止痒, 消腫止痛
주치	中風口噤, 熱病神昏, 驚癇痰迷, 氣閉耳聾, 目赤翳膜, 喉痺, 口瘡, 癰腫, 痔瘡, 蟻蟲病	熱病神昏, 中惡猝倒, 痧脹吐瀉腹痛, 寒濕腳氣, 疥瘡頑癬, 禿瘡, 凍瘡, 膿瘡, 水火燙傷, 跌打傷痛, 牙痛, 風火赤眼
구분	開竅藥(寒性開竅藥)	開竅藥(熱性開竅藥)

위의 도표는 《중약대사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중화인민공화국약전》에서는 천연빙편과 애편 또한 용뇌와 동일한 약성을 지닌 것으로

1) 학명은 *Blumea balsamifera* (L.) DC.이다.



녹나무



용뇌
(결정)



장뇌
(과립같은 결정이 뭉친 것)

기록하고 있다.

각 약재의 주성분을 단순화하면 장뇌는 [캬퍼], 애편은 [*l*-보르네올], 합성빙편은 [*l*-보르네올 + *d*-보르네올], 용뇌는 [*l*-보르네올 + *d*-보르네올], 천연빙편은 [*d*-보르네올]로 정리된다. 캬퍼의 경우 상당히 강한 독성이 있으며(2g 이상 내복시 대뇌피질에 직접적인 흥분 작용을 일으킴), 보르네올 종류는 비교적 독성이 약하다. *d*-보르네올과 *l*-보르네올은 광학 이성질체 관계로서, 분자량은 동일하지만 생물학적 감수성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각 보르네올 종류별 독성 차이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용뇌, 천연빙편, 합성빙편, 애편은 성분이 서로 유사하여 동일선상에서 활용할 수 있겠으나, 장뇌는 성분이 전혀 다르고 독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문헌에 기록된 각 약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용뇌

- 반투명한 둥근 덩어리 또는 조각, 과립상의 결정이 매화꽃을 연상시킨다.
- 각 결정은 보통 지름 1~8mm, 두께 1~2mm로 미색 또는 연한 회갈색이다.
- 손으로 비비면 부서져 흰색의 가루가 되어 휘산한다.
- 현미경으로 볼 때 결정은 막대 모양 또는 다각형이다.
- 휘발성이 있어 청량한 향기가 있고 입에 넣고 씹으면 청량감이 있으며 서서히 녹는다.
- 불에 태우면 검은 연기가 조금 나거나 전혀 나지 않는다.

2) 합성빙편

- 눈송이와 같이 하얗고, 반투명의 얇은 조각의 결정으로 광택이 있다.
- 각 결정은 지름 6~15mm, 두께 1.5~3mm로 백색의 표면에 겹겹이 갈라지는 무늬가 있다.
- 성글고 약하여 손으로 문지르면 쉽게 부서져 흰 가루가 된다.
- 휘발성이 있어 청량한 향기가 있고 맵고 시원한 맛이 난다.
- 불에 태우면 검은 연기가 나며 빛나는 화염을 볼 수 있다.
- 에탄올, 클로로포름, 에테르에 쉽게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는다.

3) 애편

- 합성빙편과 비슷하나 색깔이 약간 청백하고, 표면에 겹겹이 갈라지는 무늬가 없다.

- 질이 단단하여 손으로 비벼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 향기는 병편과 같이 강하고 시원하지만 약간 덜하면서 은은하다.
- 태우면 검은 연기가 난다. 승화시키면 반투명한 덩어리가 된다.

4) 장뇌

- 무색 또는 백색의 반투명의 가는 입자이고 더러는 결정성 분말이나 덩어리 모양이다. 조제품은 약간 황색을 띠고 광택이 난다.
- 특유한 캄파향이 있으며, 혀 끝에 닿으면 처음에는 맵고 시나 뒤에 약간 쓰고 시원한 맛이 난다.
- 실온에서 천천히 휘산한다.
- 서서히 태우면 진한 연기가 나며 밝은 불꽃을 내면서 탄다.



장뇌 연소 시험

이상을 종합하면,

- 용뇌는 미색이고(다른 3종은 백색), 불에 태웠을 때 검은 연기가 조금 나거나 전혀 나지 않고, 청량한 맛이 다른 3종에 비해 약한 것으로 구분된다. 실제 관능검사 기준도 이를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검사이므로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이다.
- 실제 유통되는 것은 대부분 합성병편이며, 장뇌는 독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감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향후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구분법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한다.

4. 식물 검색표

용뇌의 기원종인 용뇌향나무와 장뇌의 기원종인 녹나무의 식물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 |
|--|
| 1. 잎맥은 깃털처럼 갈라진다. 꽃은 흰색이고, 열매는 가장자리에 5갈래의 날개 같은 묵은꽃받침이 붙어 있다. 용뇌향 |
| 1. 잎맥은 3~5갈래로 번는다. 꽃은 황록색이고, 열매는 장과漿果로서 구형이다. 녹나무 |

용안육(龍眼肉)



용안나무

이 명 龍眼, 益智, 比目, 木彈, 驪珠, 燕卵, 鮫淚, 圓眼, 蜜脾, 桂圓, 圓眼肉

생약명 Longan Arillus

영문명 Longan Aril

기 원 [한·중·일] 무환자나무과 식물인 용안나무¹⁾의 첫씨껍질.

약 성 甘, 溫. 心·脾經.

효 능 補益心脾, 養血安神.

주 치 氣血不足, 心悸怔忡, 健忘失眠, 血虛萎黃.

용안육은 보혈약補血藥에 속하는 한약재로서, 열매 자체도 세계적으로 널리 식용하는 열대과일이다(흔히 ‘롱간’이라고 함). 용안육의 약용부위는 첫씨껍질(가중피)인데, 용안나무 열매의 과육처럼 보이는 부분을 가리킨다. 용안나무는 중국 남부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유사한 무환자나무과 열대과일인 여지(리치)²⁾가 용안육으로 혼입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용안육은 여름과 가을에 열매로부터 과육을 채취하여 생용하거나, 말려서 사용한다. 한약재 기준으로 상품上品은 ‘알이 크고 살이 두텁고 질감이 세밀하고 부드러우며 황색으로 반투명하고 단맛이 강한 것’이다.

1. 용안육의 기원과 유통

모든 공정서에서 용안육의 기원종은 용안나무 1종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등 현지 과일시장에는 언제나 용안과 여지가 같은 자리에서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지는 그 종자를 여지핵荔枝核이라 하여 이기약理氣藥으로 사용하지만, 그 과육(여지육)은 주로 식용할 뿐 거의 약용하지 않는다.

용안육은 건조수율이 낮아 10kg을 건조하면 1kg 정도만 남으나, 여지육은 10kg 건조시 2.5kg 정도를 얻을 수 있어 생산비용이 낮다. 또한 용안육과 여지육의 형태와 맛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지육이 혼입되기 쉽다.

1) 학명은 *Dimocarpus longan* Lour.이다.

2) 학명은 *Litchi chinensis* Sonn.이다.

2. 약효 차이

약명	용안육	여지육
성미	溫, 辛·微苦, 無毒	溫, 甘·酸, 無毒
귀경	心, 脾	肝, 脾
효능	補益心脾, 養血安神	養血健脾, 行氣消腫
주치	氣血不足, 心悸怔忡, 心脾兩虛, 健忘失眠, 血虛萎黃	病後體虛, 津傷口渴, 脾虛泄瀉, 呃逆, 食少, 瘰癧, 疔腫, 外傷出血
구분	補益藥(補血藥)	補益藥(補血藥)

- 위의 도표와 같이, 두 품목은 귀경과 효능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초강목》에서는 여지육을 ‘염방지과炎方之果’라 하였으며, 황원어黃元御는 ‘혈열의용안血熱宜龍眼, 혈한의여기血寒宜荔枝’라 하였다.
- 두 품목 모두 양혈養血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나, 용안육은 보혈補血을 통한 안신安神 효능(심·비경에 들어가 영혈營血을 자양滋養 → 안신安神 → 심비혈허心脾血虛를 치료)을 나타내는 반면, 여지육은 소종消腫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혈약으로서는 용안육이 더 합당하다.
- 약성이 모두 온하나, 여지육이 상대적으로 더 온성溫성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여지육은 여름철의 복랭증腹冷證에 적합한 과일로 고려할 수 있다.

3. 약재 감별 기준점

1) 용안육

- 황갈색으로 반투명하고, 물에 불리면 황백색으로 부풀어 오르며, 특유의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약하다.
- 건조 과정에서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말린 것은 색깔이 검은 편이고, 껍질을 제거하고 말린 것은 노란색이다.
- 설탕물에 담갔다 말린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맛이 더 강하고 끈끈한 질감이 있다. 이는 부적합품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여지육

- 용안육에 비해 크기가 크고, 어두운 흑갈색으로 불투명하며, 물에 불리면 흑갈색으로 부풀어 오른다.
- 맛이 약간 떫고 신맛이 있다.



여지나무



용안(거피 전)

4. 식물 검색표

- | | |
|---|------|
| 1. 꽃잎은 미색이고, 열매는 황갈색이며 표면에 약간 불룩한 흔적이 있다.
..... | 용안나무 |
| 1. 꽃잎은 청백색 또는 연한 황색이고, 열매는 진한 홍색이며 표면에 불룩한 부분이 많다. | 여지나무 |

5. 약재 검색표

- | | |
|---|-----|
| 1. 황갈색으로 반투명하고, 물에 불리면 황백색으로 부풀어 오르며, 특유의 단맛이 강하다. | 용안육 |
| 1. 어두운 흑갈색으로 불투명하고, 물에 불리면 흑갈색으로 부풀어 오르며, 맛이 약간 퓌고 신맛이 있다. | 여지육 |



여지(거피 전)



용안육



여지육

우슬(牛膝)

이 명 百倍, 牛莖, 脚斯躑, 鐵牛膝, 杜牛膝, 懷牛膝, 懷夕, 眞夕, 懷膝

생약명 *Achyranthis Radix*

영문명 *Achyranthes Root*

기 원 [한] 비름과 식물인 쇠무릎¹⁾ 또는 털쇠무릎²⁾의 뿌리.

[중·일] 털쇠무릎의 뿌리.

약 성 苦·甘·酸, 平. 肝·腎經.

효 능 逐瘀通經, 補肝腎, 強筋骨, 利尿通淋, 引血下行.

주 치 經閉, 痛經, 腰膝酸痛, 筋骨無力, 淋證, 水腫, 頭痛, 眩暈, 牙痛, 口瘡, 吐血, 衄血.

우슬은 줄기의 마디가 부풀어 있는 모습이 마치 소의 무릎과 비슷하다고 하여 쇠무릎, 우슬이라는 이름이 붙은 한약재로서 활혈거어약活血祛瘀藥에 속하며, ‘인혈하행引血下行’하는 작용이 대표적인 효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치修治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생용生用하면 활혈活血·거풍습祛風濕 작용이 있으며, 주증酒蒸하면 보간신補肝腎·강근골強筋骨 작용을 나타내어 요슬골통腰膝骨痛에 응용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슬이라는 이름을 갖는 약재가 여러 종류가 있어 유통 시장에서 혼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우슬류의 기원과 유통

우슬의 기원종으로 중국과 일본은 털쇠무릎 1종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우리나라 자생종인 쇠무릎을 추가하고 있다. 흔히 중국산 털쇠무릎을 **회우슬**懷牛膝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쇠무릎은 **토우슬**土牛膝이라고 부른다. 쇠무릎과 털쇠무릎은 서로 변종 관계이므로 매우 가까운 식물이다.

한편 중국약전에는 **천우슬**川牛膝도 수재되어 있는데, 이는 비름과에 속한 식물인 사천우슬³⁾의 뿌리를 가리킨다. 또한 중국 현지에는 **마우슬**麻牛膝이라는 이름의 약재도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사천우슬과 같은 속에 속하는 식물인 두화배현頭花杯莧⁴⁾이다.

즉, 우슬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유통되는 종류는 회우슬, 토우슬, 천우



쇠무릎(토우슬)



쇠무릎혹파리의 기생으로 크게 부풀 쇠무릎 줄기 마디

- 1) 학명은 *Achyranthes bidentata* var. *japonica* Miq.[=*A. japonica* (Miq.) Nakai]이다.
- 2) 학명은 *Achyranthes bidentata* Blume(=*A. fauriei* H.Lév. & Vaniot)이다.
- 3) 식물명을 일반적으로 ‘천우슬’이라고 하나, 여기에서는 약명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천우슬’로 적는다. 학명은 *Cyathula officinalis* K.C.Kuan이다.
- 4) 학명은 *Cyathula capitata* Moq.이다.



털쇠무릎(회우슬)



털쇠무릎 뿌리

슬, 마우슬 등 네 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산 약재를 부를 때 ‘토土’라는 접두사를, 중국산 약재에는 ‘천川’이라는 접두사를 습관적으로 붙이는 경향이 있다. 만약 중국산 우슬을 가리켜 ‘천우슬’이라고 표현할 경우, 위와 같이 회우슬과는 다른 종류인 천우슬(사천우슬)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슬류의 산출 지역을 보면, 쇠무릎은 한·중·일 3국에, 털쇠무릎은 중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며(주산지는 중국 허난성), 사천우슬은 쓰촨성을 비롯한 중국에, 두화배현은 중국 서남부와 인도·네팔 등에 분포한다(주산지는 중국 쓰촨성).

참고로 중국 광둥 지역에서는 국화과에 속한 식물인 벌등골나물¹⁾의 뿌리를 토우슬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광둥토우슬廣東土牛膝), 이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우슬류와는 무관한 약재이다.

2. 약효 차이

약명	토우슬	회우슬	천우슬	마우슬
성미	甘·微苦·微酸, 寒	苦·酸, 平	甘·微苦, 平	微苦, 平
귀경	肝 脾	肝 腎	肝 腎	
효능	活血祛瘀, 瀉火解毒, 利尿通淋	補肝腎, 強筋骨, 活血通經, 引血(火)下行, 利尿通淋	活血祛瘀, 祛風利濕	祛風濕, 逐瘀血
주치	閉經, 跌打損傷, 風濕關節痛, 痢疾, 白喉, 咽喉腫痛, 瘡癤, 淋證, 水腫	腰膝酸痛, 下肢痿軟, 血滯經閉, 痛經, 產後瘀血腹痛, 癥瘕, 胞衣不下, 熱淋, 血淋, 跌打損傷, 癰腫惡瘡, 咽喉腫痛	血瘀經閉, 難產, 胞衣不下, 產後瘀血腹痛, 熱淋, 石淋, 痛經, 風濕腰膝疼痛, 跌打損傷	風寒濕痺, 腰膝疼痛, 血瘀經閉, 產後惡露不盡
구분	活血祛瘀藥 清熱藥	祛風濕藥 (祛風濕強筋骨藥)	活血祛瘀藥 (止痛藥)	祛風濕藥 (祛風濕止痺藥)

1) 우슬의 약성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부인과婦人科의 혈어증血瘀證에 상용되는 약물로서, 월경을 순조롭게 하며 이뇨작용이 있고, 심지어 태태墮胎 작용도 지니고 있다.
- ‘임증淋症의 요약要藥으로 통리균通利竅한다’고 하여, 실제로는 혈뇨와 요통을 수반하는 임증(석림石淋 등)에 보조적인 역할을 나타낸다. 또한 요슬통·대퇴통大腿痛 등 혈액순환이 안되어 습체滯濕되었을 때에도 응용된다.
- 상병上病의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두부頭部와 상반신의 혈액을 하방으로 인도하여 신체 윗부분의 충혈을 감소시켜, 고혈압과 같은 간양상항肝陽上亢의 병증에 응용된다.
- 하초下焦 기능을 보강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보신補腎 작용의 증

1) 학명은 *Eupatorium chinense* L.이다.

강 등).

- 심지어 ‘모든 약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能引諸藥下行’고 하여 다른 약물의 효능을 하방으로 인도시키는 약물로도 응용되었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우슬 중 회우슬은 거풍습강근골祛風濕強筋骨 효능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며, 토우슬은 청열해독清熱解毒 및 활혈거어活血祛瘀의 효능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다만, 주증酒蒸하여 숙용熟用하면 거풍습강근골 효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천우슬의 경우 활혈거어活血祛瘀 작용에 기반한 지통止痛 효능으로 활용되며, 마우슬은 거풍습祛風濕 작용에 기반한 지통 효능을 나타낸다.



토우슬



회우슬

3. 약재 감별 기준점

1) 토우슬

- 전체적으로 **잔뿌리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 외면은 회색빛을 띤 황색이며, 단면이 각질角質인 것이 특징이다.

2) 회우슬

- 원뿌리가 **직근直根**으로 곧게 변으며 잔뿌리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 외면은 황토색이며, 질감은 단단하지만 물에 불리면 쉽게 부드러워진다.
- 천우슬과 비교하면 단면의 유관속이 2~4줄의 동심원을 이룬다.

3) 천우슬·마우슬

- 토우슬이나 회우슬에 비해 뿌리가 매우 굵은 점이 특징이다.
- 회우슬과 비교하면 단면의 유관속이 4~11줄의 동심원을 이룬다.
- 천우슬은 맛이 달고, 마우슬은 맵고 혀가 아린 느낌을 준다.



사천우슬(천우슬)

4. 식물 검색표

- | | |
|---|-----------|
| 1. 뿌리가 가늘다. | |
| 2. 잔뿌리가 많으며 가늘고, 뿌리껍질은 다갈색이며, 꽃차례는 비교적 길고 털이 적다. | 쇠무릎(토우슬) |
| 2. 뿌리가 원주형으로 굵은 편이고, 뿌리껍질은 황토색이며, 꽃차례는 비교적 짧고 털이 많다. | 털쇠무릎(회우슬) |
| 1. 뿌리가 굵다. | |
| 3. 잎의 양면에 길고 거친 털이 많으며, 꽃차례는 마르면 백색이고, 퇴화된 수술의 길이가 짧다. | 사천우슬(천우슬) |
| 3. 잎의 양면에 길고 부드러운 털이 가끔 있으며, 꽃차례는 마르면 자갈색이고, 퇴화된 수술의 길이가 길다. | 두화배현(마우슬) |



천우슬

5. 약재 검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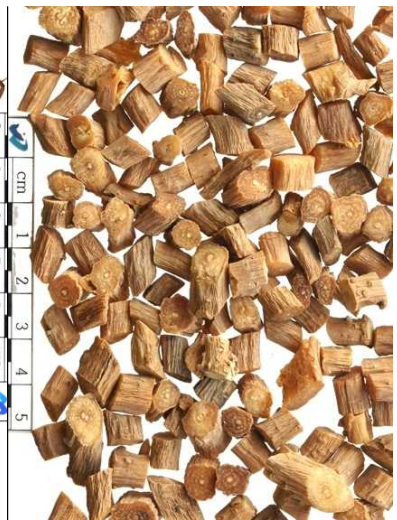
- | | |
|---|-----|
| 1. 뿌리가 상대적으로 가늘다(지름 1cm 미만). | |
| 2. 지름 3~5mm로서 더 가늘고 잔뿌리가 많으며, 외면은 회색빛을 띤 황색~연한 황색이고, 단면은 각질이다. | 토우슬 |
| 2. 지름 4~10mm로서 원주형으로 굵고, 외면은 연한 황색이고, 단면은 각질이면서 유윤油潤하다. | 회우슬 |
| 1. 뿌리가 상대적으로 굵다(지름 1cm 이상). | |
| 3. 단면이 연한 황색이고, 맛은 달며 뒷끝이 약간 쓰다. | 천우슬 |
| 3. 단면이 약간 적색을 띠며, 맛은 맵고 혀가 얼얼하다. | 마우슬 |



마우슬



토우슬



회우슬

영문 찾아보기

(A)

Abutili Semen	35	Agastachis Herba	12
<i>Abutilon theophrasti</i> Medik.	35	<i>Akebia quinata</i> (Houtt.) Decne.	37, 58
<i>Achyranthes bidentata</i> Blume	109	Akebia Stem	37
<i>Achyranthes bidentata</i> var. <i>japonica</i> Miq.	109	<i>Akebia trifoliata</i> (Thunb.) Koidz.	37
<i>Achyranthes fauriei</i> H.Lév. & Vaniot	109	<i>Akebia trifoliata</i> subsp. <i>australis</i> (Diels) T.Shimizu	37
<i>Achyranthes japonica</i> (Miq.) Nakai	109	Akebiae Caulis	37
Achyranthes Root	109	Amomi Fructus	76
Achyranthis Radix	109	<i>Amomum longiligulare</i> T.L.Wu	76
Aconite	67	<i>Amomum villosum</i> Lour.	76
Aconiti Koreani Tuber	61	<i>Amomum villosum</i> var. <i>xanthioides</i> (Wall. ex Baker)	76
Aconiti Kusnezoffii Radix	67	T.L.Wu & S.J.Chen	76
Aconiti Kusnezoffii Tuber	67	<i>Angelica acutiloba</i> (Siebold & Zucc.) Kitag.	16
Aconiti Lateralis Radix Preparata	67	<i>Angelica acutiloba</i> var. <i>sugiyamae</i> Hikino	16
Aconiti Radix	67	<i>Angelica biserrata</i> (R.H.Shan & C.Q.Yuan)	2, 32
Aconiti Tuber	67	C.Q.Yuan & R.H.Shan	2, 32
<i>Aconitum carmichaelii</i> Debeaux	67	<i>Angelica genuflexa</i> Nutt. ex Torr. & A.Gray	2
<i>Aconitum ciliare</i> DC.	67	<i>Angelica gigas</i> Nakai	16
<i>Aconitum coreanum</i> (H.Lév.) Rapaics	61	Angelica Gigas Root	16
<i>Aconitum jaluense</i> var. <i>triphylllum</i> (Nakai) U.C.La	67	<i>Angelica grosseserrata</i> Maxim.	2
		<i>Angelica pubescens</i> Maxim.	2
<i>Aconitum japonicum</i> Thunb.	67	<i>Angelica reflexa</i> B.Y.Lee	2
<i>Aconitum kusnezoffii</i> Rchb.	67	<i>Angelica sinensis</i> (Oliv.) Diels	16
<i>Aconitum triphyllum</i> Nakai	67	Angelicae Gigantis Radix	16
<i>Aconitum volubile</i> var. <i>pubescens</i> Regel	67	Angelicae Pubescentis Radix	32
<i>Adenophora remotiflora</i> (Siebold & Zucc.) Miq.	73	Angelicae Radix	16
		Angelicae Sinensis Radix	16
<i>Adenophora stricta</i> Miq.	72	Apricot Kernel	29
<i>Adenophora tetraphylla</i> (Thunb.) Fisch.	72	<i>Aralia continentalis</i> Kitag.	2, 32
<i>Adenophora triphylla</i> (Thunb.) A.DC.	72	Aralia Continentalis Root	32
<i>Adenophora triphylla</i> var. <i>japonica</i> (Regel) Hara	72	<i>Aralia cordata</i> Thunb.	2, 32
		<i>Aralia elata</i> (Miq.) Seem.	33
<i>Adenophora verticillata</i> Fisch.	72	Araliae Continentalis Radix	32
Adenophorae Radix	72	<i>Aristolochia contorta</i> Bunge	42
Agastache Herb	12	<i>Aristolochia fangchi</i> Y.C.Wu ex L.D.Chow &	50
<i>Agastache rugosa</i> (Fisch. & C.A.Mey.) Kuntze	12	S.M.Hwang	50
		<i>Aristolochia heterophylla</i> Hemsl.	50
		<i>Aristolochia kaempferi</i> Willd.	50
		<i>Aristolochia manshuriensis</i> Kom.	37
		<i>Armeniaca mume</i> Siebold	95
		Armeniacae Amarum Semen	29

Armeniaca Semen	29
<i>Aucklandia costus</i> Falc.	41
<i>Aucklandia lappa</i> Decne.	41
Aucklandiae Radix	41

(B)

<i>Baphicacanthus cusia</i> (Nees) Bremek.	21
Bitter Apricot Seed	29
<i>Blumea balsamifera</i> (L.) DC.	103
Borneol	102
Borneolum	102

(C)

Cablin Patchouli Herb	12
Camphor	102
Camphorum	102
Chinese Angelica Root	16
<i>Cinnamomum camphora</i> (L.) J.Presl	102
<i>Clematis armandii</i> Franch.	38
<i>Clematis montana</i> Buch.-Ham. ex DC.	38
<i>Clerodendrum cyrtophyllum</i> Turcz.	23
Cluster Mallow Seed	35
Coastal Glehnia Root	72
Cocculi Radix	49
<i>Cocculus orbiculatus</i> (L.) DC.	49
<i>Cocculus trilobus</i> (Thunb.) DC.	49
<i>Codonopsis lanceolata</i> (Siebold & Zucc.) Benth. & Hook.f. ex Trautv.	73
Common Vladimiria Root	41
Costus Root	41
<i>Curcuma aromatica</i> Salisb.	8
<i>Curcuma kwangsiensis</i> S.G.Lee & C.F.Liang	7
<i>Curcuma longa</i> L.	7
Curcuma Longa Rhizome	7
<i>Curcuma phaeocaulis</i> Valetton	7
Curcuma Root	7
<i>Curcuma sichuanensis</i> X.X.Chen	8

<i>Curcuma wenyujin</i> Y.H.Chen & C.Ling	7
<i>Curcuma zanthorrhiza</i> Roxb.	8
<i>Curcuma zedoaria</i> (Christm.) Roscoe	7
Curcumae Longae Rhizoma	7
Curcumae Radix	7
Curcumae Rhizoma	7
<i>Cyathula capitata</i> Moq.	109
<i>Cyathula officinalis</i> K.C.Kuan	109

(D)

Dark Plum Fruit	95
<i>Dimocarpus longan</i> Lour.	106
Dipsaci Radix	91
<i>Dipsacus asper</i> Wall. ex DC.	91
<i>Dipsacus asperoides</i> C.Y.Cheng & T.M.Ai	91
Dipsacus Root	91
<i>Dolomiaea souliei</i> (Franch.) C.Shih	41
<i>Dolomiaea souliei</i> var. <i>mirabilis</i> (J.Anthony) C.Shih	41
<i>Dryobalanops aromatica</i> C.F.Gaertn.	102
<i>Dryobalanops sumatrensis</i> (J.F.Gmel.) Kosterm.	102

(E)

<i>Eupatorium chinense</i> L.	110
------------------------------------	-----

(F)

Fragrant Solomonseal Rhizome	98
------------------------------------	----

(G)

<i>Glehnia littoralis</i> F.Schmidt ex Miq.	54, 72
Glehnia Root	54
Glehniae Radix	54, 72

Granate Bark	88
Granati Cortex	88
Granati Fructus	88
Granati Pericarpium	88
Gypsum	85
Gypsum Fibrosum	85

(H)

<i>Helianthus strumosus</i> Willd.	62
<i>Helianthus tuberosus</i> L.	62
<i>Heracleum moellendorffii</i> Hance	32

(I)

Indian Bread	64
Indigo Naturalis	21
Indigo Pulverata Levis	21
<i>Indigofera suffruticosa</i> Mill.	23
<i>Indigofera tinctoria</i> L.	23
Indigowoad Root	21
<i>Inula helenium</i> L.	41
Inulae Heleni Radix	41
Isatidis Folium	21
Isatidis Radix	21
<i>Isatis indigotica</i> Fortune ex Lindl.	21
<i>Isatis tinctoria</i> L.	21

(J)

Japanese Angelica Root	16
Jujube Seed	79
<i>Juniperus chinensis</i> L.	59

(K)

<i>Kalopanax septemlobus</i> (Thunb.) Koidz.	33
---	----

Korean Aconite Root	67
Kusnezoff Monkshood Root	67

(L)

Ladybell Root	72
<i>Leucaena leucocephala</i> (Lam.) de Wit	79
<i>Litchi chinensis</i> Sonn.	106
Longan Aril	106
Longan Arillus	106

(M)

<i>Malva verticillata</i> L.	35
Malvae Fructus	35
Malvae Semen	35
Monkshood Daughter Root	67
Mume Fructus	95

(N)

Natural Indigo	21
<i>Notopterygium forbesii</i> H.Boissieu	2
<i>Notopterygium franchetii</i> H.Boissieu	2
<i>Notopterygium incisum</i> K.C.Ting ex H.T.Chang	2
Notopterygium Rhizome and Root	2

(O)

Osterici seu Notopterygii Radix et Rhizoma	2
<i>Ostericum koreanum</i> (Maxim.) Kitag.	2
<i>Ostericum praeteritum</i> Kitag.	2
Ostericum Root	2

(P)

Patchouli	12
Peach Kernel	29
Persicae Semen	29
<i>Persicaria tinctoria</i> (Aiton) H.Gross	21
Peucedani Japonici Radix	54
<i>Peucedanum japonicum</i> Thunb.	54
Phlomidis Radix	91
<i>Phlomis umbrosa</i> Turcz.	91
<i>Phlomoides umbrosa</i> (Turcz.) Kamelin & Makhm.	91
<i>Pinellia pedatisecta</i> Schott	45
<i>Pinellia ternata</i> (Thunb.) Makino	45
Pinellia Tuber	45
Pinelliae Tuber	45
<i>Pogostemon cablin</i> (Blanco) Benth.	12
Pogostemon Herb	12
Pogostemonis Herba	12
Polygonati Odorati Rhizoma	98
Polygonati Rhizoma	98
<i>Polygonatum cyrtonema</i> Hua	98
<i>Polygonatum falcatum</i> A.Gray	98
<i>Polygonatum kingianum</i> Collett & Hemsl.	98
<i>Polygonatum odoratum</i> (Mill.) Druce	98
<i>Polygonatum odoratum</i> var. <i>pluriflorum</i> (Miq.) Ohwi	98
<i>Polygonatum sibiricum</i> F.Delaroche	98
Polygoni Tinctorii Folium	21
<i>Polygonum tinctorium</i> Aiton	21
Pomegranate	88
Pomegranate Pericarp	88
<i>Poria cocos</i> (Schw.) Wolf	64
Poria Sclerotium	64
Pricklyash Peel	82
<i>Prunus armeniaca</i> L.	29
<i>Prunus armeniaca</i> var. <i>ansu</i> Maxim.	29, 96
<i>Prunus davidiana</i> (Carrière) Franch.	29, 96
<i>Prunus mandshurica</i> (Maxim.) Koehne	29
<i>Prunus mume</i> (Siebold) Siebold & Zucc.	95
<i>Prunus persica</i> (L.) Batsch	29

<i>Prunus salicina</i> Lindl.	96
<i>Prunus sibirica</i> L.	29
<i>Pterocarpus indicus</i> Willd.	59
Pubescent Angelica Root	32
<i>Punica granatum</i> L.	88

(R)

Rhei Radix et Rhizoma	25
<i>Rheum coreanum</i> Nakai	25
<i>Rheum officinale</i> Baill.	25
<i>Rheum palmatum</i> L.	25
<i>Rheum rhabarbarum</i> L.	25
<i>Rheum tanguticum</i> Maxim. ex Balf.	25
<i>Rheum undulatum</i> L.	25
Rhubarb	25
<i>Rumex acetosa</i> L.	26
<i>Rumex chalepensis</i> Mill.	26
<i>Rumex japonicus</i> Houtt.	26

(S)

Santali Albi Lignum	58
Santalini Lignum Rubrum	58
<i>Santalum album</i> L.	58
<i>Saposhnikovia divaricata</i> (Turcz.) Schischk.	54
Saposhnikovia Root	54
Saposhnikoviae Radix	54
<i>Sauromatum giganteum</i> (Engl.) Cusimano & Hett.	45, 61
Saussurea Root	41
Saussureae Radix	41
Sinomeni Caulis et Rhizoma	49
<i>Sinomenium acutum</i> (Thunb.) Rehder & E.H.Wilson	49
Sinomenium Stem and Rhizome	49
Solomonseal Rhizome	98
Stephania Tetrandra Root	49
<i>Stephania tetrandra</i> S.Moore	49

Stephaniae Tetrandrae Radix	49	<i>Ziziphus mauritiana</i> Lam.	79
<i>Strobilanthes cusia</i> (Nees) Kuntze	21	Zizyphi Semen	79
<i>Strobilanthes penstemonoides</i> (Nees) T.Anderson	23		

(T)

<i>Tetrapanax papyrifer</i> (Hook.) K.Koch	37
Turmeric Rhizome	7
Typhonii Rhizoma	61
<i>Typhonium flagelliforme</i> (Lodd.) Blume	45
<i>Typhonium giganteum</i> Engl.	45, 61

(V)

Villous Amomum Fruit	76
<i>Vladimiria souliei</i> (Franch.) Ling	41
<i>Vladimiria souliei</i> var. <i>cinerea</i> Ling	41
Vladimiriae Radix	41

(W)

<i>Wolfiporia cocos</i> (F.A.Wolf) Ryvarden & Gilb.	64
--	----

(Z)

Zanthoxyli Pericarpium	82
<i>Zanthoxylum bungeanum</i> Maxim.	82
<i>Zanthoxylum piperitum</i> (L.) DC.	82
<i>Zanthoxylum schinifolium</i> Siebold & Zucc.	82
Zedoaria Rhizome	7
Zedoary	7
<i>Ziziphus jujuba</i> Mill.	79
<i>Ziziphus jujuba</i> var. <i>inermis</i> (Bunge) Rehder ...	79
<i>Ziziphus jujuba</i> var. <i>spinosa</i> (Bunge) Hu ex H.F.Chow	79

국문 찾아보기

(ㄱ)

각복령(角茯苓)	65
각사등(脚斯蹬)	109
감석류(甘石榴)	88
강청(羌靑)	2
강칠(薑七)	7
강형황정(薑形黃精)	99
강호리	2
강활(羌活)	2
강활(羌滑)	2
강황(薑黃)	7
개돼지감자	62
개똥단지	62
개복숭아	96
개살구나무	29
갯기름나물	54
갯방풍	54, 72
건귀(乾歸)	16
경마자(瞢麻子)	35
경마자(苘麻子)	35
경실(苘實)	35
경자(耿子)	67
경포부자(京炮附子)	68
계격(鷄格)	98
계독(鷄毒)	67
계두삼(鷄頭參)	98
계두황정(鷄頭黃精)	99
계소(鷄蘇)	12
계심백부(鷄心白附)	61
계울금(桂鬱金)	8
계원(桂圓)	106
고심(苦心)	72
고추초(鼓錘草)	91
고행인(苦杏仁)	29
공마자(空麻子)	35
과방기(瓜防己)	49
곽향(藿香)	12

관목통(關木通)	37
관백부(關白附)	61, 68
관엽강활(寬葉羌活)	2
광곽향(廣藿香)	12
광동토우슬(廣東土牛膝)	110
광목향(廣木香)	41
광방기(廣防己)	49
광서아출(廣西莖朮)	7
광술(廣茂)	7
광출(廣朮)	7
교루(蛟淚)	106
구격(苟格)	98
구궁(救窮)	98
구안독활(九眼獨活)	32
국우(菊芋)	62
권강활(卷羌活)	2
규산알루미늄염	86
규자(葵子)	35
규채자(葵菜子)	35
근(藟)	67
금문(錦紋)	25
금문대황(錦紋大黃)	25
금아(金鴉)	67
금황(金黃)	9
급(芨)	67
기목향(祁木香)	41
기정(氣精)	98
길매육(桔梅肉)	95
길삼(桔參)	72
끼무릇	45

(ㄴ)

나강(懶薑)	98
남강활	2
남대황	26
남로(藍路)	21
남목향(南木香)	41
남사삼(南沙參)	72
남엽(藍葉)	21

남전근(藍靛根)	21
남전엽(藍靛葉)	21
남채(藍菜)	21
남초(南椒)	82
남초(南草)	91
남판람근(南板藍根)	21
남한수석	86
납랍향(拉拉香)	12
내양삼(萊陽參)	54, 72
노랑돌쩌귀	61
노매편(老梅片)	102
노변청(路邊靑)	23
노호강(老虎薑)	98
녹각사(綠殼砂)	76
녹사울금(綠絲鬱金)	8
녹죽(鹿竹)	98
녹하하(綠荷荷)	12
늦젓가락나물	67
뇌자(腦子)	102
누른강황	8

(ㄷ)

다화황정(多花黃精)	98
단향(檀香)	58
단향목(檀香木)	58
담부편(淡附片)	68
당귀(當歸)	16
당목향(唐木香)	41
당의(蘆薈)	82
당잔대	72
당포부자(唐炮附子)	68
대두강(大頭羌)	3
대엽박하(大葉薄荷)	12
대청	21
대청엽(大靑葉)	21
대초(大椒)	82
대황(大黃)	25
대황정(大黃精)	99
댕댕이덩굴	49

더덕	72
도인(桃仁)	29
도자(桃子)	96
도핵인(桃核仁)	29
독각련(獨角蓮)	45, 61
독공(毒公)	67
독요초(獨搖草)	32
독활(獨活)	2, 32
독활(獨滑)	32
동규과(冬葵果)	35
동규자(冬葵子)	35
동운(銅芸)	54
돼지감자	61
두릅나무	33
두우슬(杜牛膝)	109
두침향(肚沈香)	59
두화배현(頭花杯莧)	109
등굴레	98
등취	37
땃두릅	2, 32
땅두릅	2, 32
똥만지	61

(ㄹ)

룡간	106
리치	106

(ㄴ)

마랍(馬藍)	21
마미귀(馬尾歸)	16
마미당귀(馬尾當歸)	16
마술(馬薺)	7
마우슬(麻牛膝)	109
마우자(麻芋子)	61
마전(馬箭)	98
마제대황(馬蹄大黃)	26
마훈(馬熏)	98

만년(萬年)	37
망과산모	26
매실(梅實)	95
매실나무	95
매편(梅片)	102
매화뇌(梅花腦)	102
매화빙편(梅花冰片)	102
면산조인(緬酸棗仁)	79
모당귀(毛當歸)	2
모시대	72
모자두(耗子頭)	67
목락자(木落子)	29
목람(木藍)	23
목방기(木防己)	49
목탄(木彈)	106
목통(木通)	37
목향(木香)	41
뫼대추	79
묘미과향(猫尾巴香)	12
묘파(猫把)	12
묘과호(猫巴虎)	12
무기지(戊己芝)	98
문출(文朮)	7
문호(文虎)	72
문희(文希)	72
미삼(尾參)	98
미포(米脯)	98
미포(米舖)	98
민당귀(岷當歸)	16
밀비(蜜脾)	106
밀향(密香)	41

(나)

반하(半夏)	45
방규(防葵)	54
방기(防己)	49
방아잎	12
방울풀뿌리	42
방풍(防風)	54

방해석(方解石)	85
배초향(排草香)	12
배향초(排香草)	12
백구(百韭)	54
백급(白及)	98
백급황정(白及黃精)	98
백단(白檀)	58
백단나무	58
백단향(白檀香)	58
백마자(白麻子)	35
백매(白梅)	95
백목통(白木通)	37
백배(百倍)	109
백복령(白茯苓)	64
백부자(白附子)	61, 68
백부편(白附片)	68
백사삼(白沙參)	72
백사울금(白絲鬱金)	8
백산번서(白山番薯)	49
백삼(白參)	72
백종(百種)	54
백지(百枝)	54
백해약(百解藥)	98
백호(白虎)	85
별등골나물	110
병풍(屏風)	54
보정향(寶鼎香)	7
복등(菴藤)	37
복령(茯苓)	64
복령개(茯苓個)	64
복령괴(茯苓塊)	64
복령권(茯苓卷)	65
복령편(茯苓片)	64
복령피(茯苓皮)	65
복사나무	29
복숭아	30
복신(茯神)	64
복신목(茯神木)	65
복토(茯菹)	64
봉아술(蓬莪朮)	7
봉아출(蓬莪朮)	7

봉출(蓬朮)	7
부여(膚如)	25
부자(附子)	61, 67
부지(附支)	37
북강활	2
북대황	26
북사삼(北沙參)	54, 72
북판람근	21
북한수석	86
분방기(粉防己)	49
불사면(不死麵)	64
비목(比目)	106
빈방풍(濱防風)	54
빈방풍(濱防風)	72
빈해전호(濱海前胡)	55
빙편(冰片)	102
빙편뇌(冰片腦)	102

(스)

사달자(沙獺子)	72
사삼(沙參)	72
사인(砂仁)	76
사천목향(四川木香)	41
사천우슬	109
산강(山薑)	98
산도구(山搗臼)	98
산류피(酸榴皮)	88
산모(酸模)	26
산복사나무	29, 96
산사삼(山沙參)	72
산생강(山生薑)	98
산석류피(酸石榴皮)	88
산소자(山蘇子)	91
산옥죽(山玉竹)	98
산조(酸棗)	79
산조인(酸棗仁)	79
산조핵(酸棗核)	79
산지마(山芝麻)	91
산초(山椒)	82

산초나무	82
산해라(山海螺)	73
살구	96
살구나무	29
삼엽목통(三葉木通)	37
생강(生薑)	98
생군(生軍)	25
서강(西羌)	2
서당귀(西當歸)	16
서대황	26
서류피(西榴皮)	88
서북대황	26
서죽(西竹)	98
석고(石膏)	85
석류(石榴)	88
석류각(石榴殼)	88
석류나무	88
석류피(石榴皮)	88
선인여량(仙人餘糧)	98
세리석(細理石)	85
세석(細石)	85
세잎돌쩌귀	67
소곽향(蘇藿香)	12
소뇌(韶腦)	102
소목통(小木通)	38
속단(續斷)	91
속단풀	91
속절(屬折)	91
송령(松苓)	64
송목서(松木薯)	64
송서(松薯)	64
송유(松腴)	64
쇠무릎	109
수구등(綉球藤)	38
수뇌(樹腦)	102
수마엽(水麻葉)	12
수반하(水半夏)	45
수영	26
수옥(水玉)	45
수전(守田)	45
수주(垂珠)	98

술약(葷藥)	7
승람(菘藍)	21
승침향(勝沈香)	58
시고(示姑)	45
시베리아살구	29
식방풍(植防風)	54
식용대황	25
신감채	2
십양착(十樣錯)	98

(○)

아르메니아살구	29	어향(魚香)	12
아욱	35	엄나무	33
아출(莪朮)	7	여위(女萎)	98
아황(雅黃)	26	여주(驪珠)	106
안령(安苓)	65	여지	106
안석류산실각(安石榴酸實殼)	88	여지핵(荔枝核)	106
애납향(艾納香)	103	연란(燕卵)	106
애편(艾片)	103	연복(燕覆)	37
야곽향(野藿香)	12	연석고(軟石膏)	85
야면화자(野棉花子)	35	연죽(連竹)	98
야반하(野半夏)	61	염부자(鹽附子)	68
야생강(野生薑)	98	염청초(染靑草)	21
야선강(野仙薑)	98	영아삼(鈴兒參)	72
야자고(野慈姑)	61	예지자(預知子)	38
야저마자(野苧麻子)	35	오독근(五毒根)	67
야청수(野靑樹)	23	오두(烏頭)	7, 67
야향채근(野香菜根)	54, 72	오매(烏梅)	95
약용대황(藥用大黃)	25	오목향(五木香)	41
양두침(兩頭尖)	61	오복(烏覆)	37
양안반하(羊眼半夏)	45	오슈바꽃	67
양유(羊乳)	73	오위(烏萎)	98
양유근(羊乳根)	73	오제죽(五帝足)	7
양작홍(陽雀藪)	98	오향(五香)	41
양제근(羊蹄根)	26	오훼(烏喙)	67
양춘사(陽春砂)	76	옥마(玉馬)	98
양파내(羊婆奶)	72	옥죽(玉竹)	98
어수리	32	옥죽황정(玉竹黃精)	98
어저귀	35	옥출(玉朮)	98
		온울금(溫鬱金)	7
		왕옹(王翁)	37
		왜당귀	16
		왜천궁	2
		요대청엽(蓼大靑葉)	21
		요람(蓼藍)	21
		요사삼(遼沙參)	54, 72
		용뇌(龍腦)	102
		용뇌향(龍腦香)	102
		용뇌향나무	102
		용두(龍豆)	91
		용안(龍眼)	106
		용안나무	106

용안육(龍眼肉)	106
용함(龍銜)	98
우경(牛莖)	109
우내백부(牛奶白附)	61
우목향(牛木香)	49
우미독활(牛尾獨活)	32
우백부(禹白附)	45, 61
우선용뇌(右旋龍腦)	103
우설대황(牛舌大黃)	25
우슬(牛膝)	109
운귀(雲歸)	16
운령(雲苓)	65
운목향(雲木香)	41
울금(鬱金)	7
원등근(圓藤根)	49
원방풍	72
원방풍(原防風)	55
원방풍元防風	55
원안(圓眼)	106
원안육(圓眼肉)	106
원포마람(圓苞馬藍)	23
위삼(葳參)	98
위유(委蕤)	98
위유(萎蕤)	98
위유(葳蕤)	98
위이(萎移)	98
위향(萎香)	98
유뇌(油腦)	102
육발(陸拔)	82
으름덩굴	37
은조삼(銀條參)	54, 72
은합환(銀合歡)	79
음나무	33
응수석(凝水石)	85
이삭바꽃	67
이석(理石)	85
이엽마두령(異葉馬兜鈴)	50
이자(李子)	96
익지(益智)	106
인니아출(印尼莪朮)	8
인도자단나무	59

일당귀	16
일본속단	92

(丕)

자단(紫檀)	58
자단나무	58
자단향(紫檀香)	58
자두	96
자전목(紫栴木)	58
자진단(紫眞檀)	58
잔대	72
잠강(蠶羌)	3
장강활(長羌活)	2
장군(將軍)	25
장군풀	25
장뇌(樟腦)	102
장목향(藏木香)	41
장생초(長生草)	32
장석(長石)	85
장엽대황(掌葉大黃)	25
적단(赤檀)	58
적복령(赤茯苓)	64
전단(旃檀)	58
전말화(靛末花)	21
전자조(滇刺棗)	79
전청근(靛靑根)	21
전청엽(靛靑葉)	21
전청화(靛靑花)	21
전호(前胡)	56
전화(靛花)	21
전화(靛花)	21
전황정(滇黃精)	98
절부(節附)	61
절지(節地)	98
점초(點椒)	82
접골(接骨)	91
접골초(接骨草)	91
정부(丁父)	37
정옹(丁翁)	37

제니(薺芩)	72
제도아리	7
제피	82
조강(條羌)	3
조뇌(潮腦)	102
조소(糙蘇)	91
조인(棗仁)	79
조피	82
종대황(種大黃)	25
좌선용뇌(左旋龍腦)	103
죽절강(竹節羌)	3
죽절백부(竹節白附)	61
죽절오두(竹節烏頭)	67
죽절황(竹節黃)	98
죽칠근(竹七根)	98
중국강활(中國羌活)	2
중국당귀	16
중국독활	32
중국방풍	55
중루(重樓)	98
중치당귀	2
중치당귀(重齒當歸)	32
중치모당귀(重齒毛當歸)	32
취방울덩굴	42
즉자(卽子)	67
지모(知母)	72
지문(地文)	45
지절(地節)	98
지취(志取)	72
진교(秦艽)	68
진귀(秦歸)	16
진단(眞檀)	58
진방풍	54
진범	68
진북사삼(眞北沙參)	54, 72
진석(眞夕)	109
진초(秦椒)	82
진황정	98
쪽	21

(ㄸ)

참당귀	16
참소리쟁이	26
천강(川羌)	2
천곽향(川藿香)	12
천군(川軍)	25
천단(川斷)	91
천독활(川獨活)	32
천목통(川木通)	38
천목향(川木香)	41
천속단(川續斷)	91
천연빙편(天然冰片)	102
천오(川烏)	67
천오두(川烏頭)	67
천우슬(川牛膝)	109
천울금(川鬱金)	8
천웅(天雄)	68
천장(天漿)	88
천초(川椒)	82
철우슬(鐵牛膝)	109
침석류(甜石榴)	88
청강(靑薑)	7
청경박하(靑莖薄荷)	12
청대(靑黛)	21
청등	49
청등자(靑藤仔)	49
청마자(靑麻子)	35
청매(靑梅)	95
청목향(靑木香)	41
청점(靑粘)	98
청초(靑椒)	82
청풍등(靑風藤)	49
청합분(靑蛤粉)	21
청항화(靑缸花)	21
초목(椒目)	82
초오(草烏)	67
초오두(草烏頭)	67
초피나무	82
촉대황(蜀大黃)	25
촉초(蜀椒)	82

축사밀(縮砂蜜)	76
축사인(縮砂仁)	76
춘울금(春鬱金)	8
충선(蟲蟬)	98
충충갈고리등굴레	98
충충잔대	72

(ㄷ)

탄산칼슘	86
탕구트대황(唐古特大黃)	25
터머리	7
털쇠무릎	109
토곽향(土藿香)	12
토당귀	16
토당귀(土當歸)	32
토대황(土大黃)	25
토목향(土木香)	41, 49
토부자(土附子)	67
토속단(土續斷)	92
토영지(土靈芝)	98
토우슬(土牛膝)	109
토죽(菟竹)	98
토죽(免竹)	98
토청목향	42
통복령(筒茯苓)	65
통초(通草)	37
통탈목(通脫木)	37
퇴풍사자(退風使者)	2

(ㄹ)

파동독활(巴東獨活)	32
파엽대황(波葉大黃)	25
파초(巴椒)	82
파출리	12
판남근(板南根)	49
판람근(板藍根)	21

팔호(八蒿)	12
편강(片薑)	9
편뇌(片腦)	102
편부자(片附子)	68
편침이두침(鞭簪犁頭尖)	45
포부자(炮附子)	68
포삼(泡參)	72
풍도등굴레	98
풍육(風肉)	54
필관자(筆管子)	98

(ㅎ)

한국독활	32
한방기(漢防己)	49, 50
한속단(韓續斷)	91
한수석(寒水石)	85
한중방기(漢中防己)	50
한초(漢椒)	82
함수황산칼슘	85
함성빙편	103
해곽향(海藿香)	12
해남사(海南砂)	76
해독(奚毒)	67
해방풍	72
해방풍(海防風)	54, 72
해사삼(海沙參)	54, 72
행매인(杏梅仁)	29
행인(杏仁)	29
행자(杏子)	29, 96
행핵인(杏核仁)	29
향나무	59
현정석(玄精石)	85
형(煢)	98
호강사자(護羌使者)	2
호수(虎鬚)	72
호왕사자(胡王使者)	2, 32
호장(虎掌)	45
훗카이당귀	16
화강활(和羌活)	2

화고(和姑)	45
화삼(火參)	25
화상두(和尚頭)	91
화초(花椒)	82
활혈등(活血藤)	37
황각계(黃脚鷄)	98
황강(黃薑)	7
황단(黃檀)	59
황량(黃良)	25
황만청(黃蔓菁)	98
황사울금(黃絲鬱金)	8
황산칼슘	86
황산칼슘수화물	85
황울(黃鬱)	7
황정(黃精)	98
황지(黃芝)	98
회모천목향(灰毛川木香)	41
회석(懷夕)	109
회슬(懷膝)	109
회우슬(懷牛膝)	109
회운(回雲)	54
회초(回草)	54
훈매(熏梅)	95
휘(檝)	82
흑매(黑梅)	95
흑부자(黑附子)	61
흑순편(黑順片)	68
흑심강(黑心薑)	7
흑약(黑藥)	2
흑울금(黑鬱金)	8